

#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강은나  
최경덕·이상우·최유정·김명일·문성현·박소정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최경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유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명일	경상국립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문성현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박소정	Washington University in Saint Louis 교수

연구보고서 2022-09

###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a href="http://www.kihasa.re.kr">http://www.kihasa.re.kr</a>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ISBN 978-89-6827-873-0 [93330]  
<https://doi.or.kr/10.23060/kihasa.a.2021.09>

## 발|간|사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만 65세 이상 진입이 본격화되고 노인인구가 천만명에 도달하게 된다.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오면서 사회적인 부담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도전과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고령자가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노후 소득은 물론 노동시장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고령자 개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사회로 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초고령사회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에 관한 주요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관련 시행계획의 한계와 현재 고령자의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발견하여 개선과제를 모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물론 고령자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초고령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강은나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최경덕 부연구위원, 최유정 연구원, 그리고 원외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였다. 이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수고하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고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자문해 주신 고령자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관련 학계 교수님들과 원내 및 원외 평가위원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

---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1
요 약 .....	3
<b>제1장 서론 .....</b>	<b>7</b>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6
<b>제2장 문헌 검토 .....</b>	<b>21</b>
제1절 이론적 근거 .....	23
제2절 고령자의 경제활동 .....	36
제3절 고령자의 사회활동 .....	42
제4절 모니터링 개념과 연구 동향 .....	54
<b>제3장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참여 현황 .....</b>	<b>59</b>
제1절 고령자의 경제활동 .....	61
제2절 고령자의 사회활동 .....	81
제3절 소결 .....	113
<b>제4장 고령자의 경제활동 정책 모니터링 .....</b>	<b>117</b>
제1절 고령자의 경제활동 정책 추진현황 .....	119
제2절 고령자의 경제활동 정책 모니터링 .....	133
제3절 소결 .....	171

---

<b>제5장 고령자의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b> .....	<b>177</b>
제1절 고령자의 사회활동 정책 추진현황 .....	179
제2절 고령자의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 .....	188
제3절 소결 .....	220
<b>제6장 결론</b> .....	<b>225</b>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	227
제2절 정책과제 .....	235
<b>참고문헌</b> .....	<b>245</b>
<b>부 록</b> .....	<b>259</b>
[부록 1] 해외 사례 검토 .....	259
[부록 2] 전화조사 조사표: 경제활동 .....	278
[부록 3] 전화조사 조사표: 사회활동 .....	284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자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추진과제 .....	15
〈표 1-2〉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FGI 진행 개요 .....	18
〈표 1-3〉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전화조사 개요 .....	19
〈표 2-1〉 활동적 노화 관련 정책 영역 .....	25
〈표 2-2〉 활동적 노화 지표별 조작적 정의 .....	27
〈표 2-3〉 영역·차원별 연령통합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	35
〈표 2-4〉 연령통합 구성요소별 연령통합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	35
〈표 3-1〉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2012~2021) .....	62
〈표 3-2〉 고령층 고용률(2012~2021) .....	63
〈표 3-3〉 고령층 실업률(2012~2021) .....	64
〈표 3-4〉 고령 취업자의 연령대별 고용률(2011년, 2021년) .....	65
〈표 3-5〉 고령 취업자의 일반적 특성 .....	66
〈표 3-6〉 종사상 지위별 고령 취업자 비율 .....	67
〈표 3-7〉 직업별 고령 취업자 비율 .....	68
〈표 3-8〉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고령 취업자 비율 .....	70
〈표 3-9〉 고령 취업자의 주당 근무시간 .....	71
〈표 3-10〉 고령 임금근로자의 고용 형태(2021년) .....	72
〈표 3-11〉 고령 임금근로자의 직업군 분포(2021년) .....	73
〈표 3-12〉 고령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 <sup>1)</sup> (2021년) .....	73
〈표 3-13〉 고령 임금근로자의 급여 수준(2021년) .....	74
〈표 3-14〉 고령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 .....	75
〈표 3-15〉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사망 현황 .....	76
〈표 3-16〉 고령자 평균 근로 희망 여부 .....	77
〈표 3-17〉 고령층의 근로 희망 동기 .....	77
〈표 3-18〉 고령층의 일자리 선택기준 .....	78
〈표 3-19〉 고령층의 희망 일자리 형태 .....	79
〈표 3-20〉 고령층의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 .....	79

〈표 3-21〉 희망 근로연령 .....	80
〈표 3-22〉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1) .....	82
〈표 3-23〉 성별에 따른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 <sup>1)</sup> .....	83
〈표 3-24〉 연령에 따른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 <sup>1)</sup> .....	84
〈표 3-25〉 지역에 따른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 <sup>1)2)</sup> .....	85
〈표 3-26〉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1~5순위)1) .....	86
〈표 3-27〉 성별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 <sup>1)</sup> .....	87
〈표 3-28〉 연령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 <sup>1)</sup> .....	88
〈표 3-29〉 지역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 <sup>1)</sup> .....	89
〈표 3-30〉 한 달 평균 여가비용 <sup>1)</sup> .....	90
〈표 3-31〉 성별 구분에 따른 한 달 평균 여가비용 <sup>1)</sup> .....	91
〈표 3-32〉 연령 구분에 따른 한 달 평균 여가비용 <sup>1)</sup> .....	92
〈표 3-33〉 지역 구분에 따른 한 달 평균 여가비용 <sup>1)</sup> .....	92
〈표 3-34〉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활동 <sup>1)</sup> .....	93
〈표 3-35〉 성별 구분에 따른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활동 <sup>1)</sup> .....	94
〈표 3-36〉 연령별 구분에 따른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활동 <sup>1)</sup> .....	95
〈표 3-37〉 지역 구분에 따른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활동 <sup>1)</sup> .....	96
〈표 3-38〉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sup>1)</sup> .....	97
〈표 3-39〉 성별 구분에 따른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sup>1)</sup> .....	97
〈표 3-40〉 연령별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sup>1)</sup> .....	98
〈표 3-41〉 지역별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sup>1)</sup> .....	99
〈표 3-42〉 평생학습(형식·비형식) 참여율 <sup>1)</sup> .....	100
〈표 3-43〉 평생학습(비형식교육) 참여영역 <sup>1)</sup> .....	102
〈표 3-44〉 평생학습(비형식교육) 성과 <sup>1)</sup> .....	105
〈표 3-45〉 고령자의 연도별 자원봉사 인원(수) 현황 <sup>1)</sup> .....	108
〈표 3-46〉 성별·연령별 자원봉사 인원(비율) 현황 <sup>1)</sup> .....	110
〈표 3-47〉 자원봉사활동 참여율(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자료 분석) <sup>1)</sup> .....	111



〈표 3-48〉 자원봉사활동 참여율(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 <sup>1)</sup> .....	111
〈표 3-49〉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 <sup>1)</sup> .....	112
〈표 4-1〉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과제 .....	119
〈표 4-2〉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 .....	121
〈표 4-3〉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	123
〈표 4-4〉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	124
〈표 4-5〉 계속고용 관련 중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 .....	125
〈표 4-6〉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126
〈표 4-7〉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128
〈표 4-8〉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주요 내용 .....	129
〈표 4-9〉 희망리턴패키지 주요 내용 .....	130
〈표 4-10〉 신중년 창업 및 재기 지원 .....	131
〈표 4-11〉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132
〈표 4-12〉 시행계획 모니터링 지표 .....	134
〈표 4-13〉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추진과제별 모니터링 결과(평균) .....	134
〈표 4-14〉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추진과제별 검토의견 .....	137
〈표 4-15〉 경제활동 참여 고령자 대상 FGI 개요 .....	142
〈표 4-16〉 경제활동 참여자 일반 현황 .....	143
〈표 4-17〉 경제활동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156
〈표 4-18〉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 .....	159
〈표 4-19〉 근로 유형 .....	160
〈표 4-20〉 1주당 평균 근무시간 .....	161
〈표 4-21〉 근무시간 유형 .....	162
〈표 4-22〉 4대보험 가입 현황(복수응답) .....	162
〈표 4-23〉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	163
〈표 4-24〉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 (복수응답) .....	164
〈표 4-2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복수응답) .....	165

〈표 4-26〉 구직 과정에서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 .....	166
〈표 4-27〉 직장 내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해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 .....	167
〈표 4-28〉 직장 내 인사정책(발령, 승진, 인사이동 등)에서 연령 차별 경험 .....	168
〈표 4-29〉 고령자 고용정책 유형별 인지율 .....	169
〈표 4-30〉 고령자 고용정책 유형별 이용 의향 보유율 .....	170
〈표 4-31〉 고령자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171
〈표 4-32〉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추진과제별 연도별 성과목표(사업 규모) .....	174
〈표 5-1〉 사회활동 관련 과제 .....	179
〈표 5-2〉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	181
〈표 5-3〉 고령자 교육지원 .....	182
〈표 5-4〉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	182
〈표 5-5〉 고령자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	183
〈표 5-6〉 고령자 여가문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교육, 관광여행 지원 .....	185
〈표 5-7〉 고령자 여가문화 확대: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활용 .....	186
〈표 5-8〉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 추진내용 .....	187
〈표 5-9〉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 .....	187
〈표 5-10〉 고령자 사회활동 관련 추진과제별 모니터링 결과(평균) .....	189
〈표 5-11〉 고령자 사회활동 관련 추진과제별 검토의견 .....	190
〈표 5-12〉 고령자의 사회활동 FGI 조사 개요 .....	192
〈표 5-13〉 사회활동 참여자 일반 현황 .....	193
〈표 5-14〉 사회활동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203
〈표 5-15〉 지난 한 달 동안 사회활동 참여 여부 .....	205
〈표 5-16〉 지난 한 달 동안 사회활동 유형별 참여율 .....	205
〈표 5-17〉 지난 한 달 동안 참여한 사회활동 참여 빈도(문화예술 관람이나 참여) .....	206
〈표 5-18〉 지난 한 달 동안 참여한 사회활동 참여 빈도(스포츠(운동) 관람이나 참여) ..	207
〈표 5-19〉 지난 한 달 동안 참여한 사회활동 참여 빈도(취미오락활동) .....	208
〈표 5-20〉 지난 한 달 동안 참여한 사회활동 참여 빈도(학습/교육활동) .....	209



〈표 5-21〉 지난 한 달 동안 참여한 사회활동 참여 빈도(자원봉사활동) .....	209
〈표 5-22〉 지난 한 달 동안 참여한 사회활동 참여 빈도(친목모임) .....	210
〈표 5-23〉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	211
〈표 5-24〉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 .....	212
〈표 5-25〉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활동 유형(1순위) .....	213
〈표 5-26〉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활동 유형(2순위) .....	213
〈표 5-27〉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활동 유형(1+2순위) .....	214
〈표 5-28〉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 유형 .....	215
〈표 5-29〉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1주당 할애가 가능한 일수 .....	216
〈표 5-30〉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1주당 할애가 가능한 시간 .....	217
〈표 5-31〉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1개월당 지출 가능한 비용 .....	218
〈표 5-32〉 고령자 대상 사회활동 지원정책 유형별 인지율 .....	219
〈표 5-33〉 향후 확대되어야 할 고령자 사회활동 .....	219
〈표 5-34〉 고령자 사회활동 관련 추진과제별 연도별 성과목표(사업 규모) .....	222
〈부록표 1〉 전수학교의 목적, 과정 및 주요 요건 .....	265
〈부록표 2〉 AmeriCorps Seniors 프로그램 개요 .....	275

# 그림 목차

---

[그림 1-1] 연구 흐름도 .....	20
[그림 2-1] 활동적 노화의 영역과 지표 .....	27
[그림 3-1]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2012~2021) .....	62
[그림 3-2] 고령층 고용률(2012~2021) .....	63
[그림 3-3] 고령층 실업률(2012~2021) .....	64
[그림 3-4] 고령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분포 .....	71
[그림 3-5] 연도별 자원봉사 인원 현황 <sup>1)</sup> .....	109
[부록 그림 1] 세대별 자원봉사 참여 현황 .....	272
[부록 그림 2] AmeriCorps 운영체계 .....	273



## Abstract

### **Monitoring of policies and issues on the work and social activities of the aged people**

Project Head: Kang, Eunna

This study aimed to monitor the policies on the work and social activities of the aged people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a super-aged society.

For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aged peopl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ge group of the current employment support policy for those in 50s and 60s to those aged 65 or older. And there should be a plan to solve the employment insecurity of the elderly. Along with them,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ervene in the age discrimination in labour market and actively utilize ICT technology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support supplementary equipment for increasing productivity of the senior workers.

For the social activities of the aged people, policies should be set up for diver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social activities, and accessibility and professionalism of senior education should be secured by expanding the related infrastructures. In order to revitalize volunteer activities for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ducation and training for volunteers and

---

Co-Researchers: Kyoung Duk Choi · Sang-Woo Lee · Yujung Choi · Myung-Il Kim  
· Sunghyun Mun · Sojung Park

## 2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prepare customized leisure program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Keyword:** The older adults, Labour force participation, Social activities, The basic plan of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Monitoring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길어진 노년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 및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변화 양상을 토대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개선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였다.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추이와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이차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진단하고,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현황,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일반 고령자의 인식, 그리고 정책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2. 주요 연구 결과

먼저, 경제활동과 관련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 4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라 고령자의 경제활동 특성으로 지난 10년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이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용근로자 비율은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직종은 전문가/사무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로 이원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의 고령자 경제활동 정책을 보면, 60세 이후까지 계속 지원과 재취업·창업지원이 중심이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 수준이 낮고, 재취업이나 창업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며, 고령자에 특화된 경제활동 지원정책이 미흡한 것 등의 한계가 발견되었다. 셋째, 고령 근로자들은 근로시장에서 연령차별을 경험하고 있지만, 생계 유지, 사회참여 지속, 생활의 활력 유지를 위해 70세까지는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직업교육 확대,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확대, 재취업 지원, 정년제도 안착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사회활동과 관련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55~79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20년 기준으로 32.0%였으며, 자원봉사 참여율도 2020년 기준 8.4%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령자의 여가활동은 여전히 취미·오락과 휴식 중심이지만, 50세 이상 고령자의 약 73%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상의 고령자 사회활동 정책은 기존에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인구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욕구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세부 내용도 지엽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령자 대상 초점집단인터뷰와 전화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활동 참여 영역에 따라 참여 현황과 정책적 개선 요구가 상이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만

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여가활동의 다양성과 인프라 확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심리정서적 소진에 대한 개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회활동 영역으로는 자원봉사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 활동 등이 제시되었다.

### 3. 결론 및 시사점

고령자 경제활동 정책 과제로 다음의 것들을 제안한다. 현재 50대와 60대 중심의 고용 지원정책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고령자의 건강 상태와 근로 선호를 반영한 다차원적인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고용상의 연령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물리적 작업환경 개선과 보조장비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자 사회활동과 관련해서는 사회활동 정책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심의 노인교육에서 탈피하여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노인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학과 연계하여 노인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활동에 대해 일정 부분 활동비(교통비)를 지급하는 등의 정책적 투자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고령자 여가정책은 연령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은 물론 세대 통합적 여가 정책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정책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 6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고령자의 고용, 여가, 교육 등의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의 구축과 모니터링 지표를 주기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주요 용어: 고령자, 경제활동, 사회활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모니터링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인구 고령화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의 평균 수명의 증가, 즉 삶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으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평균 수명 60세를 넘겼으며, 2010년에는 80세에 도달하면서(통계청, 2022b) 이제는 100세 시대에 서 12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길어진 삶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 중의 하나는 노년기 이전의 삶의 방식과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거나 아예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일, 여가, 학습, 봉사 등을 각자의 욕구에 맞게 설계하여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영위하는 것이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변화,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해 고령층의 근로활동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전문성을 가진 고령인구 증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고자 하는 고령자도 있지만, 여가나 학습, 봉사 같은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도 적지 않으며, 특히 80세 이후의 후기 노년기의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지원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변화 및 늘어나는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5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수립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출생아 수의 감소와 고령화 진전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인구사회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을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더라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은퇴한 이후에는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0, p. 146). 즉, 경제활동 관련 과제는 신중년 중심의 주된 일자리에서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퇴직하더라도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노동시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활동 관련 과제는 신중년의 노후준비서비스 강화와 여가 기회 확대, 성인문해교육 확대와 디지털 역량 향상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자리 정책에 비해 정책과제의 비중도 낮고 이미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정책의 연장선에 그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추진과제별 추진 실적이나 목표 달성도 중심의 자료가 모니터링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계획했던 5년간의 추진 실적이 매년 달성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과제별 실적 관리 차원의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이 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새로운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과제를 진단하였다. 이러한 실태 파악과 정책 진단을 토대로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과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 2. 고령자 정의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며, 정책이나 학계에서는 노인, 중고령자 등의 용어와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통상 만 65세 이상 연령층을 노인으로 간주하나, 일부 노인보건복지사업(노인일자리사업의 시장형 사업단, 치매검진,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등)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준고령자·고령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의한 법률」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의한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만 50세 이상 55세 미만을 준고령자,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학술논문에서 고령자의 범위를 보면, 경제활동 관련 문헌에서는 노인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고령자는 55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혼재해 사용되고 있다. 사회활동 관련 문헌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높지만, 중고령자나 고령자의 연령 범위가 45세 이상, 55세 이상, 60세 이상으로 매우 광범위한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조사에서 고령자의 범위를 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고령자’를 만 55~79세 집단으로 정의하고, 고령화연구패널조사(KIlosa)에서는 만 45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간주한다.

전반적으로 노인, 고령자, 중고령자의 연령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정책 영역이나 학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인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고령자 또는 고령자의 경우 45세 이상, 50세 이상, 55세 이상으로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고령층의 상한 연령을 79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연령 범위를 「고령자고용법」상의 고령자 연령 범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경제활동 관련 정책 대상, 은퇴 연령<sup>1)</sup>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50세 이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에 제한된 연구라면 연령의 상한선(75세, 79세, 85세 등)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사회활동도 연구 범위에 포함되고 80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도 낮지 않아<sup>2)</sup> 상한 연령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개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에 따라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차 계획(2006~2010), 제2차 계획(2011~2015), 제3차 계획(2016~2020)을 거쳐 현재 제4차 계획(2021~2025)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우

1) 가계금융복지조사(2021년 3월)에서 나타난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62.9세(수입이 있는 직업에서의 은퇴를 의미하며, 구직 중이거나 취·창업 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이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령층 부가조사(통계청, 2022.07.26., p. 9)에서는 가장 오래 근무한 일 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 49.3세(남자 51.2세, 여자 47.6세)임.

2) 2020년 노인실태조사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36.9%이며, 80~84세 19.1%, 85세 이상 10.6%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리나라는 여전히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이고, 2025년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3.9%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구성될 전망이다(통계청, 2021b). 또한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수준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2021년 23.1명, 2022년 24.6명, 2025년 29.7명, 2060년에는 90.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2a).

2006년을 시작으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 중 고령화 대책에 포함된 고용지원 및 사회참여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화 대책에서의 경제활동지원 또는 고용지원 정책을 보면, 제1차 계획(2006~2010)의 주요 내용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맞추어져 있다. 예컨대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도입(2008년), 노후 건강보장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2008년) 등의 제도를 들 수 있으며, 고령자 대상의 고용지원에 관한 과제는 제시되지 않았다. 제2차 기본계획(2011~2015)은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에 대비하여 정책 대상을 노년층에서 베이비붐 세대까지로 확대하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법 개정(60세 이상 정년제) 등이 추진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의 고용 지원정책 대상은 베이비붐 세대에서 중고령자 전반으로 변경되었으나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정년제 확대와 중고령자의 재취업이나 창업지원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제2차 기본계획과 유사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마련하고,

#### 14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 또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이나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상과 영역을 넓힌 것을 볼 수 있다. 제2차에서 제4차까지의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 정책은 주로 노년기 진입 전 50~60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연장(정년제 정착)과 재취업·창업 지원이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활동과 관련한 과제를 보면, 제1차~제4차 고령화 대책에서는 노인 또는 고령자의 여가활동, 자원봉사, 교육, 그리고 노후준비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들이 공통적으로 제안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정책 대상을 '노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제2차 기본계획부터는 '노인'이 아닌 '고령자' 그리고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신중년'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였다.

〈표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자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추진과제

구분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	제4차(2021~2025)
경제활동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 고용연장</li> <li>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li> <li>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li> <li>중고령인력 전문성 활용</li> <li>고령자 연령차별금지제도 정착</li> </ul>	(중고령자 근로 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 집중지원(인근피크제 확산)</li> <li>정년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검토</li> <li>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li> <li>중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li> <li>중고령자-창업지원체계 강화</li> <li>고령 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li> <li>은퇴자 직무경험 활용제도 활성화</li> </ul>	제4차(2021~2025) (신증년의 품격 있고 활기찬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li> <li>퇴직 후 고용 및 창업기회 확산</li> </ul>
사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반 조성</li> <li>노인의 여가문화 활성화</li> <li>노후생활설계 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li> <li>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li> <li>(베이비붐 세대)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 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li> <li>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li> <li>고령자 자원봉사 지원 체계 강화</li> <li>고령자 교육기반 확충</li> <li>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li> <li>노후준비지원 확대</li> </ul>	(신증년의 품격 있고 활기찬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li> <li>노후준비서비스 강화</li> <li>신증년 및 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li> <li>(평생교육·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li> <li>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격차 해소</li> <li>노인교육 강화</li> </ul>

자료: 1)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pp. 141~195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2)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pp. 96~144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3)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pp. 105~178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4) 대한민국정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pp. 90~94, pp. 145~154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관련 문헌검토, 국내외 정책 사례 검토,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현황 분석, 그리고 개선방안 도출로 구성된다.

첫째, 활동적 노화와 연령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론적 틀을 고찰하였으며,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관련한 학술지나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적 또는 실천적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국내외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제1차~제4차) 및 시행계획(2021년)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사례로 고령자 고용 지원정책은 일본과 미국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사회활동은 일본의 생애학습과 미국의 고령자 자원봉사 관련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았다.<sup>3)</sup>

셋째, 우리나라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의 참여율과 내용, 특성 등을 파악하고, 현재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일과 사회활동의 장애 요인과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현황과 해결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양적 자료 분석과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양적 자료분석은 기존에 공표된 이차자료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화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는 50대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자와

3)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과 과제'라는 기획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총 6개 보고서로 구성됨. 다른 5개 보고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사례는 부록에 수록함.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의 내실화와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고령자 일과 사회활동 정책의 개선방안과 고령자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언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검토, 이차자료 분석, 설문조사, 초점집단인터뷰,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국내외 문헌 및 행정자료를 검토하였다. 고령자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 또는 평가 관련 학술지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영역의 현황과 특성,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해외 선진국의 고령자 대상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문헌과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공표된 이차자료를 분석하였다. 고령자의 일과 관련해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경제활동인구 고령자 부가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여가활동조사,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1365자원봉사포털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셋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21년 정부 부처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차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21년 정부 부처 시행계획에 포함된 고령자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내용은 ①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② 추진내용의 적정성, ③ 추진일정의 적절성, ④ 성과지표의 적절성, ⑤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의 다섯 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고령자 또는 노년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학계 전문가 9명, 그리고 사회활동과 관련한 학계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각 활동의 참여 현황, 연령차별이나 참여 제약사항, 정책적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경제활동 참여집단 세 집단(집단별 4명, 총 12명)과 사회활동 참여집단 세 집단(집단별 4명, 총 12명), 총 여섯 개 집단, 24명이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하였으며, 초점집단인터뷰는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하였다.

〈표 1-2〉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FGI 진행 개요

구분	구분	인원	실시 일시	
경제 활동	A	50대 대기업 종사자 등	4명	2022. 9. 6. (화) 19시
	B	50대 경제활동 참여자	4명	2022. 9. 1. (목) 14시
	C	60대 이상 경제활동 참여자	4명	2022. 9. 1. (목) 19시
사회 활동	D	성인문해교육 참여자	4명	2022. 9. 5. (월) 13시
	E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4명	2022. 9. 6. (화) 13시
	F	자원봉사 참여자	4명	2022. 9. 6. (화) 16시

다섯째, 고령자 전화조사는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경제활동 전화조사는 50~69세 고령자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기준 경제활동인

구통계를 활용하여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기준 비례할당법을 통해 총 400명을 추출하였다. 조사 내용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 현황, 경제활동 참여과정에서의 차별 경험,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사회활동 전화조사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지 않는 만 60~79세 고령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2년 8월 말 기준 주민등록통계를 활용하여 모집단으로 하여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기준 비례할당법을 통해 총 400명을 추출하였다. 본 조사에서의 사회활동은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닌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사회활동에서는 사회활동 참여 여부,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 현황, 향후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영역,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정책 인지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화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4일간)이었다.

〈표 1-3〉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전화조사 개요

구분	경제활동 전화조사	사회활동 전화조사
조사 대상	• 50~69세 경제활동 참여자	• 60~79세 사회활동 참여·미참여자
조사 규모	•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고령자 총 400명	• 사회활동 참여·미참여 고령자 총 400명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활동 일반 현황</li> <li>• 차별 경험</li> <li>• 고령자 고용정책 인지도</li> <li>• 일반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활동 참여 현황</li> <li>•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li> <li>•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자원 활용 정도(시간, 비용 등)</li> <li>• 사회활동 영역별 정책 수요</li> <li>• 고령자 사회활동정책 인지도</li> <li>• 일반사항</li> </ul>
조사 기간	• 2022년 10월 11일 ~ 10월 14일	

마지막으로 연구 전 과정에 있어 전문가 자문회의(대면 및 영상회의 병

20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행)를 통해 연구의 방향성과 범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영역별 정책 동향과 정책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국내외 문헌검토	학술논문 및 정책 보고서 검토
국내외 정책현황	(국내) 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검토
	(국외) 경제활동: 일본, 미국 사회활동: 일본의 생애학습, 미국의 고령자 자원봉사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현황 분석	(이차자료 분석) • 경제활동: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사회활동: 평생교육, 자원봉사 등 행정자료 및 실태조사 자료
	(초점집단인터뷰) • 경제활동: 연령대 및 고용 안정성에 따른 3개 집단 • 사회활동: 사회활동 유형별 3개 집단
	(전화조사) • 경제활동: 50~69세 경제활동 참여자 400명 - 근로 현황, 차별 경험, 정책 인지도 등 • 사회활동: 60~79세 고령자 400명 - 사회활동 참여 현황, 향후 참여 의향, 정책 인지도 등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의 경제활동 정책의 개선방안</li> <li>• 고령자의 사회활동 정책의 개선방안</li> <li>• 정책 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li> </ul>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2장

## 문헌 검토

제1절 이론적 근거

제2절 고령자의 경제활동

제3절 고령자의 사회활동

제4절 모니터링 개념과 연구 동향



## 제 2 장 문헌 검토

### 제1절 이론적 근거

#### 1. 활동적 노화

2002년에 UN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 정책적으로 고령화에 대응해야 할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for Action on Ageing, 이하 MIPAA)’을 발표하였다.<sup>4)</sup> 이 국제행동계획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노인에서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노인으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노인인권 증진, 빈곤 해소,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 보건의료 및 사회적 보호 제공 등을 핵심 주제로 제시하였다.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이 발표된 같은 해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패러다임을 발표하였으며, 이 패러다임은 EU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고령사회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되었다. WHO는 활동적 노화를 “나이 들어감에 따라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전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WHO, 2002, p. 12). 그리고 활동적 노화의 핵심 요소로 건강, 참여, 안전을 제시하였다. ‘건강(health)’은 건강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화하여 가

4) MIPAA에 관한 내용은 정경희 외(2012, pp. 14~24)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함.

능한 한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participation)’는 활동적인 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유급이나 무급 활동을 포함하여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교육, 건강과 사회문화정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안전(security)’은 고령자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WHO, 2002). 특히, 참여 영역에서는 ① 인생 단계에 따른 교육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② 개별적인 욕구와 선호, 그리고 역량에 따라 직업개발, 공식 및 비공식 일과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강화하고, ③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역사회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WHO, 2002, pp. 51~52).

유럽연합(European Unions, EU)은 WHO가 활동적 노화 패러다임을 발표한 지 10년이 지난 2012년을 ‘유럽의 활동적 노화 및 세대 간 연대의 해(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이하 EY2012)’로 정하고, 핵심 원칙으로 고용, 지역사회 참여, 자립생활, 세대 간 협력과 연대를 제시하였다(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2, p. 4). 고용을 통한 세대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령자의 취업을 증진시키고, 일-생활 균형 정책을 강화하고, 연령 차별과 다차원적인 차별에 대응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2, pp. 8~10).

〈표 2-1〉 활동적 노화 관련 정책 영역

정책 영역	Active Ageing(WHO)	EY2012-Active Ageing(EU)
소득보장		- 소득보장
경제활동	- 개인의 욕구 및 선호, 역량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 건강한 근로조건 - 조기퇴직 예방 - 고령 근로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 연령차별 방지 - 고령친화적인 세금혜택 - 고령 근로자들의 멘토링 - 근로와 돌봄의 조화
건강보장	- 장애, 만성질환 및 조기 사망의 위험 방지 - 삶의 과정 전반에서의 건강보호 요인 증가 및 주요 질환 관련 위험요인 감소	-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돌봄보장	- 장기요양서비스 - 노화에 따른 요구와 권리를 위해 안정적인 접근성이 높고, 양질의 연령친화적인 연속적 건강 및 사회서비스 개발 - 돌봄인력 교육	- 비공식 보호자들을 위한 지원 - 장기요양대상자의 존엄성 보장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 노인 자원봉사
교육	- 지속적인 직업 교육과 훈련	- 지속적인 직업 교육과 훈련 - 평생학습
주거보장		- 고령친화 주택과 서비스
고령친화적 지역환경		- 접근 가능하고 가격이 적절한 교통
노인인권/학대/존중/노인이미지(경로우대)	- 가족 및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 참여 - 노인의 사회적, 재정적, 물리적 보완 욕구 해결을 통한 노인 보호 및 안전, 존엄성 보장 - 안전에 대한 욕구 충족	- 사회적 통합 - 의사결정에의 참여
기타		- 연령친화적 환경, 상품, 서비스

자료: 1) WHO. (2002). Active ageing - A policy framework. A contrib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o the Second United Nations World Assembly on Ageing. Madrid, Spain, April 2002.

2)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2). Council Declaration on the 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3) 이윤경 외. (2019). 노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9~52의 〈표2-4〉의 내용을 수정함.

이와 함께 EY2012 추진을 견고히 하기 위해 유럽 국가별 활동적 노화 정책의 성과와 사회적 기반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다(Zaidi et al., 2013). 활동적 노화 지표(Active Ageing Index, AAI)에서는 활동적 노화를 나이가 들어가도 공식적인 노동시장과 다른 무급의 생산적인 활동(가족돌봄이나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상태로 정의하였다(Zaidi et al., 2013, p. 6). 그리고 WHO의 활동적 노화를 개념틀로 하여 국가별 고용, 사회참여, 독립적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활동적 노화를 위한 역량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활동적 노화 지표(AAI)는 고용, 사회참여, 독립적인 생활, 활동적 노화 역량의 4개 영역과 22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인구 특성에 따라 성별과 연령대를 구분하여 측정한다. AAI의 모든 지표는 각각 0과 100 사이의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며, 지표별로 계산된 지표 값은 영역별 가중치<sup>5)</sup>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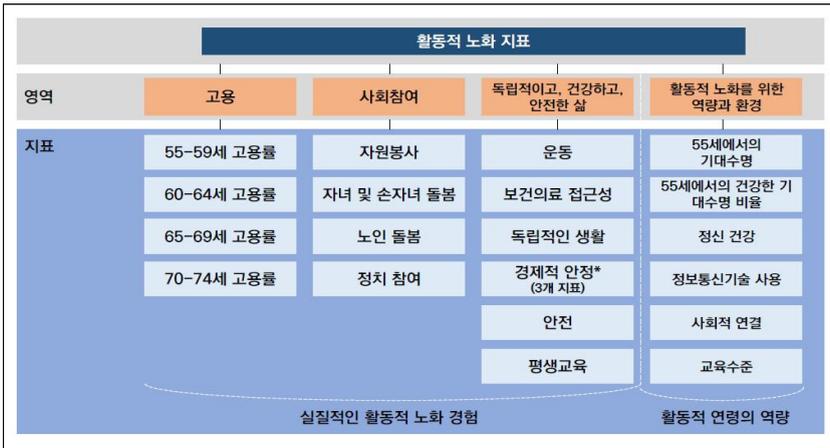
활동적 노화 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고용의 주된 지표는 고용률로, 55세 이상부터 74세까지 5세 단위로 연령대별 고용률을 측정한다. '사회참여'는 무급으로 기관에 속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55세 이상 인구 비율, '자녀 및 손자녀 돌봄'은 주 1회 이상 자녀나 손자녀를 돌보는 55세 이상 인구 비율, '노인돌봄'은 적어도 주 1회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친척을 돌보는 55세 인구 비율, 그리고 '정치 참여'는 노조, 정당, 또는 정치활동 단체에서 활동하는 55세 이상 인구 비율로 측정한다.

활동적 노화 지표는 전반적으로 활동적 노화의 정책 대상을 55세 이상 고령자로 정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다룬다. 그러나 사회참여 영역의 세부 지표를 보면, 자녀나 손자녀, 노

5) 고용 35%, 사회참여 35%, 독립적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 10%, 활동적 노화를 위한 역량과 환경 20%(Zaidi et al. 2013, pp. 16~17).

인이나 장애인 돌봄을 사회참여의 주요 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1] 활동적 노화의 영역과 지표



주: 경제적 안정 영역은 세 가지 지표로 구분함: 1) 65세 이하 대비 65세 이상 상대적 중위소득, 2) 노인빈곤 위험성, 3) 물질적 결핍(각 세부 지표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의 내용 참고)

자료: Zaidi et al. (2013). Active Ageing Index 2012: Concept, Methodology and Final Results. European Centre Vienna. p. 8의 [그림 1.1]을 재구성함.

<표 2-2> 활동적 노화 지표별 조작적 정의

구분	내용
1) 고용	1.1 55~59세 고용률(2010년 EU-LFS)
	1.2 60~64세 고용률(2010년 EU-LFS)
	1.1 65~69세 고용률(2010년 EU-LFS)
	1.1 70~74세 고용률(2010년 EU-LFS)
2) 사회참여	2.1 자원봉사: 무급으로 기관에서 자원봉사하는 55세 이상 인구 비율(2011년 EQLS)
	2.2 자녀 및 손자녀 돌봄: 자녀, 손자녀를 돌보는 55세 이상 인구 비율 (적어도 1주일 한 번)(2011년 EQLS)
	2.3 노인 돌봄: 노인 또는 장애인 친척을 돌보는 55세 이상 인구 비율 (적어도 1주일 한 번)(2011년 EQLS)
	2.4 정치 참여: 노조, 정당 또는 정치활동 단체에서 활동하는 55세 이상 인구 비율(2011년 EQLS)

28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구분	내용
3) 독립적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	3.1 운동: 1주일에 적어도 5회 신체 활동과 스포츠를 하는 55세 이상 인구 비율(2010년 Eurobarometer 특별판 334)
	3.2 보건의료 접근성: 보건의료, 치아 관리 수요가 충족된 55세 이상 인구 비율(2010년 SILC)
	3.3 독립적인 생활: 단독 혹은 부부가구로 살아가는 75세 이상 인구 비율(2010년 SILC)
	3.4 상대적 중위소득: 65세 이하 균등화된 중위 가처분소득 대비 65세 이상 균등화된 중위가처분소득 비율(2010년 SILC)
	3.5 노인의 빈곤 위험성이 없음: 빈곤 가구 기준(균등화된 전국민 중위 가처분 소득의 50%에 해당)을 활용했을 때 빈곤 위험이 없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2010년 SILC)
	3.6 노인의 물질적 결핍이 없음: 심각한 물질 결핍을 겪지 않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2010년 SILC)
	3.7 안전: 폭력범죄의 희생자가 될 우려가 없는 55세 이상 인구 비율(2010년 ESS)
	3.8 평생교육: 지난 4주간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55~74세 고령인구 비율(2011년 EU-LFS)
4) 활동적 노화를 위한 역량과 환경	4.1 55세일 때 기대수명이 50년인 인구 비율(EHLEIS 활용)
	4.2 55세인 사람이 남은 기대수명 동안 건강하게 생활할 비율(EHLEIS 활용)
	4.3 정신 건강 만족도(55세 이상 고령인구 대상 2011년 EQLS와, WHO의 ICD 10개 척도 활용)
	4.4 55~74세 고령인구 중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비율
	4.5 친구, 친척, 동료들을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만나는 5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2010년 ESS, 2008년 LV와 RO, 2006년 AT, 2004년 LU, 2002년 IT)
	4.6 고등교육 또는 그 이상의 학력 수준을 지닌 55~74세 고령인구 비율(2010년 EU-LFS)

자료: Zaidi et al. (2013). Active Ageing Index 2012: Concept, Methodology and Final Results. European Centre Vienna. p. 13의 Box 3을 재구성함.

## 2. 연령통합적 관점

고령화 사회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자는 연령을 이유로 경제활동, 여가 등 전반적인 사회활동의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고령자의 활동 비율이 증가하면서 정년제 같은 기존의 정책들을 연령분절적,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명식, 2020). 연령에 따른 기회 제한은 고령자를 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시킬 가능성을 높이게 한다. 사회에서 고령자를 지속적으로 배척하는 현상은 고령자와 다른 연령집단과의 상호교류를 느슨하게 만들어 연령차별 문화를 고착화할 우려도 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현 상황에서 연령차별 현상은 고령자 개인 삶의 영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게 한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 문제를 해소할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연령통합 개념이 등장했다. 최혜지, 박정화, 권미리, 정순돌(2015)의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연령통합적 관점이 집단별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연령통합적 관점은 고령친화적인 환경조성과 노인의 사회적 기여 증대 같은 물리적인 일상 변화를, 전문가의 경우 사회적 연대 증가와 세대 간 이해증진 등 세대 간 관계에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집단 간 인식 차이는 있지만, 연령통합적 접근 방식은 고령사회로 야기되는 세대 갈등이나 연령차별적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 가. 연령차별주의

연령통합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연령차별주의를 알아야 한다. 연령차별주의는 1969년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한 Robert Bulter에 의해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연령을 이유로 특정 연령집단을 배제하는 경향을 뜻한다(김명식, 2020).

특정 연령집단을 배제하는 근거는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한다. 고령자에 대한 주된 편견으로는 “의존적”, “나약함”, “도움이 필요한 존재” 등이 있다. 고령자 특성에 관한 이러한 편견은 고령층을 위한 정책 도입과 확대를 촉진할 수 있지만(Angus & Reeve, 2006), 정당한 사유 없이 오로지 연령으로만 차별하는 것은 노인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evy, Slade & Kasl, 2002.; Levy & Banaji, 2002; 김주현, 오혜인, 주경희, 2020).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무의식적으로 노인 개인의 인식, 행동,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노화를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노인일수록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노인보다 자신의 신체 건강을 낮게 평가하였다(Levy, Slade & Kasl, 2002). 또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연령 고정관념과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젊었을 때 연령과 관련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내재화될수록 향후 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vy, Zonderman, Slade & Ferrucci, 2009).

고정관념을 근간으로 하는 연령차별주의는 신체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서 노인을 배제하는 현상을 야기한다. Rosales & Fernández-Ardévol(2020)은 동질적인 특성(연령, 교육수준 등)을 갖춘 인력 위주로 개발자를 구성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구축 시 어떻게 연령차별주의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는지, 실제 디지털 플랫폼을

구현하는 알고리즘과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차별적인 방법이 은연중에 내재되는지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개발팀을 구성할 때 평균 이상의 소득을 받는 젊은 남성들 위주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 개발자들은 자신의 사고와 기준(관심사, 관행, 편견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플랫폼을 설계하기 때문에 그들과 상이한 노인 집단의 경험을 개발 내용에 적절하게 포함시키기 어렵다(Grossetti, 2007, p. 399). 둘째, 노인처럼 주류 집단과 다르게 행동하는 집단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매체를 통해 모집한 표본들은 디지털 매체 활용 경험이 많지 않고, 경험의 폭이 좁은 노인 같은 사용자 집단을 배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알고리즘의 결과값이 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시되는 것은 아니어서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복잡한 체계를 종종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설계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을 사용자의 관심사보다 우선시할 수 있고(Pasquale, 2015; Rosales & Fernández-Ardévol, 2020; 재인용),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은 디지털 기술 활용이 쉽지 않은 노인 집단의 관심사를 후순위로 고려하여 연령차별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 구조는 노년층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그 결과 노인은 디지털 플랫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궁극적으로 노인들은 디지털 기술영역에서 점차 제외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연령차별주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 생겨난 기술적 혜택에서 노인을 배제시키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대 통합의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정순돌, 정주희, 김미리(2016)는 세대 갈등에 초점을 두어 연령차별주의는 노인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세대별로 연령주의·연령통합에 대한 인식 차이와 세대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모든 세대에서 연령차별을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할수록 세대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도 세대 갈등 해소 전략으로 각 세대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국가 차원의 세대 통합적 교육을 제시하였다.

## 나. 연령통합

연령통합은 기존의 연령분절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연령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구조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연령분절적 사회에서는 청소년은 교육, 청·장년층은 노동, 노년층은 여가를 하는 것으로 각 생애주기별로 핵심 과제 또는 역할을 규정지었다. 연령대마다 역할의 한계를 두어 규정짓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고, 특정 연령대를 소외시키는 문제를 유발한다(Riley & Riley, 2000). 연령분절적 접근에 대하여 연령에 구속받지 않고, 개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과 관계없이 상호작용하며 생활할 수 있는 상태인 연령통합 개념이 등장하였다(Riley & Riley, 2000; 정순돌, 김종희, 김미리, 이하진, 김지연, 이수지, 2021).

연령통합은 연령유연성(age flexibility)과 연령다양성(age heterogeneity)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연령유연성은 모든 사람들이 연령 구분 없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고, 제도 영향권 안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음을 의미한다. 연령다양성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상호교류하며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뜻한다.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은 의미가 다소 상이하지만 상호의존적이다. 예를 들어 고령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노인이 교육에 참여한다면 연령 간 접촉 기회가 증가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년층과 청년층이 직장과 교육체계 내에

서 자주 접촉할 수 있다면 연령 장벽을 허물고 전 연령대의 유연한 사회 참여가 가능해진다(Riley & Riley, 2000; 정순돌 외, 2021).

모든 연령대의 자유로운 사회참여와 활동을 추구하는 연령통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순돌, 이미우(2012)는 법적 차원에 초점을 맞춰 미국, 네덜란드 그리고 한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비교하고, 한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행 배경, 법적 정의, 적용대상, 예외 규정을 기준으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연령차별과 괴롭힘(harassment) 개념을 포함할 수 있는 연령차별 개념 범위의 확대, 연금 수급연령을 고려한 점진적인 정년 명시 폐지, 예외규정 관련 세부적인 내용 첨가<sup>6)</sup>를 제안하였다.

법적 차원의 대안 모색과 함께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동선, 모선희(2012)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의 고령 근로자를 향한 차별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양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채용, 임금, 교육, 승진 등에서 공식적인 차별이 만연할수록,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고령 근로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심사위원회의 판정 사례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김동선, 모선희, 2011), 이는 결국 연령차별적 시각이 고령자의 고용을 제한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들은 고령 근로자 고용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과 동시에 고령자를 향한 획일화된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고용 현장에서 노화와 관련한 인식 개선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6) 연령차별 금지법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제1항의 경우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직업군을 예시로 제시할 것을 제안함. 동조 제2항인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도 합리적인 차등이 어떤 것인지 정의와 예시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이와 함께 예외조항과 관련한 한계들도 추가할 것을 제시함.

또한 노인 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고령사회에서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명목에서 노인 고용 지원정책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임금피크제의 노동시장 연령통합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임금피크제는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체는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임금피크제가 노동시장 내 연령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최혜지, 전혜상, 유영림, 정순돌, 2016). 취업 노인들이 경험하는 연령차별이 일자리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을 검증한 이선영, 김범중(2020)은 고용에서 연령차별에 대한 노인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이나 정책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임금피크제가 또 다른 연령차별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성과급이 반영된 임금체계 개편이나 고령적합직무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혜지(2021)는 연령통합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핵심 정책 개선방안과 환경과 관련한 안전을 제안하였다. 먼저, 노인의 노후보장 차원에서 정년 후 연금수급개시 연령 때까지 고령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계속 고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공급 기반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역량을 지원하고 개발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의 전 생애 학습지원 및 이력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책 개선 및 발굴과 함께 고령 근로자와 관련한 인식 개선, 고령자의 고용질 관리체계 마련, 비정규직 일자리와 관련한 안전망 구축,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연령통합적 관점을 토대로 사회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정순돌 외(2021)는 연령통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를 근거로 교

육, 고용, 복지, 그리고 여가 및 문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규범적, 자원적, 환경적 차원, 법과 제도 차원,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대응할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표 2-3〉 영역·차원별 연령통합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구분	내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범적 차원: 연령규범 탈피</li> <li>• 자원적 차원: 인적자원 확보</li> <li>• 환경적 차원: 고령친화 대학 조성</li> <li>• 법·제도적 차원: 정규교육 내 연령장벽 철폐, 다양한 비정규교육 실시</li> <li>• 문화적 차원: 연령다양성 수용, 디지털 디바이스 해소</li> </ul>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범적 차원: 연령규범 탈피</li> <li>• 자원적 차원: 인적자원 확보, 시니어인턴십 기회 제공</li> <li>• 환경적 차원: 고령친화적 작업장 확보</li> <li>• 법·제도적 차원: 노동시장 내 연령장벽 철폐,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li> <li>• 문화적 차원: 연공서열 문화 탈피, 연령다양성 수용, 리버스멘토링 문화 확산, 세대 간 존중과 이해 문화 확산</li> </ul>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범적 차원: 연령규범 탈피</li> <li>• 자원적 차원: 인적자원 확보</li> <li>• 환경적 차원: 고령친화적 병원 환경 조성</li> <li>• 법·제도적 차원: 서비스 수혜대상 기준 재설계, 세대 간 복지 혜택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 돌봄서비스의 사회화</li> <li>• 문화적 차원: 세대 간 공정 문화 확산</li> </ul>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범적 차원: 연령규범 탈피</li> <li>• 자원적 차원: 인적자원 확보</li> <li>• 환경적 차원: 대중 장소에서 연령다양성 증진, 경로당과 어린이집 통합</li> <li>• 법·제도적 차원: 서로 다른 연령집단 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li> <li>• 문화적 차원: 차별 문화 개선, 연령다양성 수용, 고령친화적 디지털 환경 조성</li> </ul>

자료: 정순돌 외. (2021).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준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p. 213~217의 〈표 5-1〉을 재구성함.

〈표 2-4〉 연령통합 구성요소별 연령통합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구분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구조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기회 제공</li> <li>• 정규교육에서 세대 이해 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과 노인 세대 소통의 장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연대 강화교육</li> <li>•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li> </ul>

구분	연령유연성	연령다양성	연령형평성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 기회를 보장하는 노동시장 재구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인턴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간 일자리 형평성 지표 개발</li> </ul>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서비스 수혜 기회를 보장하는 복지제도 재구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통합적 주거단지 설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연령 양질의 주거 제공</li> </ul>
여가·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통합적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통합적 자원봉사 활동 기회 제공</li> <li>• 매체를 통한 연령통합적 사회 모습 부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문화 세대 영향 평가 실시</li> </ul>

자료: 정순술 외. (2021).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준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 229의 <표 5.2>를 재구성함.

## 제2절 고령자의 경제활동

### 1. 고령자의 경제활동 특성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를 활용해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국내 연구들에 따르면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건강, 비근로소득, 성별, 자녀 수, 학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내 연구에서 고령자들의 건강상태와 경제활동 참여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5차 자료를 활용해 고령자의 건강이 본인과 배우자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함선유(2016)는 본인의 건강상태 악화는 본인의 노동공급 중단을 유발하며, 배우자의 건강상태 악화 또한 여성 고령자들의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지적하였다. 또한, 50~64세 중고령자의 건강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3~4차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이은경

(2014)에 따르면 본인의 건강상태를 평균 이상(좋음, 매우 좋음)이라고 느끼는 중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그렇지 않은 중고령자들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효과는 신체활동이 많아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블루칼라에게서 두드러졌다. 이 외 여러 연구에서도 고령자의 건강상태와 경제활동 참여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송일호, 박명호, 2012; 오지은, 송일호, 2013; 강순희, 2016; 김철주, 2016; 최희정, 2018; Dingemans, Henkens & Van Solinge, 2017; Majeed, Forder & Byles, 2017; Axelrad, 2018; Lee & Yeung, 2021). 한편, 주관적 건강상태는 고령자들의 현재 근로 여부뿐만 아니라 향후 근로 지속 의향과도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나, 김혜진, 김영선, 2012).

건강상태 외에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근로 소득을 들 수 있다. 송일호, 박명호(2012)는 로짓(logit) 분석을 수행하여 연금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연금소득이 있는 고령자들에 비해 취업상태일 확률이 높음을 밝혀냈으며, 김철주(2016)는 비근로소득이 클수록 고령자들의 근로 확률이 하락함을, 오지은, 송일호(2013)는 특수직역연금 수령과 취업상태 간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고령자들의 근로에 대한 유인을 하락시킴을 의미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는 성별, 자녀 수, 연령, 학력 등이 있다. 성별과 자녀 수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일관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경제활동 참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훈, 박용현, 2010; 강은나 외, 2012; 김수완, 2012; 송일호, 박명호, 2012; 오지은, 송일호, 2013; 손영희, 최균, 2014; 김철주, 2016; 최희정, 2018). 학력의 영향은 연구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며, 김수완(2012), 손영희, 최균(2014)은 학력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간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오지은, 송일호(2013), 최희정(2018)은 학력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간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경제활동의 직접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의 증가 외에도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 연구들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우울감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 자료를 활용해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형태가 고령자들의 건강수준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강이주, 이영애(2010)는 과거와 현재에 뚜렷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무직자와 비교하여 유급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고령자의 근로 여부와 삶의 만족도 간 관련성은 고령자의 특성 또는 일자리 특성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보람, 이정규(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60~79세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자체는 고령자들의 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경제적 필요성 두 변수의 교차항의 계수 추정치는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생활 만족도가 개선됨을 의미한다. 권혁창, 홍다영(2021)에 따르면 근로 여부와 삶의 만족도 간 양의 관계가 중소도시와 농어촌 거주 고령자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도시 거주 고령자들에게서는 나타났는데, 이는 대도시의 근로환경과 생활환경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비하여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김미혜, 권용희(2013)는 근로소득과 직무만족도가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

가 개선됨을 발견하였다.

한편, 은퇴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은퇴와 생활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도 존재하는데,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7차 자료를 활용한 이상욱, 이정화(2021)에 따르면 비자발적인 은퇴에 비하여 자발적인 은퇴의 경우 은퇴자들의 은퇴 후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우울감과도 연관이 있는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고령자와 비교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들의 우울감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노년기 경제활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고령자들에게서 이러한 우울감 개선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지나, 2019). 경제활동 참여가 우울감에 미치는 효과는 근로 강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정연, 김수정(2021)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령자들의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해외 연구들에서도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혹은 은퇴)가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 Bonsang, Adam & Perelman(2012)은 은퇴가 고령자들의 인지기능 저하를 야기함을 지적하였으며, 아일랜드의 사례를 살펴본 Mosca & Barrett(2016)은 은퇴가 고령자들의 우울감을 악화시키며 특히 비자발적인 은퇴, 건강악화로 인한 은퇴의 경우에 우울감 악화가 두드러짐을 지적하였다. 또한, 독일의 남성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은퇴와 여러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Bonsang & Klein(2012)에 따르면 비자발적 은퇴는 삶의 만족도를 악화시키며, 자발적, 비자발적 은퇴 모두가 소득 만족도를 악화시키고 여가시간 만족도는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29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Palomaki(2019)는 은퇴가 은퇴자의 주관적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킬 것을 지적하였다.

## 2. 고령 근로자의 근로환경

고령 근로자의 근로환경은 청년이나 중년 세대와 비교하여 경제활동 참여 시에 산업재해, 고용불안정, 연령차별 등을 경험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산업재해에 대해 살펴보면 정원일, 전용일(2014)은 2009년에 수행된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산업재해율(21.79%)이 고령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산업재해율(10.04%)의 약 2배에 이르는 등 고령자 고용 비율과 산업재해율 간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으며, 최숙희(2014)는 2010년 1~3월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자 중 26.5%가 55세 이상이며, 같은 기간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39.7%가 55세 이상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김영선, 김보형, 김혜민(2014)에 따르면 비고령자와 비교하여 고령자들은 근로 시에 고온, 저온, 분진 등 위험인자에 빈번하게 노출되며, 이로 인해 비고령자에 비하여 복통, 호흡곤란, 우울 또는 불안장애 등을 포함하는 질환을 더 빈번하게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외에도 비고령자와 비교하여 고령자들은 고용불안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수행된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한 김영선 외(2014)의 연구에서는 고령 남성과 고령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율이 각각 63.35%, 42.80%로 비고령 남성과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율(85.76%, 77.04%)보다 각각 22.41%p, 34.24%p 낮았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높은 고용불안정성을 보여준다. 고령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과 삶의 질에 관한 최혜지, 정은수(2018)의 연구에서는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고용불안정은 고령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득불안정은 고령 근로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의 가능성,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러한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6차 자료를 활용한 정윤경(2021)은 55세 이상 고령자 중 48.9%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고용불안정이 높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와 미성숙한 복지시스템은 취업 노인의 고용불안정성을 고착화시키며,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영, 2021). 이러한 고령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김윤영, 2021).

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연령차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우국희, 주경희, 이연순, 2012, 유용식, 2014), 고령자들은 직장에서 신체적 침해, 건강권 침해, 차별적 표현, 편견, 언어폭력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취업 노인의 연령차별 경험은 일자리 만족도를 낮추며, 실제 임금과 기대 임금의 격차가 연령차별과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영, 김범중, 2020). 김동선, 모선희(2012), 지은정(2017) 등은 고령자에 대한 고정관념, 고령자 고용 여부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들을 차별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인식과 고용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박경하(2011)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능력, 인간관계, 사고능력 등의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양호할수록 기업들이 고령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게 인식했으나, 노인에 대한 양호한 인식이 실제 고용으로 유의하게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흥기(2021)는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실업의 증가

와 장기화, 고령자의 높은 취업 수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중심의 취업 형태의 다양화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 고용유지 정책과 고용촉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이 고령자 고용법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3절 고령자의 사회활동

#### 1. 사회활동의 개념정의

사회활동은 연구자에 따라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개념적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활동과 사회참여를 혼용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노인복지법」 제23조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사항으로 봉사활동, 노인 적합 직종 개발 및 취업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참여에 경제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서는 여가와 문화, 그리고 사회활동(자원봉사 등)을 구분하여 여가와 문화를 사회활동과는 다른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UN의 활동적 노화 지표(AAI)에서는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구분하여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다(Zaidi et al., 2013).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개념 정의나<sup>7)</sup> 활용하는 이차자료<sup>8)</sup>에 따라 사회활동의 범위와 측정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다.

주경희(2011, p. 236)는 사회참여를 개인의 단독활동을 제외한 공식

7) 김재희(2021)의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교육, 친목단체활동, 자원봉사, 종교, 경로당활동, 노인복지관활동을 사회활동 범주로 구성하고 있다.

8) 한국고령화연구패널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사회활동은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단체, 동창회/향후회/중친회,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기타 등으로 총 7개 활동이 포함된다(이현주, 2015; 허원구, 2017).

적 또는 비공식적 조직 안에 연결된 개인들의 상호연계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사회참여의 범위에는 유급 노동에서 무급 봉사활동, 그리고 다양한 사회단체나 여가활동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또한 김영범, 이승훈(2008, pp. 3~4)은 사회활동을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함께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활동 유형을 공공집단활동, 여가활동, 종교활동, 연고집단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참여는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포괄하며, 사회활동은 경제활동을 제외한 여가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활동, 교육활동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모든 인생 단계에서 타인과 함께하는 사회활동은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노년기 전후에는 사회활동이 개인의 삶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중고령자 또는 노년기의 사회활동 참여는 우울수준(허원구, 2017), 인지기능(이현주, 2015; 강수연, 김호영, 염유식, 2016), 주관적 안녕감(김영범, 이승훈, 2008), 삶의 질(주경희, 2011)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김수경, 신혜리, 김영선(2019)은 중고령자의 온라인 사회참여가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와 삶의 만족도를 매개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여기서 온라인 사회활동은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 관심 분야에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 기부, 봉사활동, 정책건의, 민원제기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디지털 역량이 개선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면 위주의 사회활동이 인터넷 기반의 비대면 활동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사회활동은 개인이 혼자서 하는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 여

가, 평생교육, 자원봉사, 종교활동 등이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 범위를 여가활동, 평생교육, 자원봉사 등과 같이 관련 법률에 의해<sup>9)</sup>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활동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 2. 여가활동

여가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가는 자유시간 또는 잉여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Parker, 1976; Robinson & Godeby, 1997)으로 정의되었으나 단순히 잉여 시간에 하는 활동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강은나, 김혜진, 김영선(2017)은 여가활동을 근로시간이나 개인 유지를 위한 시간, 수면시간 등을 제외한 잉여의 시간에 하는 활동이 아닌 자신이 자발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단순한 낮잠이나 휴식 포함 여부와 관련 없이 여가활동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로 인해 여가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비슷한 유형끼리 분류하여 분석하거나, 아예 여가활동 유형을 도출하는 연구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김민혜, 김주현(2020)은 여가유형을 소극적 여가, 적극적 여가, 그리고 사회적 여가로 분류하였다. 소극적 여가는 TV, 산책/걷기, 쇼핑/외식, 목욕/찜질방, 낮잠 등이 포함되며, 적극적 여가는 문화 예술관람/참여, 스포츠, 관광/여행, 취미활동, 그리고 사회적 여가는 사교 중심적인 여가로서 가족/친지방문, 잡담/문자/통화, 친구 만남/이성

9)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후준비지원법, 평생교육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교제 등이 해당한다. 강은나 외(2017)에서는 만 50~69세 중고령자들의 여가활동을 유형화한 결과, 일상적 홀로 운동형(26.8%), 관계적 운동·오락형(28.0%), 일상적 취미활동형(23.3%), 여가소홀형(21.4%)의 네 가지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여가소홀형에 비해 일상적 취미활동형의 우울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성별에 따른 여가유형을 분석한 결과(강은나, 2016), 남성의 여가는 운동관람·오락형(11.2%), 다양형(4.0%), 여가제약형(34.7%), 관광형(4.0%), 운동형(46.1%)으로 유형화되며, 여성의 여가 유형은 운동형(14.4%), 여가제약형(49.1%), 오락형(36.5%)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운동형에 비해 운동관람·오락형과 여가제약형, 그리고 관광형의 여가만족도가 낮을 확률이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운동형에 비해 여가제약형의 여가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민혜, 김주현(2020)은 2012년과 2019년에 실시한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여가활동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2012년에 비해 2019년에는 소극적 여가를 제외하고 적극적 여가와 사회적 여가의 총량이 모두 증가하였으며,<sup>10)</sup>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여가활동은 문화예술 관람·참여 영역이고,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은 스포츠 관람·참여 영역이었다. 세부 활동으로는 인터넷/1인 미디어/SNS, 자동차 드라이브, 해외여행, 헬스/에어로빅, 요가/필라테스/태보 등의 활동이 새롭게 부상하여 변화하는 고령자들의 여가활동 실태를 보여주었다. 즉, 지난 7년간 고령자의 여가활동의 총량이 증가한 만큼 여가활동의 다양성도 확

10) 소극적 여가는 휴식이나 수동적인 활동(TV 시청, 산책, 음주 등)을 의미하며, 적극적 여가는 취미활동, 문화예술 관람이나 참여, 관광이나 여행 등을 포함함. 그리고 사회적 여가는 친목이나 사교(친구나 이성만남, 잡담/통화/문자 등) 위주의 활동을 의미함(김민혜, 김주현, 2020, p. 877).

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령자의 여가 수요가 증가한 만큼 다양한 여가시설의 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여가 지원,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여가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인숙(2020)은 중고령자의 여가활동과 우울 경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는데, 신체적 운동과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회적 자본을 거쳐 성공적 노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권기창, 권승숙, 2020). 중고령자의 행복감과 관련하여 여가활동 유형은 행복감과 관련성이 없지만, 여가 비용과 여가만족도는 중고령자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일보다 여가생활에 집중하는 경우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박창제, 2019).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노년 세대를 포함한 세대별 특성에 관한 연구들도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세대별 여가 인식과 활동에 관한 윤혜진, 김영문, 김은희(2016)의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노동보다는 여가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노년 세대일수록 여가보다는 노동의 가치에 더 의미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동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에 비해 행복감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코로나 시기에 국민들의 관광 이동행태를 세대별로 분석한 김은희(2020)의 연구를 보면, 60~70대 시니어 세대는 '소극적 일상 여행자', '자연친화형 여행자'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지 중심으로 이동 반경이 상대적으로 좁고, 여행에 대한 활력도 높지 않은 곳, 그리고 접근성이 좋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40~50대는 '적극적인 여행 향유자'로, 이들은 휴양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도심형 자연관광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노

년 세대는 건강을 목적으로, 자연친화적이면서 소극적인, 그리고 정적인 여가생활을 향유하는 특성을 보이며, 여가시간은 충분하지만 동반자 부재, 건강상의 문제 등이 여가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정대영, 2021).

### 3. 교육

노인과 관련한 교육은 ‘노인교육’ 또는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노인교육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여가활동의 일부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크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말한다(「평생교육법」 제2조). 즉, 노인교육은 평생교육의 일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20년 한국 성인 평생학습실태조사(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에 의하면, 성인(25~79세)의 평생교육(형식 및 비형식 교육 포함) 참여율은 40.0%이며, 65~79세의 참여율은 29.5%로 성인 전체의 참여율보다 약 10%p 낮았다. 그리고 65~79세 고령자의 평생교육 참여 내용은 스포츠 강좌(30.4%), 음악강좌(21.5%), 직업능력향상 교육과정(17.7%)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0년에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 참여율은 11.9%이며, 월평균 평생학습 참여시간은 약 9.0시간으로 나타났다(이윤경 외, 2020). 김영석(2019)은 고령자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노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노인의 평생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생산과 수집이 미비한 것을 지적하였

다. 전수경, 류숙희(2016)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노인 대상의 프로그램이 가장 적었으며,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유형은 평생학습관이 가장 많았고, 노인 세대를 위한 영역별 프로그램 수는 문화예술, 인문교양, 기초문해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다른 세대에 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 참여 실태를 분석한 연구(한정란, 편성숙, 황선정, 2021)에서는 노인의 평생교육 수강목적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여가 활용을 위하여” 등의 순이었으며, 평생교육 참여 성과로는 “건강해짐”과 “재수강의 욕구가 생김”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자연스럽게 자원봉사나 사회공헌활동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로를 마련해야 하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원격교육이나 휴대폰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직업교육이나 고령자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교육에 관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은퇴 이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욕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수정, 김윤정, 김민정, 2019), 은퇴 이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집단의 특성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았으며, 고졸 이상, 부부 세대 및 핵가족, 대도시 거주자에서 은퇴 후 일할 의향이 높았다.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은 높았으나, 실질적인 교육 참여 의사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중고령자의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내용과 시간 확보, 퇴직 전 정부에서 체계적인 직업교육 기회를

무료로 지원할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김철, 손종학(2019)은 ICT가 고령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유지에 도움이 되고, 고령자의 인지적 기술을 향상시키며, 치매예방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게 얻도록 지원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등의 다양한 이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ICT 관련 기기들이 젊은 세대 이용자 중심으로 개발 및 발전되고 있어 고령자는 기기 이용에 있어 젊은 세대에 의존하게 되고, 손가락 근육 등을 정교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불편을 겪으며, 새로운 기종으로의 교체와 잦은 업데이트가 고령자의 ICT 활용도를 낮추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대상의 평생교육은 해외 선진국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학습모델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U3A(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제3기 인생대학)이다. 박성희(2019)는 독일의 대학 중심의 노인대학교(senior university)와 U3A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독일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노인 청강생 제도, U3A 및 노인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대학교양 자격증 취득과정 등이 있다. 노인 청강생 제도는 대학교양과정 및 일부 전공 강의를 노인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수강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U3A 및 노인아카데미는 대학 내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거나 대학 소속의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U3A는 정규 학위취득(학사, 석사 등) 과정이 아니며, 학습내용과 과정을 노인이 스스로 설계한다.<sup>11)</sup> 마지막으로 대학교양 자격증 취득 과정은 학사 및 석사학위 취득 대신에 4~5학기로 진행되는 전공 과정에서 대학교양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고, 시험에 응시하고, 80페이지가량의 논문을

11) 독일 Frankfurt 노인대학(U3A)의 사례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3,718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재학생의 평균 연령 71.8세(연령범위 50~94세)이었음(박성희, 2019, p. 9).

제출해야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박성희, 2019).

홍콩의 노인 아카데미(Elder Academy)는 “노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안녕을 위한 활동과 평생교육에 참여할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07년 노동복지국과 노인위원회가 시작하였다(이수경, 2020, p. 66). 홍콩의 노인 아카데미는 지역구별로 적어도 한 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2020년을 기준으로 170여 개의 노인 아카데미가 홍콩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기반을 두었지만 노인의 교육 욕구가 증진되어 고등교육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며, 정부는 노인 아카데미 설치를 위한 초기자금 지원과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개별 노인 아카데미에서 커리큘럼과 운영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수경(2020)은 우리나라의 노인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학습 당사자인 노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틀 안에서 부처별 노인 교육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홍콩처럼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노인교육이 마련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노인들의 잠재된 역량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노인생애설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 4. 자원봉사

고령자의 자원봉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원봉사활동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토대로 노인의 자원봉사와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한 남을순, 이윤석(2021)의 연구에서 자원봉사 행위자 비율은 여성 4.5%, 남성 3.3%에 불과했으며, 자원봉사 행위자의 평균 시간은 남성 55.6분, 여성 55.4분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봉사활동

시간이 길었으며, 남성은 자원봉사 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여성은 자원봉사 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기(2016a)는 한국복지패널 3개년(2006~2008) 데이터를 활용하여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안녕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원봉사는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원봉사 횟수의 제공항은 안녕감과 부의 관계를 보여 역치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55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과 건강효과에 대한 중단연구(이현기, 2016b)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은 인지적 신체건강에 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우울감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진원, 이금룡(2021)은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만 60세 이상 80세 미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고령화패널자료(3~7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기(2018)는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중년 이후 자원봉사활동의 변화와 자원봉사활동과 안녕감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2006년 기준으로 자원봉사 참여율은 2.8%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은 40대 후반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50대부터 70대까지 완만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의 2년 후 지속 확률은 약 31.2%, 중단 확률은 68.9%로 나타나 신규 봉사자를 확보하기보다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만, 한국의 노인자원봉사자 비율은 너무 낮아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은 여전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은 중고령자의 안녕감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지만, 과도한 자원봉사활동은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기, 2018).

한국 노인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이금룡(2017)은 봉사활동의 전문성과 다양성 미흡(사회복지영역에 치중), 여가활동과 경제활동과의 연계성 부족(여가 → 자원봉사 → 일자리로의 선순환 필요), 제한된 노인자원봉사 참여대상,<sup>12)</sup> 노인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미흡, 봉사시간 인증 및 보상체계 미흡, 노인자원봉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자원봉사의 영역과 참여방식이 대면에서 인터넷 환경의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자원봉사는 인터넷 기반 자원봉사(internet-mediated volunteering), 가상의 자원봉사(virtual volunteering), 온라인 자원봉사(online volunteering)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정진경, 천희, 2018). 정진경, 천희(2018)는 1365자원봉사포털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온라인 자원봉사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15.3%가 온라인 봉사 경험이 있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은 0%, 50대는 9.8%인 반면 10대 18.7%, 20대 13.6%로 연령대에 따라 온라인 참여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원봉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온라인 활동에 친숙한 계층을 대상으로 기관의 전문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비교적 적은 횟수, 단시간에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자원봉사자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 5. 노후준비

노후준비는 노후설계, 노후대책, 은퇴준비, 퇴직준비 등의 용어들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지만(박창제, 2008; 송현주, 임란, 2017), 노년기의

12) 자원봉사 또는 복지기관에 소속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의 한계.

편안한 삶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등의 총체적인 계획과 설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박창제, 2008). 「노후준비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법 동조항에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으로 노후준비 유형을 구분하고 있고,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노후준비서비스로 명시하고 있다.

노후준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고령자 남성이 중고령자 여성보다 노후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은 신체적 및 경제적 노후준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준, 송희경, 2016). 성별 차이와 더불어 이윤경(2019)은 고령자들의 노후준비 기대에 초점을 맞춰 개인마다 기대하는 노후생활이 상이하고, 그러한 기대가 실제 노후준비 행태에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노후준비를 공적 노후준비와 사적 노후준비로 분류하고, 노후에 희망하는 활동을 취미와 자기개발 활동, 자원봉사와 종교활동, 경제활동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어떠한 노후준비를 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고용불안정성을 낮게 인지할수록 사적 노후준비보다는 공적 노후준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공적 유형의 노후준비 외에 사적 유형에도 투자하여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노인 스스로 자신의 삶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 건강 관련 노후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할수록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준, 송희경, 2016). 건강과 같은 신체적 노후준비와 함께 노인 본인이 경제적인 준비를 하며 가족 및 이웃 등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은퇴 후 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손유경, 최성문, 2020).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요인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노후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중·고령자일수록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현, 2018).

이처럼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지현(2018)은 연구 결과에 따라 미시적, 지역적, 거시적으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경제활동, 꾸준한 건강관리,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등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적 차원으로는 공공기관과 병원 같은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대책을 제안하였다. 거시적 접근으로는 정년시스템 개선,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임금피크제 등과 같은 중·고령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맞춤형 의료서비스 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그리고 여가시설 증설, 고령자 자원 봉사활동 장려 등의 사회관계망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 제4절 모니터링 개념과 연구 동향

### 1. 모니터링 개념

모니터링은 정책이나 사업, 프로그램의 변화를 추적하거나 목표 달성의 진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다시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성수, 윤문구, 정병국(2009, p. 36)은 모니터링이란 시간 흐름의 단계마다 대상이나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점검하여 환류하는 작

업이며, 정책이나 사업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를 단계마다 파악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모니터링은 관심 대상의 변화를 관찰 및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한성수 외, 2009, p. 36). 오윤섭 외(2016, p. 19)에서는 “모니터링 대상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측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록하는 활동”이라 하였다.

권율(2006, p. 28)은 모니터링과 평가의 차이점과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모니터링은 정책의 책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지속적인 작업이며, 평가는 정책 목표 달성도,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이라고 구분하였다. 즉, 모니터링은 사업이나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평가는 사후적인 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니터링은 특정 시점에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평가는 사업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고, 달성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니터링과 평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연속적인 관계를 가지며,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고, 평가의 기준이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권율, 2006, p. 29).

## 2. 모니터링 관련 선행연구

모니터링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 연구가 있다(김은정 외, 2018; 김성아, 엄다

원, 2021; 김문길 외, 2020), 다른 하나는 사업 단위가 아닌 광범위한 정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거나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이다. 정책 모니터링 체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교육지표 개발 연구(엄문영 외, 2013; 박성호 외, 2020), 인구변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우해봉, 장인수, 임지혜, 2020),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연구(정연 외, 2020) 등이 보고되고 있다.

엄문영 외(2013)에서는 선진국 위주의 국제교육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특수성과 보편성을 반영한 교육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시아 8개 국가의 교육 특수성을 도출하고,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한 보편적 성격의 교육지표를 선정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아시아 교육지표를 기준으로 아시아 국가의 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아시아 교육지표를 시범적으로 발간하고 홍보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최근 연구로서 박성호 외(2020)는 교육 전반을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거나 정책 모니터링에 활용 가능한 국가교육지표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과 연계된 국가교육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투입-과정-결과 중심의 체계모형<sup>13)</sup>과 핵심정책 성과목표에 따른 정책성과모형<sup>14)</sup>의 두 가지 모형을 기반으로 두 가지의 국가교육지표를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에서 제시한 개발된 국가교육지표의 통합적 관리와 정기적인 산출, 경제사회변화에 따른 신규 지표 개발, 데이터 협력 체제 구축, 그리고 교육지표의 접근성과 활용

13) 투입은 교육여건, 인적자원, 시설환경, 교육재정투자, 과정은 교수-학습 과정, 구성원 간 관계, 학교운영참여, 결과는 교육이수, 교육만족도, 교육성과, 사회적 성과로 구성됨.

14) 교육기회 균등 및 기초학력 보장, 학습비 부담 완화, 학습자 역량강화, 교원 전문성 강화, 교육여건 개선,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성과 기반 정책 및 제도 운영.

의 확산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우해봉 외(2020)에서는 인구변동의 과거와 미래 전개 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인구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구변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인구변동과 관련한 자료원과 자료 구축상의 쟁점을 살펴보고, 인구변동, 인구성장과 구성요인 및 특성, 지역사회의 인구변동 등의 모니터링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인구변동을 주기적으로 일관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 구조에 대한 검토, 자료수집의 다양한 조합 구상, 모니터링 주체와 역할 분담의 명확화 등을 제안하였다. 노동자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정연 외(2020)에서는 노동자의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인과 국내외 노동자의 건강불평 모니터링 체계를 검토하여 국내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를 포함한 모니터링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체계를 권력관계, 고용시간, 근로환경, 건강 등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지표 29개를 포함한 총 70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 제3장

###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참여 현황

제1절 고령자의 경제활동

제2절 고령자의 사회활동

제3절 소결



## 제 3 장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참여 현황

### 제1절 고령자의 경제활동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차자료 분석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경제활동인구 고령자 부가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매월 15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조사를 하고 있어 매월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연간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 자료를 인출하여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 고령자 부가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에서 매년 5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을 기준으로 만 55~7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 5월 고령자 부가조사에 대한 통계청 보도자료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매년 6월을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 1. 고령자의 경제활동 추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15세 이상)은 62%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5~64세 연령대의 경우 2012년 64.7%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6년 이후에는 68% 후반대에 머물

러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 30.7%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에는 3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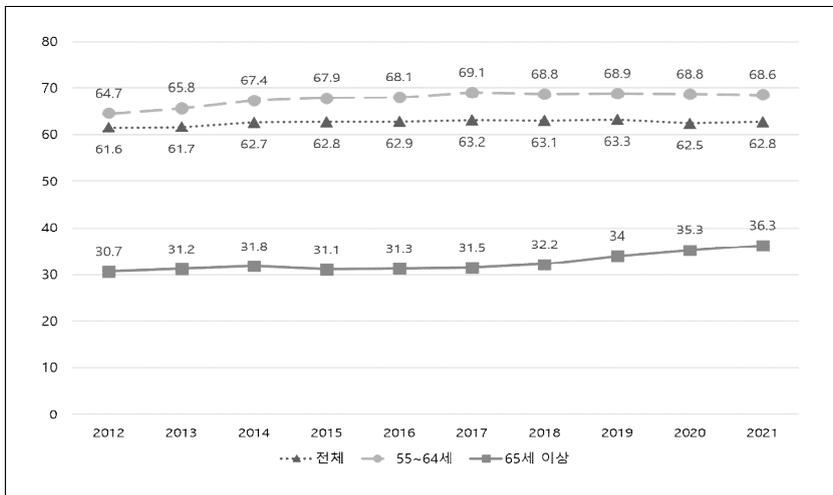
〈표 3-1〉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2012~2021)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15세+)	61.6	61.7	62.7	62.8	62.9	63.2	63.1	63.3	62.5	62.8
55~64세	64.7	65.8	67.4	67.9	68.1	69.1	68.8	68.9	68.8	68.6
65세 이상	30.7	31.2	31.8	31.1	31.3	31.5	32.2	34.0	35.3	36.3

자료: 1) 안준기 외. (2021).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2) e-나라지표. (2022). 고령자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6](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6)에서 2022. 09. 19. 인출.  
 3) KOSIS. (2022).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12)에서 2022.09.19. 인출.

〈그림 3-1〉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2012~2021)



자료: 1) 안준기 외. (2021).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2) e-나라지표. (2022). 고령자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6](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6)에서 2022. 09. 19. 인출.  
 3) KOSIS. (2022).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12)에서 2022.09.19. 인출.

고용률(2012~2021)을 살펴보면, 만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60% 안팎을 차지하고 있으며, 55~64세 연령대는 2015년 이후 66%대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12년 30.1%에서 2021년 34.9%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3-2〉 고령층 고용률(2012~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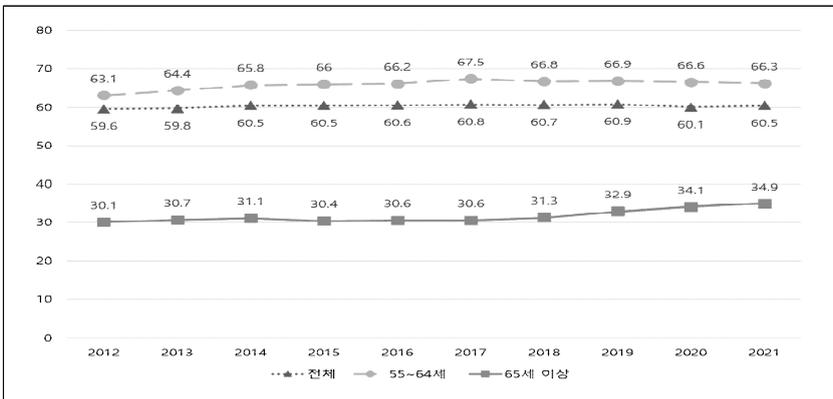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15세+)	59.6	59.8	60.5	60.5	60.6	60.8	60.7	60.9	60.1	60.5
55~64세	63.1	64.4	65.8	66.0	66.2	67.5	66.8	66.9	66.6	66.3
65세 이상	30.1	30.7	31.1	30.4	30.6	30.6	31.3	32.9	34.1	34.9

자료: 1) 안준기 외. (2021).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2) e-나라지표. (2022). 고령자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6](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6)에서 2022. 09. 19. 인출.

3) KOSIS. (2022).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12)에서 2022.09.19. 인출.

[그림 3-2] 고령층 고용률(2012~2021)



자료: 1) 안준기 외. (2021).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2) e-나라지표. (2022). 고령자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6](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6)에서 2022. 09. 19. 인출.

3) KOSIS. (2022).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12)에서 2022.09.19. 인출.

64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만 15세 인구의 실업률은 2013년에 3.1%로 가장 낮았으나 이후 2020년에 4.0%까지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3.7%로 감소하였다. 55~64세 연령대의 경우,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3.0% 미만을 유지하였지만, 2019년 이후에는 3.0%를 넘어선 것을 볼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률도 2018년까지는 3.0% 미만이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3.0%를 넘어서 2021년에는 3.8%까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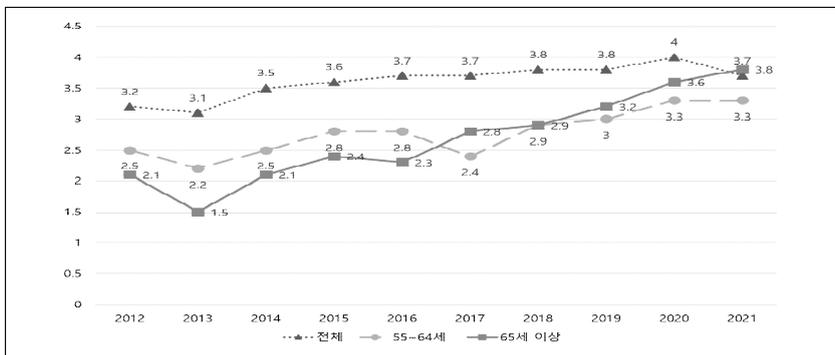
〈표 3-3〉 고령층 실업률(2012~2021)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15세+)	3.2	3.1	3.5	3.6	3.7	3.7	3.8	3.8	4.0	3.7
55~64세	2.5	2.2	2.5	2.8	2.8	2.4	2.9	3.0	3.3	3.3
65세 이상	2.1	1.5	2.1	2.4	2.3	2.8	2.9	3.2	3.6	3.8

자료: 1) 안준기 외. (2021).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2) e-나라지표. (2022). 고령자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6](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6)에서 2022. 09. 19. 인출.  
 3) KOSIS. (2022).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12)에서 2022.09.19. 인출.

〔그림 3-3〕 고령층 실업률(2012~2021)



자료: 1) 안준기 외. (2021).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2) e-나라지표. (2022). 고령자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6](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6)에서 2022. 09. 19. 인출.  
 3) KOSIS. (2022).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12)에서 2022.09.19. 인출.

## 2. 고령 취업자의 근로 현황

만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중 만 55세 이상자는 2011년 20.1%에서 2021년에는 30.8%로 증가하여 취업자의 고령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 취업자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2011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5~64세 취업자는 2011년 62.2%에서 2021년 66.3%로 증가하였으며, 65~74세 연령구간에서는 2011년 37.0%에서 2021년 44.1%로, 75세 이상 연령구간에서는 15.7%에서 2021년 22.0%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고령 취업자의 연령대별 고용률(2011년, 2021년)

(단위: %)

구분	2011년	2021년
전체 취업자 중 만 55세 이상 비율	20.1	30.8
55~64세	62.2	66.3
65~74세	37.0	44.1
75세 이상	15.7	22.0

자료: 1)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2) 통계청. (2021a).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만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11년 40.7%에서 2021년 42.9%로 다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55~64세 인구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7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2011년 6.6%에서 2021년 9.4%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2011년에는 중학교 졸업 이하 비율이 61.1%이었지만, 2021년에는 중학교 졸업 이하 비율이 39.0%로 줄어들었고, 고등학교 졸업 39.3%, 대학교 졸업 이상 21.7%로 나타났다.

〈표 3-5〉 고령 취업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구분		2011년	2021년
성별	남자	59.3	57.1
	여자	40.7	42.9
	합계	100.0	100.0
연령대	55~64세	67.4	64.4
	65~74세	26.0	26.2
	75세 이상	6.6	9.4
	합계	100.0	100.0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61.1	39.0
	고등학교 졸업	27.7	39.3
	대학교 졸업 이상	11.2	21.7
	합계	100.0	100.0

자료: 1)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2) 통계청. (2021a).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2011년과 2021년의 고령 취업자(만 55세 이상)의 종사상 지위 변화를 보면, 상용근로자는 2011년 20.4%에서 2021년 33.6%로 13.2%p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비율은 9.6%p 감소하였다. 55~64세 그리고 65~74세 인구집단은 상용근로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자영업자 비율이 감소한 반면, 75세 이상 인구집단은 임시근로자 비율이 26.9%p 증가하고, 자영업자 비율은 15.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종사상 지위별 고령 취업자 비율

(단위: %)

구분		2011년	2021년	증감(2021-2011)
55세 이상	상용근로자	20.4	33.6	13.2
	임시근로자	18.5	21.2	2.7
	일용근로자	10.8	7.0	-3.8
	고용주	5.6	5.5	-0.1
	자영업자	35.4	25.8	-9.6
	무급가족종사자	9.4	6.9	-2.5
55~64세	상용근로자	25.9	42.6	16.7
	임시근로자	18.0	15.6	-2.4
	일용근로자	10.2	7.8	-2.4
	고용주	6.7	6.4	-0.3
	자영업자	30.7	21.5	-9.2
	무급가족종사자	8.4	6.1	-2.3
65~74세	상용근로자	10.5	21.7	11.2
	임시근로자	20.0	26.7	6.7
	일용근로자	11.6	6.5	-5.1
	고용주	3.5	4.4	0.9
	자영업자	42.9	32.3	-10.6
	무급가족종사자	11.6	8.4	-3.2
75세 이상	상용근로자	3.1	5.3	2.2
	임시근로자	17.4	44.3	26.9
	일용근로자	12.9	3.5	-9.4
	고용주	2.7	1.9	-0.8
	자영업자	53.2	37.3	-15.9
	무급가족종사자	10.7	7.8	-2.9

자료: 1)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2) 통계청. (2021a).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직업별 고령 취업자 현황을 보면, 55세 이상 근로자는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과 2021년을 비교할 때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율이 20.6%에서 13.4%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55~64세 인구집단의 경우, 2021년 단순노무종사자(19.6%)

와 서비스 종사자(15.0%)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65~74세 인구집단은 단순노무종사자(32.9%)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20.6%) 비율이 높으며, 75세 이상 인구집단은 단순노무종사자(47.0%), 농림어업숙련종사자(34.3%)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근로자의 직업군은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지만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65세 이상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직업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7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2011년과 2021년의 단순노무종사자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율이 각각 79.1%와 81.3%로 지난 10년간 75세 이상 취업자의 직종은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7〉 직업별 고령 취업자 비율

(단위: %)

구분	2011년	2021년	변화(2021-2011)	
55세 이상	관리자	2.8	1.9	-0.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5	7.8	1.3
	사무종사자	3.9	7.1	3.2
	서비스종사자	9.1	13.0	3.9
	판매종사자	11.0	9.1	-1.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0.6	13.4	-7.2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8.0	9.9	1.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1.4	12.1	0.7
	단순노무종사자	26.7	25.6	-1.1
55~64세	관리자	3.4	2.4	-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8	9.9	2.1
	사무종사자	5.0	9.1	4.1
	서비스종사자	11.4	15.0	3.6
	판매종사자	12.0	10.1	-1.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2.0	7.5	-4.5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10.3	12.6	2.3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1	13.7	-0.4
	단순노무종사자	24.0	19.6	-4.4

구분	2011년	2021년	변화(2021-2011)	
65~74세	관리자	1.6	1.1	-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8	4.6	0.8
	사무종사자	1.7	4.0	2.3
	서비스종사자	4.3	10.8	6.5
	판매종사자	9.3	8.1	-1.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5.0	20.6	-14.4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3.7	6.5	2.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9	11.5	4.6
	단순노무종사자	33.7	32.9	-0.8
75세 이상	관리자	1.6	0.5	-1.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1	2.0	-2.1
	사무종사자	1.5	1.7	0.2
	서비스종사자	3.4	5.8	2.4
	판매종사자	7.5	5.2	-2.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2.1	34.3	-17.8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1.8	1.0	-0.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0.9	2.5	1.6
	단순노무종사자	27.0	47.0	20.0

자료: 1)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2) 통계청. (2021a).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고령 취업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를 살펴보았다. 55세 이상 취업자의 경우 9명 이하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2011년에 비해 2021년에는 8.7%p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전 연령대에서 9명 이하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2011년에 비해 2021년에는 9명 이하 사업체에 근무하는 고령 취업자 비율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9명 이하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고령 취업자 비율

(단위: %)

구분	2011년	2021년	변화(2021-2011)	
55세 이상	9명 이하	73.7	65.0	-8.7
	10~29명	12.8	16.1	3.3
	30~99명	7.9	11.1	3.2
	100~299명	3.1	4.1	1.0
	300명 이상	2.6	3.8	1.2
55~64세	9명 이하	68.9	60.0	-8.9
	10~29명	14.0	16.5	2.5
	30~99명	9.8	13.2	3.4
	100~299명	3.9	5.3	1.4
	300명 이상	3.4	4.9	1.5
65~74세	9명 이하	83.0	73.5	-9.5
	10~29명	10.5	14.9	4.4
	30~99명	4.3	7.6	3.3
	100~299명	1.6	2.2	0.6
	300명 이상	0.7	1.7	1.0
75세 이상	9명 이하	86.1	75.3	-10.8
	10~29명	9.0	16.5	7.5
	30~99명	3.3	6.4	3.1
	100~299명	0.6	0.6	0.0
	300명 이상	1.1	1.2	0.1

자료: 1)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2) 통계청. (2021a).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고령 취업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55세 이상 취업자의 경우 2011년 41.8시간에서 2021년 36.5시간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근로자 대비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은 2011년 27.8%에서 2021년 36.7%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전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감소하였으며, 2021년 기준으로 55~64세는 39.5시간, 65~74세 34.1시간, 75세 이상은 22.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고령 취업자의 주당 근무시간

(단위: 시간, %)

구분	2011년	2021년	변화(2021-2011)	
55세 이상	평균 근무시간	41.8	36.5	-5.3
	주 36시간 미만(%)	27.8	36.7	8.9
55~64세	평균 근무시간	44.5	39.5	-5.0
	주 36시간 미만(%)	20.7	28.3	7.6
65~74세	평균 근무시간	37.9	34.1	-3.8
	주 36시간 미만(%)	38.4	44.7	6.3
75세 이상	평균 근무시간	28.6	22.8	-5.8
	주 36시간 미만(%)	59.6	71.8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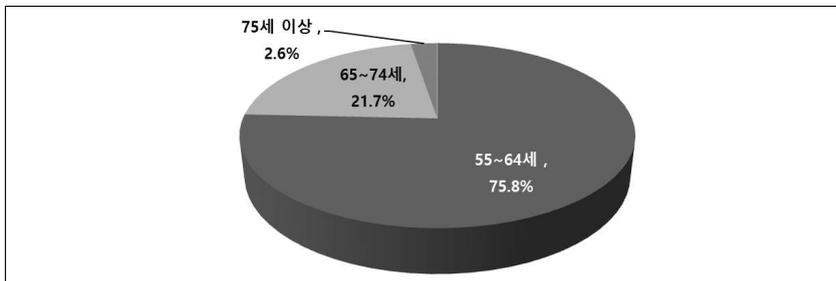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2) 통계청. (2021a).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 3. 고령 임금근로자 실태<sup>15)</sup>

만 5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75.8%는 55~64세 연령층이며, 5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65~74세 임금근로자는 21.7%, 75세 이상은 2.6%로 나타났다.

[그림 3-4] 고령 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분포



자료: 고용노동부. (202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15)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의 근로 실태를 분석함.

만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5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단시간 11.2%, 일일 10.2%, 기간제 6.8% 등의 순이었다. 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65~74세 임금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은 46.3%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단시간 임금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3-10〉 고령 임금근로자의 고용 형태(2021년)

(단위: %)

구분	특수형태	용역	일일	단시간	기간제	정규직 <sup>1)</sup>	기타 <sup>2)</sup>	합계
55세 이상	5.7	6.1	10.2	11.2	6.8	58.9	1.1	100.0
55~64세	5.8	3.9	10.3	9.8	6.2	62.8	1.1	100.0
65~74세	5.4	13.1	10.1	15.2	8.9	46.3	1.0	100.0
75세 이상	5.8	9.6	8.1	17.5	7.0	51.7	0.3	100.0

주: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2) '기타'에는 재택/가내, 파견,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가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202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만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는 단순노무종사자 21.5%, 사무종사자 17.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5.5%, 서비스 종사자 13.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65세를 전후로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2배가량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판매종사자 비율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11〉 고령 임금근로자의 직업군 분포(2021년)

(단위: %)

구분	55세 이상	55~64세	65~79세	75세 이상
관리자	1.0	1.1	0.8	1.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5	12.3	8.5	11.6
사무종사자	17.5	18.1	14.4	24.0
서비스종사자	13.4	13.3	14.1	9.0
판매종사자	7.9	8.5	6.0	5.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4	0.4	0.7	0.9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11.3	12.1	9.4	5.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5.5	16.6	12.7	6.4
단순노무종사자	21.5	17.6	33.5	35.9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고용노동부. (202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만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54.4시간이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12〉 고령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sup>1)</sup>(2021년)

(단위: 시간, %)

구분	월평균 근로시간	표준편차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
55세 이상	154.4	56.8	28.6
55~64세	157.7	55.2	25.5
65~74세	145.0	60.5	37.6
75세 이상	134.6	59.2	45.1

주: 1) 1개월간을 총계하여 1시간 미만의 단위가 있는 경우 30분 이상은 절상하고 30분 미만은 절사하여 분석함.

자료: 고용노동부. (202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만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272.5만원이며, 시간당 17,806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5~64세 289.3만원, 65~74세 219.7만원, 75세 이상은 222.4만원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65~74세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74세 임금근로자 집단과 75세 이상 임금근로자 집단의 종사상 지위, 직업군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급여수준의 표준편차도 75세 이상 집단에서 큰 것을 고려하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3-13〉 고령 임금근로자의 급여 수준(2021년)

(단위: 만원, 원)

구분	월평균 급여 (만원)	표준편차	시간당 급여 (원)	표준편차
55세 이상	272.5 원	254.1	17,806원	14,119
55~64세	289.3 원	256.7	18,510원	14,293
65~74세	219.7 원	231.0	15,488원	12,864
75세 이상	222.4만원	293.5	16,655원	16,716

자료: 고용노동부. (202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고령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았다. 사회보험의 경우, 연령에 따라 의무가입이 제외<sup>16)</sup>되는 경우가 있다.

- 국민연금: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 건강보험: 교육서비스업,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 고용보험: 교육서비스업, 65세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 산재보험: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사회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만 55세 이상 전체 고령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국민연금 가입률은 33.9%, 건강보험 76.4%, 고용보험

16) 고용노동부. (2022.5.25.).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vs/report/enevsView.do?news\\_seq=13557](https://www.moel.go.kr/news/enevs/report/enevsView.do?news_seq=13557)에서 2022. 10. 17. 인출.

57.8%, 산재보험 83.6%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별 가입 의무자(임의가입 포함) 비율을 보면, 국민연금 87.7%, 건강보험 86.7%, 고용보험 86.4%, 산재보험 96.4%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0.0%로 나타났다.

〈표 3-14〉 고령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

(단위: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제외대상 포함	55세 이상	33.9	76.4	57.8	83.6
	55~64세	44.7	77.4	76.3	63.6
	65~74세	0.0	73.9	0.0	17.9
	75세 이상	0.0	69.6	0.0	2.0
적용 제외대상 제외	55세 이상	87.7	86.7	86.4	96.4
	55~64세	87.7	87.6	86.4	96.9
	65~74세	0.0	84.4	0.0	95.2
	75세 이상	0.0	81.3	0.0	93.2

자료: 고용노동부. (202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2. 09. 13. 인출. 원자료 재분석.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을 활용하여 고령자들이 근로 시에 겪는 산업재해와 이로 인한 사망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6개년도 산업재해자 수는 총 583,150명이다. 전체 산업재해에서 55세 이상 산업재해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에 27.0%였으나 2020년에는 46.1%까지 증가하였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6개년도 총 11,895명이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에서 55세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에 39.1%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0년에는 59.7%를 기록하였다.

〈표 3-15〉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산업재해 사망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계
산업 재해	전체 산업재해자 수	98,645	92,256	90,909	90,656	102,305	108,379	583,150
	55~59세(A)	12,349 (12.5)	13,586 (14.7)	14,810 (16.3)	15,923 (17.6)	17,463 (17.1)	16,842 (15.5)	90,973 (15.6)
	60세 이상(B)	14,273 (14.5)	15,534 (16.8)	18,412 (20.3)	22,035 (24.3)	28,424 (27.8)	33,203 (30.6)	131,881 (22.6)
	55세 이상 (A+B)	26,622 (27.0)	29,120 (31.5)	33,222 (36.6)	37,958 (41.9)	45,887 (44.9)	50,045 (46.1)	222,854 (38.2)
산업 재해 사망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	2,200	1,864	1,850	1,777	2,142	2,062	11,895
	55~59세(A)	313 (14.2)	301 (16.1)	325 (17.6)	314 (17.7)	362 (16.9)	315 (15.3)	1,930 (16.2)
	60세 이상(B)	548 (24.9)	517 (27.7)	597 (32.3)	618 (34.8)	833 (38.9)	916 (44.4)	4,029 (33.9)
	55세 이상 (A+B)	861 (39.1)	818 (43.8)	922 (49.9)	932 (52.5)	1,195 (55.8)	1,231 (59.7)	5,959 (50.1)

자료: 1) 고용노동부. (2022d). 전체 재해 현황 및 분석-연령별(산업별 중분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6\\_N003&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6_N003&conn_path=I2)에서 2022. 10. 17. 인출.

2) 고용노동부. (2022b).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연령별(산업별 중분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6\\_N015&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6_N015&conn_path=I2)에서 2022. 10. 17. 인출.

#### 4. 고령자의 희망 일자리

통계청(2022)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고령자의 희망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았다. 고령자 중 향후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고령자(55~79세) 비율은 2021년 68.1%, 2022년 68.5%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향후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고령자 중 55~59세 인구 비율은 33.0%, 60~64세 30.7%, 65~69세 18.6% 등으로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장래에 일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표 3-16〉 고령자 평균 근로 희망 여부

(단위: 천명, %)

구분	2021년	2022년
전체	10,059(100.0)	10,348(100.0)
55~59세	3,409(33.9)	3,415(33.0)
60~64세	3,047(30.3)	3,180(30.7)
65~69세	1,868(18.6)	1,971(18.6)
70~74세	1,083(10.8)	1,132(10.9)
75~79세	653(6.5)	650(6.3)

주: 장래근로 희망 여부 결과, 2021년 기준 전체 55~79세 고령자 중 68.1%(10,059명), 2022년 기준 68.5%(10,348명)가 근로를 희망하였음.  
 자료: 통계청. (2022.7.26.).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2. 10. 17. 인출. p. 16의 내용 발췌.

2022년 기준,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 (57.1%)와 일하는 즐거움(34.7%)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표 3-17〉 고령층의 근로 희망 동기

(단위: 천명, %)

구분	2021년	2022년
일하는 즐거움	3,336(33.2)	3,595(34.7)
생활비에 보탬	5,909(58.7)	5,912(57.1)
사회가 필요로 함	228(2.3)	216(2.1)
건강유지	202(2.0)	201(1.9)
무료해서	384(3.8)	425(4.1)
기타	1(0.0)	-(-)

주: 원자료에서는 '장래근로 원함'이라고 응답한 대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취업희망동기'로 명시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2022.7.26.).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2. 10. 17. 인출. p. 15의 내용 발췌.

2022년을 기준으로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일의 양과 시간대’가 28.9%로 임금수준 21.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계속근로 가능성’ 16.4%, ‘일의 내용’ 13.8% 등으로 나타났다.

〈표 3-18〉 고령층의 일자리 선택기준

(단위: 천명, %)

구분	2021년	2022년
	전체(55~79세)	전체(55~79세)
임금수준	2,157(21.4)	2,222(21.5)
일의 양과 시간대	2,854(28.4)	2,988(28.9)
일의 내용	1,332(13.2)	1,432(13.8)
출퇴근 거리 등 편리성	791(7.9)	774(7.5)
계속근로 가능성	1,770(17.6)	1,693(16.4)
과거 취업 연관성	1,010(10.0)	1,075(10.4)
그 외 <sup>2)</sup>	145(1.4)	165(1.6)

주: 1) 원자료에서 ‘장래근로 원함’이라고 응답한 대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사업장 규모, 사회적 지위 유지 가능성, 기타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22.7.26.).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2. 10. 17. 인출. p. 17의 내용 발췌.

고령층이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는 2022년 기준으로 전일제 54.2%, 시간제 45.8%로 전일제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일제 비율은 낮아지고 시간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65세를 기점으로 시간제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75~79세 인구집단의 경우 거의 80%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고령층의 희망 일자리 형태

(단위: 천명, %)

구분	2021년				2022년			
	전체	전일제	시간제	계	전체	전일제	시간제	계
전체	10,059 (100.0)	54.7	45.3	100.0	10,348 (100.0)	54.2	45.8	100.0
55~59세	3,409(33.9)	67.9	32.1	100.0	3,415(33.0)	67.3	32.7	100.0
60~64세	3,047(30.3)	59.8	40.2	100.0	3,180(30.7)	57.7	42.3	100.0
65~69세	1,868(18.6)	48.1	51.9	100.0	1,971(18.6)	48.7	51.3	100.0
70~74세	1,083(10.8)	32.8	67.2	100.0	1,132(10.9)	33.8	66.2	100.0
75~79세	653(6.5)	17.2	82.8	100.0	650(6.3)	20.3	79.7	100.0

자료: 통계청. (2022.7.26.).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2. 10. 17. 인출. p. 19의 내용 발췌.

고령층이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소득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150~200만원 미만 20.9%, 200~250만원 미만 18.5%, 100~150만원 17.8% 등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은 17.1%이었다.

〈표 3-20〉 고령층의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천명, %)

구분	2021년(55~79세)		2022년(55~79세)	
	명수	(%)	명수	(%)
전체 응답자 수	10,059	(100.0)	10,348	(100.0)
50만원 미만	543	(5.4)	504	(4.9)
50~100만원 미만	1,376	(13.7)	1,260	(12.2)
100~150만원 미만	1,852	(18.4)	1,838	(17.8)
150~200만원 미만	2,215	(22.0)	2,159	(20.9)
200~250만원 미만	1,790	(17.8)	1,909	(18.5)
250~300만원 미만	958	(9.5)	1,127	(10.9)
300만원 이상	1,325	(13.2)	1,550	(15.0)

자료: 통계청. (2022.7.26.).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2. 10. 17. 인출. p. 19의 내용 발췌.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은 2022년 기준 73세이었으며, 55~59세는 69세까지 근로하기를 희망하였으며, 60~64세는 평균 72세, 그리고 75~79세는 평균 82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희망하는 근로연령과 현재 연령과의 차이가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5~69세 연령대는 최소 10년 더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75~79세 연령대는 최소 3년 더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희망 근로연령

구분	2021년	2022년	희망 근로연령 - 현 연령구간의 최고연령(2022년 기준)
전체	73세	73세	-
55~59세	70세	69세	10년 (69세-59세)
60~64세	72세	72세	8년 (72세-64세)
65~69세	75세	75세	6년 (75세-69세)
70~74세	79세	79세	5년 (79세-74세)
75~79세	82세	82세	3년 (82세-79세)

자료: 통계청. (2022.7.26.).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2. 10. 17. 인출. p. 16의 내용 발췌.

## 제2절 고령자의 사회활동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고령자의 사회활동은 ‘여가활동’, ‘교육활동’, ‘자원봉사활동’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영역별 분석자료는 다음과 같다. 여가활동의 경우 국민여가활동조사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원자료,<sup>17)</sup> 교육활동은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2017~2020년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은 1365자원봉사포털이 매년 발표하는 연도별 자원봉사 통계 자료(2017~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그리고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항목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민여가활동조사는 50세 이상 고령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는 55~79세 중고령자, 1365자원봉사포털의 통계는 50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 1. 여가활동

#### 가.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고령자는 전반적으로 TV 시청 등과 같은 휴식 활동을 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취미오락활동, 사회활동 및 기타, 관광 활동,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활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관광 활동과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은 감소하였고 휴식 활동은 대체로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은 다른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휴식 활동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20년부터 확산되기 시작

17) 2019년부터 조사 주기가 1년으로 변경되었음.

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 등으로 촉발된 사회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문화예술활동, 관광활동 등의 참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활동의 경우 전시회, 영화 관람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22〉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sup>1)</sup>

(단위: %)

구분 <sup>2)</sup>	2016	2018	2019	2020
문화예술활동	5.3	6.3	6.1	4.7
스포츠활동	8.0	8.3	7.5	7.5
관광활동	16.9	16.0	15.9	13.7
취미오락활동	22.4	24.8	23.8	23.9
휴식활동	26.6	24.4	26.1	29.3
사회활동 및 기타	20.8	20.1	20.7	20.9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 2) · 문화예술활동 관람 및 참여: 전시회·영화 등 관람, 글짓기/독서토론 등  
 ·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스포츠 경기 직접관람, 농구, 축구 등  
 · 관광: 문화유적방문 등  
 · 취미오락: 요리, 등산, 낚시 등  
 · 휴식: 산책 및 걷기, 쇼핑, TV 시청 등  
 · 사회 및 기타: 사회봉사, 종교활동, 잡담, 동창회, 이외 여가활동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분석.

다음은 우리나라 50세 이상 고령자의 여가활동을 성별, 연령집단,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휴식활동 및 취미오락활동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활동과 스포츠활동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일부 나타났는데, 여성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활동 및 관광활동, 그리고 남성은 스포츠활동에 참여하

는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분석 결과 역시 앞에 제시된 것과 대체로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과거에 비해 2020년에 휴식활동 참여 비율이 증가한 반면, 관광 활동의 감소폭이 남성과 여성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성별에 따른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문화예술활동	4.5	6.1	5.7	7.0	5.6	6.6	4.3	5.0
스포츠활동	10.0	6.0	10.3	6.2	9.8	5.3	9.5	5.6
관광활동	16.6	17.2	15.5	16.6	15.1	16.6	13.4	14.0
취미오락활동	23.5	21.3	25.3	24.3	24.0	23.6	24.2	23.6
휴식활동	26.1	27.1	24.2	24.7	25.8	26.3	28.7	29.9
사회활동 및 기타	19.3	22.2	19.1	21.2	19.6	21.6	20.0	2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분석.

다음은 우리나라 고령자의 여가활동 참여 유형을 연령집단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50대의 경우 타 연령집단에 비해 문화예술활동 및 스포츠활동, 관광활동, 취미오락활동 등 전반적인 여가유형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휴식활동, 사회활동 및 기타 등의 여가활동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70대 이상 집단의 경우 휴식활동

참여 비율이 30% 내외의 수준으로 50대와 60대 집단에 비해 높았고, 사회활동 및 기타 역시 모든 연령집단 중 가장 비중이 컸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능력 및 건강이 약화되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령대가 젊은 중고령 및 연소노인 집단의 경우 활동성 있는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고령집단은 정적인 휴식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24〉 연령에 따른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50대	60대	70대 이상									
문화 예술	6.4	5.2	3.2	7.3	6.1	4.5	7.2	5.8	4.4	5.9	4.2	2.6
스포츠	9.2	7.5	5.9	9.5	7.8	6.3	8.5	7.1	5.8	8.2	7.5	5.8
관광	17.2	17.4	15.7	16.5	16.1	15.1	15.5	16.0	16.6	14.1	14.1	12.3
취미 오락	24.4	22.0	18.7	26.0	24.9	22.5	24.8	23.6	22.0	25.0	23.8	21.5
휴식	23.6	26.5	33.1	21.8	24.2	29.8	24.5	26.4	28.9	27.6	28.9	33.8
사회 및 기타	19.3	21.4	23.4	19.0	20.7	21.8	19.5	21.2	22.4	19.3	21.4	2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분석.

지역 구분에 따른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여가활동 유형을 분석하였다. 도시(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비도시(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여 여가활동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일부 항목에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났다. 문화예술 활동 비율은 대체로 도시지역이 비도시지역에 비해 더 높았고, 스포츠활동 역시 도시지역 중고령자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반면 휴식활동, 사회

활동 및 기타에서는 비도시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여가 활용자원이 지역에 따라 편중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3-25〉 지역에 따른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sup>1) 2)</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문화예술활동	5.8	4.0	6.4	6.0	6.4	5.5	5.1	3.4
스포츠활동	8.2	7.1	8.5	7.6	7.7	6.9	8.0	5.9
관광활동	16.9	17.0	15.9	16.4	15.6	16.4	13.9	13.2
취미오락활동	22.8	21.3	25.2	24.1	24.0	23.3	23.8	24.1
휴식활동	26.1	28.2	24.1	25.2	25.9	26.4	28.9	30.6
사회활동 및 기타	20.2	22.4	19.9	20.6	20.3	21.5	20.4	2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2) 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비도시: 읍·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분석.

## 나.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다음은 우리나라 고령자가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조사에서 휴식활동 참여 비율이 40% 내외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시간 흐름에 따라 2020년으로 올수록 휴식활동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관광활동 등 적극적 형태의 여가활동 참여 비율은 비교적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2020년에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기존 여가활동 참여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휴식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26〉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1~5순위)<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문화예술활동	2.9	3.6	3.0	2.3
스포츠활동	8.5	8.5	7.8	7.6
관광활동	3.5	2.9	4.0	2.9
취미오락활동	24.5	27.2	23.7	24.4
휴식활동	41.3	38.3	40.6	44.2
사회활동 및 기타	19.4	19.5	21.0	18.6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분석.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르면, 휴식활동·사회활동 및 문화예술활동 영역에서는 여성의 참여 비율이 남성보다 대체로 높았다. 반면 남성의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난 영역은 스포츠활동, 취미오락활동 등의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향은 모든 조사 시점에서 같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우리나라 고령자의 여가활동 영역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3-27〉 성별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문화예술활동	2.0	3.7	2.9	4.3	2.3	3.6	1.9	2.6
스포츠활동	10.7	6.5	11.1	6.0	10.5	5.4	10.1	5.5
관광활동	3.3	3.6	2.8	2.9	4.2	3.8	3.1	2.7
취미오락활동	28.5	20.8	30.3	24.3	26.4	21.2	26.9	22.2
휴식활동	39.1	43.3	36.1	40.5	38.5	42.5	41.9	46.2
사회활동 및 기타	16.4	22.1	16.9	21.9	18.1	23.5	16.1	2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분석.

연령 구분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은 70대 이상 고령자 집단일수록 휴식활동 및 사회활동 영역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대가 낮은 고령자 집단에서는 취미오락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의 여가활동 유형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영역의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연도별 구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28〉 연령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50대	60대	70대 이상									
문화 예술	3.6	2.8	2.1	4.4	3.5	2.6	3.8	2.8	1.9	2.9	2.0	1.5
스포츠	10.9	8.1	5.2	11.1	8.1	5.0	9.7	7.0	5.7	9.3	7.6	4.9
관광	3.6	3.5	3.2	3.1	2.8	2.6	4.1	4.2	3.6	3.3	3.0	2.1
취미 오락	29.3	23.9	17.8	31.4	27.2	21.2	27.8	23.3	17.6	28.6	23.8	18.3
휴식	35.4	41.6	49.7	32.5	38.3	47.0	35.5	41.4	47.8	40.2	44.3	50.7
사회 및 기타	17.2	20.2	21.9	17.5	20.1	21.7	19.1	21.3	23.6	15.7	19.4	2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 분석.

다음으로 지역 구분에 따라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에서 생활하는 비도시 중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활동 및 휴식활동 등의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지역 응답자는 비도시지역 응답자에 비해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취미오락활동 등에서 더 많은 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의 교통 및 여가환경 인프라 등의 특성에 따라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 유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광활동의 경우 연도별 지역 구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29〉 지역에 따른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유형<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문화예술활동	3.2	2.3	3.8	3.1	3.3	2.4	2.5	1.7
스포츠활동	9.3	6.5	9.2	6.9	8.4	6.4	8.3	5.6
관광활동	3.1	4.2	3.0	2.6	3.9	4.2	3.1	2.4
취미오락활동	25.5	22.0	28.3	24.7	24.4	22.2	24.8	23.4
휴식활동	40.6	43.0	37.1	41.1	40.2	41.4	43.7	45.7
사회활동 및 기타	18.3	22.1	18.5	21.6	19.9	23.4	17.8	2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 분석.

#### 다. 여가생활에 사용하는 한 달 평균 여가비용

우리나라 50세 이상 고령자의 한 달 평균 여가비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중고령자는 한 달에 평균 10만원 미만의 여가비용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0~20만원 미만, 20~49만원 미만, 50만원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과거 대비 2020년으로 올수록 10만원 미만 여가비용의 비중이 점차 증가했다. 반면 10~20만원 미만 집단의 비율은 조금 감소한 대신 5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의 여가비용을 투입하는 응답자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다. 즉 여가비용을 적게 사용하는 집단은 시간 경과에 따라 비용을 더 감축하는 반면, 고사용 집단은 더 많은 비용을 여가생활에 투입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이차 자료는 종단자료가 아닌 횡단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3-30〉 한 달 평균 여가비용<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10만원 미만	44.3	43.3	47.7	48.2
10~20만원 미만	34.5	32.1	25.8	26.0
20~49만원 미만	18.2	22.5	21.7	21.3
50만원 이상	3.0	2.2	4.8	4.5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분석.

우리나라 고령자의 한 달 평균 여가비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한 달 평균 여가비용 분포의 비율 차이가 연도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여성의 경우 10만원 미만 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아 여가비용 투입량이 적은 반면, 남성은 50만원 이상, 20~49만원 미만 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아 여가에 상대적으로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및 소득수준 등의 차이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표 3-31〉 성별 구분에 따른 한 달 평균 여가비용<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만원 미만	37.3	50.6	39.0	47.3	38.8	55.6	40.6	54.9
10~20 만원 미만	35.5	33.6	33.7	30.6	26.6	25.1	25.8	26.2
20~49 만원 미만	22.5	14.4	24.0	21.0	27.1	16.9	26.4	16.8
50만원 이상	4.7	1.4	3.3	1.0	7.5	2.4	7.1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 <sup>2</sup>	129.8***		56.9***		177.6***		155.5***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 : p < .0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 분석.

다음으로 연령별 한 달 평균 여가비용을 살펴보면, 성별과 마찬가지로 모든 조사시점에서 연령별 한 달 평균 여가비용 분포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60대 이상 연령집단일수록 여가에 10만원 미만 수준의 적은 여가비용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의 경우 대체로 10~20만원 미만, 20~49만원 미만의 여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 역시 경제활동 비중이 높은 50대 중장년층의 한 달 평균 여가비용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 한 달 평균 여가비용의 차이 역시 유의미하였다. 비도시 응답자의 한 달 평균 여가비용 분포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은 10만원 미만이었다. 도시지역의 경우 10~20만원 미만과 20~49만원을 지출하는 비율이 비도시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2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표 3-32〉 연령 구분에 따른 한 달 평균 여가비용<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50대	60대	70대 이상									
10만원 미만	30.9	42.7	65.9	30.6	41.1	64.2	33.9	45.0	72.1	34.6	46.5	72.0
10~20만원 미만	41.4	34.5	24.3	35.0	34.3	25.5	27.4	30.8	17.8	29.5	28.2	17.7
20~50만원 미만	23.5	20.1	8.4	30.9	22.4	9.9	31.4	20.6	7.7	29.7	20.5	9.0
50만원 이상	4.2	2.7	1.5	3.4	2.1	0.4	7.2	3.5	2.3	6.2	4.8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	406.9***			431.7***			505.0***			432.9***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2) \*\*\* :  $p < .0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분석.

〈표 3-33〉 지역 구분에 따른 한 달 평균 여가비용<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10만원 미만	40.9	52.5	39.6	51.6	42.6	58.4	45.0	57.5
10~20만원 미만	37.0	28.5	34.2	27.4	28.1	21.0	27.6	21.3
20~50만원 미만	19.2	15.9	23.8	19.4	23.8	17.2	23.0	16.4
50만원 이상	2.9	3.2	2.3	1.7	5.5	3.4	4.4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	54.1***		59.2***		97.5***		57.2***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2) \*\*\* :  $p < .0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분석.

## 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여가활동

우리나라 50세 이상 고령자 응답자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여가활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활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고령자의 스마트폰 여가활동 비중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개인이 즐기는 여가활동 유형에서 스마트폰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고령자의 스마트 기기 접근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고령자가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이 개발·보급될 필요가 있다.

〈표 3-34〉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활동<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웹서핑	31.1	21.3	17.2	17.7
모바일 메신저 <sup>2)</sup>	-	22.4	26.6	21.7
인터넷 방송·드라마·영화 시청, 게임, 사진촬영, 음악감상, SNS, 등 기타	28.4	29.6	28.5	33.4
사용 안 함	40.5	26.7	27.7	27.1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2) 2016년의 조사에서는 응답 범주에 모바일 메신저가 포함되지 않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분석.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모든 조사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활동의 내용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인터넷 방송·드라마·영

화 시청, 게임, 사진 촬영, 음악감상, SNS 등 기타 활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방송·드라마·영화 시청, 게임, 사진 촬영, 음악감상, SNS 등 기타 활동에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35〉 성별 구분에 따른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활동<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웹서핑	36.2	26.5	23.5	19.2	21.3	13.5	20.7	15.2
모바일 메신저 <sup>2)</sup>	-	-	22.0	22.8	24.7	28.3	21.3	22.1
인터넷 방송·드라마· 영화 시청, 게임, 사진촬영, 음악감상, SNS, 등 기타	27.3	29.4	29.3	29.9	30.6	26.6	36.0	31.2
사용 안 함	36.6	44.1	25.2	28.1	23.4	31.6	22.0	3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	51.9***		14.7**		76.9***		62.4***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2) 2016년의 조사에서는 응답범주에 모바일 메신저가 포함되지 않음.

\*\*\*:  $p < .001$ , \*\*:  $p < .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 분석.

연령 구분에 따른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가활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용 안 함’ 비율이 70대 이상 고령자 집단일수록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70대 이상 집단 역시 2016년 사용 안 함 비율 81.9%에서 2020년에는 68.8%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연령이 높은 고령자 집단에서도 스마트폰 등의 기기 활용 능력 및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 3-36〉 연령별 구분에 따른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활동<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50대	60대	70대 이상	50대	60대	70대 이상	50대	60대	70대 이상	50대	60대	70대 이상
웹서핑	47.8	30.2	7.2	32.7	18.6	7.3	26.1	14.9	5.7	25.6	17.6	5.5
모바일 메신저 <sup>2)</sup>	-	-	-	25.2	26.9	13.5	31.0	31.3	14.7	24.3	26.6	12.0
기타 <sup>3)</sup>	41.2	26.7	10.9	37.0	31.5	16.7	37.1	29.5	14.0	44.6	35.1	13.7
사용 안함	11.0	43.1	81.9	5.0	23.1	62.6	5.9	24.3	65.6	5.6	20.7	6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 <sup>2</sup>	1645.5***			1450***			1358.8***			1526.2***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2) 2016년의 조사에서는 응답범주에 모바일 메신저가 포함되지 않음.

3) 인터넷 방송·드라마·영화 시청, 게임, 사진촬영, 음악감상, SNS, 등

\*\*\*:  $p < .0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분석.

지역 구분에 따른 스마트폰 기반 여가활동의 차이 역시 유의미한 특성이 발견되었는데, 비도시에 비해 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연도별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자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가활동 참여 비율은 시간 흐름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 비율이 높지는 않아서 향후 사회환경 변화 흐름에 맞추어 스마트 기기 접근성 및 활용역량 등의 지역 간 격차 축소를 위한 개입이 요구된다.

〈표 3-37〉 지역 구분에 따른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활동<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웹서핑	35.4	20.4	22.0	19.8	19.2	12.9	19.6	12.4
모바일 메신저 <sup>2)</sup>	-	-	23.9	18.9	28.8	22.0	22.4	19.8
인터넷 방송·드라마·영화 시청, 게임, 사진촬영, 음악감상, SNS, 등 기타	31.3	21.1	31.3	25.9	30.3	24.6	35.8	26.7
사용 안 함	33.3	58.5	22.8	35.5	21.7	40.4	22.2	4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	250.6***		84.8***		171.2***		158.1***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2) 2016년의 조사에서는 응답범주에 모바일 메신저가 포함되지 않음.

\*\*\*:  $p < .0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 분석.

## 마. 여가활동 만족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50세 이상 고령자의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을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는 비율과 불만족하는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국민의 여가활동 참여에 큰 제약이 발생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자신이 즐기던 여가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졌고,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 역시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38〉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만족	57.9	50.3	56.6	48.9
불만족	42.1	49.7	43.4	51.1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 <sup>2)</sup>	4.61	4.40	4.63	4.42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2) 7점 척도(1=매우 불만족, 4=보통, 7=매우 만족/1~4점: 불만족, 5~7점: 만족으로 구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 분석.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도별 추이 역시 앞의 분석 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표 3-39〉 성별 구분에 따른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만족	55.7	59.9	48.3	52.2	57.0	56.2	49.1	48.8
불만족	44.3	40.1	51.7	47.8	43.0	43.8	50.9	5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	8.4**		7.4*		0.3		0.02	
평균 <sup>2)</sup>	4.58	4.64	4.36	4.43	4.64	4.62	4.44	4.40
t	-1.90		-1.87		0.06		1.13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 :  $p < .001$ , \*\* :  $p < .01$ , \* :  $p < .0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 분석.

연령별 여가활동 만족도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은 고령자 집단의 만족 비율이 2016~2020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이는 고령자 집단의 여가활동 유형은 주로 휴식활동 등 정적인 내용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 환경 변화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50대 중장년 집단의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아 향후 해당 세대의 여가활동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표 3-40〉 연령별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50대	60대	70대 이상	50대	60대	70대 이상	50대	60대	70대 이상	50대	60대	70대 이상
만족	54.6	61.2	59.7	48.7	51.3	51.6	54.2	55.6	61.3	46.7	48.7	52.8
불만족	45.4	38.8	40.3	51.3	48.7	48.4	45.8	44.4	38.7	53.3	51.3	4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 <sup>2</sup>	16.4***			3.6			15.8***			10.9**		
평균	4.53	4.70	4.64	4.37	4.43	4.41	4.55	4.58	4.80	4.34	4.42	4.55
t	9.47***			1.03			19.25***			11.10***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 p < .001, \*\*: p < .01, \*: p < .0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 분석.

거주지역에 따른 고령자의 여가활동 만족도를 보면, 도시와 비도시의 만족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만족도 수준이 비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가활동 참여 비율 차이, 한 달 평균 여가비용 수준 등의 특성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여가활용에서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 격차 또는 간격을 축소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표 3-41〉 지역별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sup>1)</sup>

(단위: %)

구분	2016		2018		2019		2020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만족	60.4	51.8	52.8	44.7	59.3	50.8	51.0	43.0
불만족	39.6	48.2	47.2	55.3	40.7	49.2	49.0	5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	28.4 <sup>***</sup>		26.6 <sup>***</sup>		28.1 <sup>***</sup>		21.6 <sup>***</sup>	
t	5.30 <sup>***</sup>		5.77 <sup>***</sup>		5.22 <sup>***</sup>		2.86 <sup>**</sup>	

주: 1)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중응답 분석함. 연도별로 2016년 4,601명, 2018년 4,786명, 2019년 4,403명, 2020년 4,401명임

\*\*\*:  $p < .001$ , \*\*:  $p < .01$ , \*:  $p < .0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분석.

## 2. 교육활동

### 가. 평생학습 참여율

성인의 평생학습 개념은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으로 구분된다. 형식교육은 국가인정체제로서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방식의 학교 교육으로 졸업장,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정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과정, 대학(교) 등을 포함한다. 반면 비형식교육은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을 말한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 여기서는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을 모두 포함한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평생학습 참여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8.0%, 2018년

33.9%, 2019년 35.1%로 계속 증가하다가, 2020년에 32.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 고령자의 전반적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30% 내외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그러나 최근 조사로 올수록 여성과 남성의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가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남성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55~64세 집단이 65~79세 집단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고령자 집단일수록 평생학습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대도시와 농어촌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중소도시 집단의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평생학습 참여에서 농어촌에 비해 중소도시 거주자의 접근성이 오히려 낮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여진다.

〈표 3-42〉 평생학습(형식·비형식) 참여율<sup>1)</sup>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 참여율		28.0	33.9	35.1	32.0
성별	남	22.4	27.8	30.7	29.3
	여	33.2	39.5	39.3	34.4
연령별	55~64세	28.9	34.8	37.1	33.9
	65~79세	26.9	32.7	32.5	29.5
지역별	대도시	28.5	33.5	36.2	34.2
	중소도시	26.9	31.1	35.5	27.7
	농어촌	28.9	38.7	31.8	34.6

주: 1) 55~79세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연도별로는 2017년 4,513명, 2018년 4,548명, 2019년 3,865명, 2020년 3,861명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22).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2017~2020). 2022. 07. 28. 인출. 원자료 재분석.

## 나. 평생학습 참여영역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평생학습 참여영역을 분석하였다. 앞의 분석에서는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을 모두 포함한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을 살펴보았으나, 여기서는 비형식교육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평생학습 참여영역을 분석하였다.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경우 학교에서 이뤄지는 형식교육의 참여 비율이 낮고, 대부분의 학습내용이 비형식교육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비형식교육 참여영역은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 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시민참여교육의 5개로 구분된다.

5개 참여영역 중에서는 문화예술스포츠교육 비율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다. 연도별로는 2017년 15.4%, 2018년 18.1%, 2019년 18.9%로 계속 증가하다가 2020년 15.5%로 감소했다. 전체 평생학습 참여율 추이와 같이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련 교육 참여가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로는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높고, 연령별로는 65~79세 고령자 집단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역 구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또는 일정한 동향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대도시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능력향상교육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와 관계없이 2017년(6.8%)부터 2020년(11.0%)까지 참여율이 계속 유지 또는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최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의 일자리 관련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되며, 향후 고령자의 직업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 욕구는 계속 증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고, 55~64세 집단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그렇지만 65~79세 집단의 직업능력향상교육 참여율

역시 시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거주자의 참여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높은 참여영역은 인문교양교육으로 2017~2019년 동안 7.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에 6.7%로 소폭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별 집단의 참여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참여율이 감소하는 반면, 중소도시 및 농어촌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밖에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교육, 시민참여교육 영역의 참여율은 1%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성별, 연령별, 지역별 구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43〉 평생학습(비형식교육) 참여영역<sup>1)</sup>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성인기초 및 문자해독 교육	전체	<b>0.2</b>	<b>0.2</b>	<b>0.2</b>	<b>0.3</b>
	남	0.1	0.0	0.2	0.0
	여	0.4	0.3	0.8	0.7
	55~64세	0.1	-	0.3	0.0
	65~79세	0.5	0.4	1.0	0.7
	대도시	0.1	-	0.4	0.1
	중소도시	0.2	0.2	0.4	0.2
	농어촌	0.6	0.6	1.0	1.1
직업능력 향상교육	전체	<b>6.8</b>	<b>10.2</b>	<b>9.7</b>	<b>11.0</b>
	남	10.1	14.3	14.0	15.5
	여	3.7	6.4	5.6	6.9
	55~64세	9.2	13.8	12.8	14.8
	65~79세	3.6	5.4	5.7	6.2
	대도시	5.5	7.6	8.5	11.7
	중소도시	7.4	9.3	8.7	8.5
	농어촌	8.2	16.6	13.1	13.8

구분		2017	2018	2019	2020
인문교양 교육	전체	7.4	7.4	7.4	6.7
	남	5.3	5.7	6.3	5.4
	여	9.4	9.0	8.5	7.8
	55~64세	7.4	6.3	7.4	6.8
	65~79세	7.4	8.8	7.5	6.5
	대도시	9.7	9.2	7.6	6.8
	중소도시	5.3	6.4	9.7	6.3
	농어촌	6.1	5.4	3.6	7.0
문화예술 스포츠교육	전체	15.4	18.1	18.9	15.5
	남	7.6	8.9	11.3	10.2
	여	22.6	26.7	26.0	20.4
	55~64세	14.5	16.4	18.2	13.8
	65~79세	16.7	20.4	19.7	17.6
	대도시	14.9	18.8	21.9	16.8
	중소도시	16.3	16.9	17.3	14.2
	농어촌	15.1	18.5	15.8	14.8
시민참여 교육	전체	0.8	1.1	0.8	0.8
	남	1.0	1.0	0.9	0.9
	여	0.6	1.3	0.7	0.7
	55~64세	0.9	0.9	1.0	0.8
	65~79세	0.6	1.4	0.5	0.7
	대도시	0.4	0.5	0.6	0.4
	중소도시	0.7	1.1	0.8	0.8
	농어촌	1.7	2.4	1.1	1.5

주: 55~79세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연도별로는 2017년 4,513명, 2018년 4,548명, 2019년 3,865명, 2020년 3,861명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22).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2017~2020). 2022. 07. 28. 인출. 원자료 재분석.

## 다. 평생학습 성과

다음은 영역별로 고령자의 평생학습 성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평생학습 성과 영역은 크게 건강관리,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 교양 함양이나 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취업·이직·창업에 도움,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안정(일자리 유지), 사회참여(자원봉사 및 지역·사회적 활동), 친목도모 증진 등의 9개 내용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고령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평생학습의 성과는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로 나타났다. 2017년에서 2020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심리적 만족감 및 행복감 증대' 성과 점수가 85점 이상을 기록했다. 평생교육 참여가 고령자 개인의 일상생활 또는 물리적 차원의 상태 변화에 앞서, 심리·정서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양 함양이나 지식습득 등 자기계발, 건강관리, 친목도모 증진의 성과 점수는 대체로 70점 이상을 기록하여 평생학습(비형식교육)에 참여했을 때 고령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만 건강관리의 경우 2017년 73.3점, 2018년 74.3점, 2019년 72.8점, 2020년 69.2점으로 시간 변화에 따라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평생학습의 여러 가지 성과 중 '도움 됨'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내용은 취업·직업생활 등 일자리 분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분석의 주요 연령집단 대상이 55~64세, 65~79세의 중고령 집단으로 일자리 참여의 기회 자체가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연령별 집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이직·창업에 도움'의 경우 2020년 기준 55~64세 집단은 55.2점, 65~79세 집단은 39.3점을 기록했다. 또 다른 성과 중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 역시 2020년 기준 55~64세 집단에서는 73.0점, 64~79세 집단은 55.5점으로 나타나 젊은 연령집단의 경

우 일자리 측면의 평생학습 성과가 나뉠대로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65~79세 고령자 집단의 직업 관련 성과 역시 최근으로 올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의 경우 65~79세 집단에서는 2017년 36.0점, 2018년 44.2점, 2019년 46.0점, 2020년 55.5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오늘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일자리 및 소득보장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평생학습 참여의 성과 역시 계속 증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4〉 평생학습(비형식교육) 성과<sup>1)</sup>

(단위: 점)

구분		2017	2018	2019	2020
건강관리	전체	<b>73.3</b>	<b>74.3</b>	<b>72.8</b>	<b>69.2</b>
	남	61.3	59.9	63.3	60.8
	여	80.8	83.6	79.7	76.0
	55~64세	67.7	68.4	70.3	64.6
	65~79세	81.3	82.5	76.5	76.0
	대도시	72.2	78.3	74.3	71.9
	중소도시	75.4	75.9	76.5	73.5
	농어촌	72.3	65.4	64.8	58.0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	전체	<b>88.2</b>	<b>86.6</b>	<b>87.0</b>	<b>85.8</b>
	남	79.8	78.2	80.8	79.0
	여	93.5	92.1	91.5	91.2
	55~64세	85.7	83.9	85.1	81.5
	65~79세	91.8	90.5	89.9	92.1
	대도시	88.6	88.4	90.1	84.9
	중소도시	89.9	90.1	86.2	88.7
	농어촌	85.0	79.4	80.5	83.7

106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구분		2017	2018	2019	2020
교양 함양이나 지식습득 등 자기계발	전체	<b>71.6</b>	<b>73.5</b>	<b>67.4</b>	<b>74.0</b>
	남	74.1	73.3	69.4	74.4
	여	70.0	73.7	66.0	73.7
	55~64세	73.4	74.5	67.6	73.2
	65~79세	68.9	72.2	67.2	75.1
	대도시	71.7	76.6	69.0	70.1
	중소도시	76.8	73.9	65.4	76.4
	농어촌	63.1	67.9	67.8	78.6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전체	<b>31.2</b>	<b>35.8</b>	<b>45.6</b>	<b>50.2</b>
	남	41.7	43.0	51.1	56.8
	여	22.8	29.1	39.2	42.5
	55~64세	34.8	39.4	49.3	55.2
	65~79세	24.2	28.8	38.0	39.3
	대도시	29.8	36.9	46.0	51.3
	중소도시	35.9	39.4	44.8	48.0
	농어촌	26.7	30.4	45.6	50.9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	전체	<b>49.8</b>	<b>55.0</b>	<b>57.1</b>	<b>67.4</b>
	남	65.5	67.3	61.1	77.5
	여	36.1	43.2	52.2	54.8
	55~64세	56.5	60.6	62.2	73.0
	65~79세	36.0	44.2	46.0	55.5
	대도시	44.4	50.7	52.9	67.3
	중소도시	51.1	55.9	56.2	64.9
	농어촌	58.8	60.5	67.8	70.9
성과금, 연봉 등 소득 증대	전체	<b>26.9</b>	<b>33.4</b>	<b>33.3</b>	<b>42.0</b>
	남	36.1	42.0	33.7	49.9
	여	19.1	25.1	32.9	32.4
	55~64세	30.3	37.2	39.5	43.5
	65~79세	19.9	26.1	20.2	38.9
	대도시	27.6	29.4	36.2	38.5
	중소도시	25.5	41.6	30.1	42.9
	농어촌	27.5	30.7	32.8	47.3

구분		2017	2018	2019	2020
고용안정 (일자리 유지)	전체	<b>40.8</b>	<b>48.3</b>	<b>50.1</b>	<b>59.8</b>
	남	57.6	59.3	55.2	68.5
	여	26.4	37.7	43.9	49.6
	55~64세	45.4	53.7	53.4	65.6
	65~79세	31.6	37.9	42.8	47.9
	대도시	38.2	46.6	52.9	61.1
	중소도시	42.3	48.8	46.9	58.3
	농어촌	44.3	50.5	49.9	59.3
사회참여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적 활동)	전체	<b>54.1</b>	<b>62.0</b>	<b>56.0</b>	<b>62.0</b>
	남	48.2	60.2	49.6	60.4
	여	57.7	63.3	60.6	63.2
	55~64세	53.0	62.2	57.0	60.4
	65~79세	55.6	61.9	54.4	64.2
	대도시	53.7	64.1	57.2	57.1
	중소도시	54.8	65.0	56.5	69.3
	농어촌	53.6	55.0	51.6	62.0
친목도모 증진	전체	<b>75.9</b>	<b>77.2</b>	<b>75.5</b>	<b>76.1</b>
	남	61.1	70.4	65.7	69.4
	여	85.1	81.7	82.6	81.4
	55~64세	72.1	72.9	72.7	72.3
	65~79세	81.2	83.3	79.6	81.6
	대도시	74.4	78.6	74.9	73.3
	중소도시	75.8	76.0	78.0	80.8
	농어촌	79.2	76.3	71.2	75.2

주: 1) 55~79세 응답자 중 평생학습 참여 성과 문항에 응답한 사례만 분석함. 연도별로는 2017년 1,230명, 2018년 1,496명, 2019년 1,304명, 2020년 1,240명임.

2) 5점 척도로(1=전혀 도움 안 됨, 3=보통, 5=매우 도움됨/1~3점: 도움 안 됨, 4~5점: 도움됨으로 구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22).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2017~2020). 2022. 07. 28. 인출. 원자료 재분석.

### 3. 자원봉사

#### 가. 자원봉사 등록 현황

1365자원봉사포털에 게시된 연도별 자원봉사 통계 자료를 활용해 관련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원봉사 등록 현황을 등록인원, 실인원, 연인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50세 이상 고령자의 인원은 2017년 약 258만명에서 2021년에 366만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인원 및 연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인원의 경우 2017년 1271만명에서 2019년 1156만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20년부터는 653만명대로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인원 역시 2017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114만명에서 46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과 2021년의 자원봉사 실인원과 연인원의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이 제한적이었다고 일부 해석할 수 있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인원과 연인원이 감소한 추이를 보면 코로나19와 관계없이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45〉 고령자의 연도별 자원봉사 인원(수) 현황<sup>1)</sup>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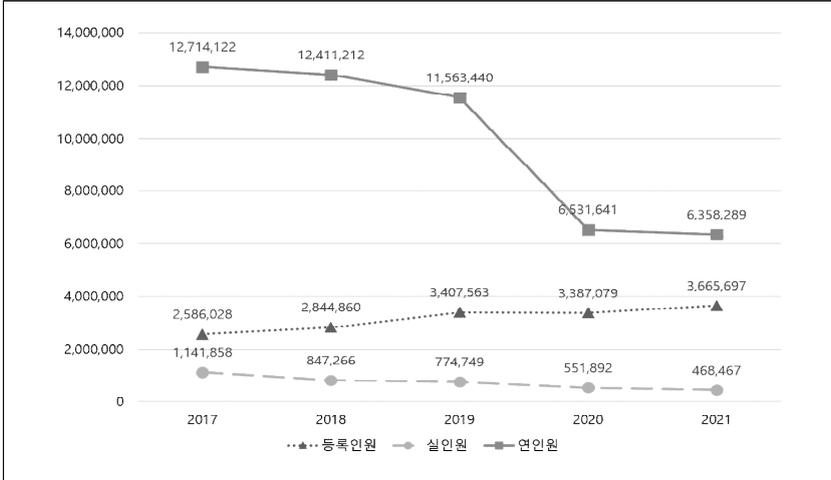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등록인원	2,586,028	2,844,860	3,407,563	3,387,079	3,665,697
실인원	1,141,858	847,266	774,749	551,892	468,467
연인원	12,714,122	12,411,212	11,563,440	6,531,641	6,358,289

주: 1) 1365 자원봉사포털 연도별 자원봉사 통계(2017: 2018: 2019: 2020: 2021) 자료 중 5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재분석.

자료: 1365자원봉사포털. (2022). 자원봉사 통계(2017~2021). <https://www.1365.go.kr/vols/1472177522467/srvcgud/volsStats.do>에서 2022. 10. 18. 인출. 원자료 재분석.

[그림 3-5] 연도별 자원봉사 인원 현황<sup>1)</sup>

(단위: 명)



주: 1) 1365자원봉사포털 연도별 자원봉사 통계(2017; 2018; 2019; 2020; 2021) 자료 중 5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재분석.

자료: 1365자원봉사포털. (2022). 자원봉사 통계(2017~2021). <https://www.1365.go.kr/vols/1472177522467/srvcgud/volsStats.do>에서 2022. 10. 18. 인출. 원자료 재분석.

다음으로 성별 및 연령별 자원봉사 인원 비율 현황을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여성 자원봉사 인원이 등록인원, 실인원, 연인원 비율 모두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자원봉사 등록 현황을 보면 여성의 경우 60% 내외, 남성의 경우 40% 내외를 기록했다. 50대와 60대 이상 집단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연령집단 구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등록인원과 실인원 비율에서는 50대가 소폭 높았고, 연인원 비율에서는 두 집단이 비슷하거나 60대 이상이 조금 높았다.

〈표 3-46〉 성별·연령별 자원봉사 인원(비율) 현황<sup>1)</sup>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등록	실	연												
인원															
남	43.0	40.9	38.9	43.1	40.0	38.0	56.9	39.5	36.9	43.2	38.7	41.0	43.2	38.0	39.2
여	57.0	59.1	61.1	56.9	60.0	62.0	43.1	60.5	63.1	56.8	61.3	59.0	56.8	62.0	60.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대	11.3	12.0	20.3	11.4	10.6	20.0	13.2	10.0	19.0	11.7	12.6	22.2	12.0	12.6	21.2
60대 이상	10.2	11.4	20.2	10.7	9.2	20.6	11.5	8.5	20.7	12.0	12.1	24.5	12.9	12.6	25.4
계	<b>21.5</b>	<b>23.4</b>	<b>40.5</b>	<b>22.2</b>	<b>19.7</b>	<b>40.5</b>	<b>24.7</b>	<b>18.5</b>	<b>39.7</b>	<b>23.8</b>	<b>24.7</b>	<b>46.7</b>	<b>24.9</b>	<b>25.1</b>	<b>46.6</b>

주: 1) 1365 자원봉사포털 연도별 자원봉사 통계(2017~2021) 자료 중 5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재분석.

자료: 1365자원봉사포털. (2022). 자원봉사 통계(2017~2021). <https://www.1365.go.kr/vols/1472177522467/srvcgud/volsStats.do>에서 2022. 10. 18. 인출. 원자료 재분석.

## 나. 자원봉사 참여 현황

우리나라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두 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다. 참여율 분석 결과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에서는 지난 4년 동안 대략 8~10% 수준을 보였고,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약 7~9%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참여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는 55~79세의 중고령자를, 국민여가활동조사는 50대 이상의 중고령자를 조사대상으로 했다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높았고, 55~64세 인구집단보다는 65~79세 인구집단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변화 추세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표 3-47〉 자원봉사활동 참여율(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자료 분석)<sup>1)</sup>

(단위: 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응답자 수		4,513	4,548	3,865	3,861
전체 참여율		<b>10.1</b>	<b>8.4</b>	<b>8.4</b>	<b>8.4</b>
성별	남	8.8	6.1	6.7	7.2
	여	11.2	10.5	9.9	9.4
연령별	55~64세	11.8	9.7	9.8	8.7
	65~79세	7.9	6.7	6.6	8.0
지역별	대도시	10.2	7.6	7.7	8.4
	중소도시	10.3	6.6	8.8	7.1
	농어촌	9.3	12.7	9.3	10.3

주: 1) 55~79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재분석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22).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2017~2020). 2022. 07. 28. 인출. 원자료 재분석.

〈표 3-48〉 자원봉사활동 참여율(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sup>1)</sup>

(단위: 명, %)

구분		2016	2018	2019	2020
응답자 수		4,601	4,786	4,403	4,401
전체 참여율		<b>9.5</b>	<b>6.3</b>	<b>8.2</b>	<b>7.0</b>
성별	남	8.2	5.3	7.8	6.9
	여	10.6	7.2	8.6	7.1
연령별	50대	11.6	7.1	10.4	8.4
	60대	10.9	7.0	8.4	8.4
	70대 이상	4.9	4.2	4.7	3.1
지역별	대도시	7.8	5.1	6.6	6.7
	중소도시	11.8	7.9	9.6	6.4
	농어촌	9.2	6.3	9.1	8.3

주: 1) 5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재분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분석.

한편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자료를 활용해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분야를 추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고령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분야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이 있는 복지시설에서의 봉사로 2020년 기준 35.2%를 기록했다. 그러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51.2%에서 2020년 35.2%로 감소하였다. 이는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가 전통적 사회복지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보전·범죄예방 등의 분야가 20% 내외의 수준으로 뒤를 이었고, 일반인을 위한 봉사와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복구가 10% 내외 수준을 기록해 높게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참여영역은 2016년 대비 최근 2020년에 이르러 고령자의 참여가 꾸준히 증가한 분야로 평가된다.

〈표 3-49〉 자원봉사활동 참여 분야(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 분석)<sup>1)</sup>

(단위: 명, %)

구분	2016	2018	2019	2020
응답자 수	4,601	4,786	4,403	4,401
문화자원봉사	5.2	5.5	4.1	5.0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	20.0	30.5	16.6	24.8
국가 및 지역행사 등	10.5	13.6	10.2	9.1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51.2	30.2	39.5	35.2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복구 등	4.8	10.8	11.7	12.9
일반인을 위한 봉사(무료상담, 아이돌봄)	8.3	9.3	17.9	12.9
계	100.0	100.0	100.0	100.0

주: 1) 50세 이상 고령자 대상, 다중응답 분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2022. 05. 11. 인출. 원자료 재분석.

###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참여 현황을 과거와 현재까지의 특성 변화를 중심으로 이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경제활동인구 고령자 부가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 현황은 ‘여가활동’, ‘교육활동’, ‘자원봉사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활동에 대해 국민여가활동조사,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자원봉사 통계 원자료를 이차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이차자료에 따라 50세 이상 또는 55~79세 고령자로 차이가 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첫째, 지난 10년간 55세 이상 및 65세 이상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그리고 실업률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년기 또는 은퇴 이후의 삶은 노동에서 벗어나 여가와 자아실현을 추구한다는 전통적인 개념은 열어지고, 은퇴 이후의 삶의 방식에서 경제활동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노동환경도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 맞춰 개편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지난 10년간 고령 취업자의 경제활동 참여 양상은 임금근로자는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10년간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령자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감소하였으며, 75세 미만 연령대는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한 반면, 75세 이상 연령대는 임시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고용률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고령 취업자의 직업분류에서는 지난 10년간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반면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감소는 자영업자의 감소와 이어지며, 75세 미만 임금근로자는 사무종사자 또는 서비스 종사자가 상용직으로 이동하지만, 75세 이상 근로자는 단순노무직의 임시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고령 임금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일일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도 적지 않았다. 직업분류를 보면, 55~64세 임금근로자의 직업군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에 제약이 생겨 직업군이 단순노무직, 사무직 중심으로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근로시간이 적어져서 급여 수준도 감소하여 55~64세는 월평균 280만원, 65세 이상은 월평균 22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각각 60세 이상, 64세 이상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러한 적용대상자를 제외하고도 55~64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는 90% 미만으로 나타나 임금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어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가 발견되었다.

넷째, 고령자의 68.5%는 앞으로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하고자 하는 이유는 생활비 마련이 가장 많았으며, 일을 선택할 때 '일의 양과 시간대', '임금수준', '계속근로 가능성' 등이 주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는 55~64세까지는 전일제 비율이 높고, 65~69세는 전일제와 시간제 비율이 유사하였지만, 70세 이상에서는 시간제 희망 비율이 증가하였다. 55세 이상 고령자가 생각하는 은퇴 연령은 73세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희망하는 은퇴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고령자의 사회활동과 관련한 주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사회활동이 감소하였다. 이는 여가활동, 교육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3개 영역 전체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특성이다. 연도별 사회활동 참여 경향을 살펴보면, 시간 흐름에 따라 최근 조사 시점에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차자료는 종단자료가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둘째, 위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령자의 여가활동 참여 방식에 변화가 생겼음을 발견할 수 있다. 스포츠·관광·문화예술 등의 참여율이 낮아지는 반면, 가정 등에서 혼자 하는 단순 휴식활동 비율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여가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휴식활동의 내용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여가활동과 결합될 여지가 많다. 분석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인터넷 방송, 드라마, 영화시청, 음악감상 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스마트 기기 접근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 특성별 고령자의 여가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부 분석 결과 도시(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비도시(읍·면·농어촌) 지역 간 여가활동 참여 유형이 상이했다. 가령 비도시 고령자는 도시 고령자에 비해 문화예술·스포츠·취미오락 등의 여가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가활동 만족도 역시 비도시가 도시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도시의 교통 상황에 따른 낮은 접근성, 여가활동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취업 등 일자리 관련 평생학습교육의 고령자 참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 최근 고령자의 일자리 관련 욕구가 평생학습 비형식교육의 영역에서도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물론 55~64세 중고령 집단의 참여율이 65~79세 고령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65~79세 고령집단의 참여율 역시 계속 증가하였다. 또 평생학습의 성과 측면에서도 ‘취업·이직·창업에 도움’,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 등의 응답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섯째,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연도별 자원봉사 인원 현황은 2020년 코로나 시기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인구사회 특성 및 욕구를 고려해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에서도 전통적 자원봉사 영역인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 봉사 참여율은 감소하고, 타 영역으로 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신노년층의 욕구를 고려하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개발하여 향후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를 재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제4장

### 고령자의 경제활동 정책 모니터링

제1절 고령자의 경제활동 정책 추진현황

제2절 고령자의 경제활동 정책 모니터링

제3절 소결



## 제4장 고령자의 경제활동 정책 모니터링

### 제1절 고령자의 경제활동 정책 추진현황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에 의하면,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추진과제는 총 20개로,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정책과 퇴직인력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된다.

〈표 4-1〉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과제

5 신중년의 품격 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5-1-가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계속고용장려금)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임금체계 개편 지원)
5-1-나	신체능력 저하 등을 고려한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5-1-다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5-1-라	계속고용과 관련된 증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
	계속고용과 관련된 증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사회적 공감대 확산)
5-2-가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5-2-나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신중년 재취업)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기술인력)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연구인력)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연구인력)
5-2-다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 소상공인 창업/재기 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 소상공인 창업/재기 지원(희망리턴패키지)
5-3-가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학기술 분야)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반도체 분야)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ICT 분야)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산업디자인 분야)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AI 학습 데이터)
5-3-나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기업 정부 간 협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활동 연계

## 1. 계속고용 지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고령자의 계속고용 지원 정책은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장려금(인건비) 지원 사업,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세대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고령자의 신체기능 저하를 고려한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고용과 관련한 연령차별 구제제도 개선,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 등이 세부 계획으로 포함된다.

### 가.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계속고용 지원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계속고용 지원사업으로는 계속고용장려금과 임금체계 개편 지원이 있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을 통해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지원은 근속연수에 기반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완화하여 세대별 임금 격차를 줄여 고령자 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주요 내용은 임금정보(사업체 규모, 산업, 직업, 학력,

연령, 성, 근속연수, 직급별 임금정보) 공개, 임금정보 확대,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배포, 직무평가도구 개발, 임금/평가체계 컨설팅,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이 포함된다.

사업별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계속고용장려금(인건비) 지원 사업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지원 근로자 수’를 성과지표로 하며 구체적인 수치는 2021년 1,050명, 2022년 1,150명, 2023년 1,270명, 2024년 1,400명, 2025년 1,550명으로 점진적으로 목표치를 높이고 있다.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100인 이상 사업체 호봉급 운영 비율 축소 비율’이며, 2021년 56.7%를 시작으로 2025년에는 52.7%로 그 비율을 점차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4-2〉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

주요 사업내용	성과지표 및 목표	예산(백만원) <sup>1)</sup> (2021~2025)	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계속고용장려금(인건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지원 근로자 수</li> <li>2021년 1,050명 → 2025년 1,550명</li> </ul>	- 국비: 99,086 (국비 100%)	-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정보 제공, 임금분포 현황 공표, 직무평가도구 및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임금평가체계 컨설팅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인 이상 사업체 호봉급 운영 비율 축소 비율</li> <li>2021년 56.7% → 2025년 52.7%</li> </ul>	- 국비: 3,865 (국비 100%)	-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임금직무혁신센터)

주: 1) 연도별(2021~2025년) 예산의 총합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p. 1198~1208.

## 나. 신체능력 저하 등을 고려한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정년에 가까운 고령 근로자는 신체능력 또는 기능의 저하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일과 삶의 건강한 균형이 요구되는 생애주기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해당 제도를 도입 및 활용하겠다고 신청하면, 고용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사업주에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성과지표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인원’이며 2021년 10,000명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12,155명까지 지원 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유연근무제 지원 인원’이며, 2021년 10,935명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20,000명으로 성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금<sup>18)</sup>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95,87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제시된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 확산 과제는 고령자의 신체능력 저하 등을 고려한 근로형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문화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거나 계속고용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8)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활용근로자 1인당 기준에 따라 최대 1년간 360만원 지원(고용노동부, 2022a, pp. 37~38).

〈표 4-3〉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주요 사업내용	성과지표 및 목표	예산(백만원) <sup>1)</sup> (2021~2025)	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지원 인원</li> <li>2021년 10,000명 → 2025년 12,155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96,373</li> <li>- (워라벨일자리 장려금)</li> </ul>	-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인원</li> <li>'21년 10,935명 → '25년 20,00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195,874</li> <li>-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지원금)</li> </ul>	- 고용노동부

주: 1) 연도별(2021~2025년) 예산의 총합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p. 1209~1212.

#### 다.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과제는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경험한 개인이 연령차별 금지 관련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법령에서는 모집이나 채용, 근로조건 등에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의6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 조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의6 제2항). 그러나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을 내릴

수 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7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23조의2). 결국 연령차별을 겪었을 때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차별 금지 관련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과제로 하였다.

〈표 4-4〉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주요 사업내용	성과지표 및 목표	예산(백만원) (2021~2025)	담당 부처
• 법 개정(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구제신청f)	• 법 개정 노력 및 법안 통과	- 비예산	- 고용노동부

주: 1) 연도별(2021~2025년) 예산의 총합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p. 1213~1215.

## 라. 계속고용과 관련된 중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

계속고용 등 고용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인구구조 및 합리적 임금체계 논의 등을 위한 정책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포럼 등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4차 기본계획이 추진되는 5년간(2021~2025년)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나 성과지표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

〈표 4-5〉 계속고용 관련 중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

주요 사업내용	성과지표 및 목표	예산(백만원) (2021~2025)	담당 부처
• 고용연장 관련 정책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 해당 없음	- 비예산	- 고용노동부
• 합리적 임금체계 개선 관련 전문가 포럼, 대국민 홍보	• 해당 없음	- 비예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p. 1216~1221.

## 2. 퇴직 후 재취업 및 창업 지원

퇴직 후 재취업 및 창업 지원은 퇴직을 앞둔 중장년 이상의 대상자가 전직을 준비하거나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 자영업 등 창업 준비 등에 대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고용장려금,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 가.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사업은 중장년일자 리희망센터를 중심으로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전직지원서비스(퇴직 예정자 대상의 전직스쿨 프로그램, 구직자 대상의 재도약 프로그램), 생애경력설계 서비스(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사업의 경우 ‘취·창업지원’,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참여자’를 성과지표로 하며 ‘취·창업지원’의 성과 목표치는 2021년 40천명에서 2025년 60천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2021년 40천명에서 25천명으로 성과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4-6〉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내용	성과지표 및 목표	예산(백만원) <sup>1)</sup> (2021~2025)	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li> <li>• 전직지원서비스 제공</li> <li>• (사업수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li> </ul>	1) 취·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40천명 → 2025년 60천명</li> </ul> 2) 생애경력 설계 프로그램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40천명 → 2025년 25천명</li> </ul>	- 국비: 98,903 (국비 100%)	- 고용노동부 - 노사발전재단 등

주: 1) 연도별(2021~2025년) 예산의 총합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p. 1222~1228.

## 나.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는 4개의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중년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퇴직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퇴직전문인력 DB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에 적합한 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 신중년 재

취업과 관련한 사업의 성과지표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승인 인원 수'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8천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경우 기업별 최대 3명까지 1인당 1,300여만원 이내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연구원, 대학, 기업 등의 고경력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연봉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278명에서 매년 30명씩 증가하여 2025년에는 40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인력 지원사업은 '사업참여자'를 성과지표로 하고, 2021년에 240명,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50명 달성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다. 연구인력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연구인력 부족 완화 기여도'이며 2025년까지 기여도 점수를 83.9점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R&D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 중견기업(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기술전문경력인 20명을 대상으로 최대 3년 계약연봉의 40% 이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연구인력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는 '지원기업 만족도'이고, 2021년 80.0점에서 2025년까지 만족도 점수를 86.6점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 주도의 신중년 또는 퇴직자 대상으로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을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고령자가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에 연계하는 사업이다. 참여기관은 비영리단체, 비영리 기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이며, 근무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의 일자리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4대 사회보험,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sup>19)</sup>

보건복지부의 기업-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활동 연계 사업은 기업퇴직자(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공헌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4-7〉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주요 사업내용	성과지표 및 목표	예산(백만원) <sup>1)</sup> (2021~2025)	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중년 재취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편, 퇴직전문인력 컨설팅, 퇴직전문인력 DB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승인 인원 수</li> <li>2021년 8천명 → 2025년 8천명</li> </ul>	- 국비: 185,648 (국비 100%)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퇴직전문인력 컨설팅 지원금	-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중년 경력형 일자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수</li> <li>2021년 5,000명 → 2025년 9,000명</li> </ul>	- 국비+지방비: 436,113 (국비: 50%)	-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인건비 70%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참여자</li> <li>2021년 240명 → 2025년 250명</li> </ul>	- 국비: 17,366 (국비 70%) * 인건비 매칭 지원, 사업관리 및 홍보비용	-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공계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연봉의 50%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인력 부족 완화 기여도</li> <li>2021년 74.6점 → 2025년 83.9점</li> </ul>	- 국비: 62,839 (국비 100%) *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금	-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공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기업 만족도</li> <li>2021년 80.0점 → 2025년 86.6점</li> </ul>	- 국비: 2,310 (국비 100%) * 연도별 20명씩 인건비 일부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정부 간 협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활동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서비스 취업자 수</li> <li>2021년 200명 → 2025년 400명</li> </ul>	- 국비: 3,720 (국비 100%)	- 보건복지부

주: 1) 연도별(2021~2025년) 예산의 총합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p. 1229~1247, pp. 1275~1282.

19)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2c).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aged/list3.do>에서 2022. 08. 09일 인출.

## 다. 신중년 창업 및 재기 지원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 소상공인의 창업/재기 지원과 관련한 지원사업으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과 희망리턴패키지가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국내외의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을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경영체험교육, 멘토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이론교육, 경영체험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이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성과지표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창업률'이며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창업률 79%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4-8〉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이론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분반교육 등 창업준비 및 점포 운영 시 필요한 창업교육 제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경영체험교육	사업모델 검증 및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사업 아이디어 점포 체험의 기회 제공	
멘토링	사업계획, 점포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가 1:1 맞춤형 멘토링 지원	
사업화 지원	매장 모델링,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홍보 및 마케팅 등 창업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50% 본인 부담 조건)	

자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202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소개. <https://www.sbiz.or.kr/nbs/select.do>에서 2022.08.03. 인출. 연구진이 재작성.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여 폐업 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해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경영위기 소상공인이며, 주요 사업은 사업화 지원, 경영체험교육, 재도전

역량강화 지원 등이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신중년 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폐업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고령자 경제활동지원 정책으로 분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4-9〉 희망리턴패키지 주요 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경영개선 사업화	경영교육+경영진단+피보팅전략+경영개선 자금
	재창업사업화	재창업교육+폐업진단+사업화전략+재창업 자금
경영 체험 교육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컨설팅 제공(최대 3개)
	점포철거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용분석사를 통한 채무 상담 후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지원
재도전 역량 강화 지원	전직 기초교육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전직을 위한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지급
	사업전환교육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업종별 이론, 실습 등 사업전환교육

자료: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2022).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소개. <https://www.sbiz.or.kr/nhrp/intro/bizIntroduce.do>에서 2022.08.03. 인출. 연구진 재작성.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재기교육을 통한 전직 활용률’을 성과지표로 하고 2021년에 70.0%를 성과 목표치로 설정하였는데, 2021년 시범운영 및 성과측정 후 향후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으로 2022년 이후의 성과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표 4-10〉 신중년 창업 및 재기 지원

주요 사업내용	성과지표 및 목표	예산(백만원) <sup>1)</sup> (2021~2025)	담당 부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창업률 • 2021년 75% → 2025년 79%	- 국비: 104,828 (국비 100%)	- 중소벤처기업부
• 희망리턴패키지	• 재기교육을 통한 전직 활용률: 2021년 70% • (2022년~2025년 목표치 없음)	- 394,100 (국비 50~100%)	- 중소벤처기업부

주: 1) 연도별(2021~2025년) 예산의 총합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p. 1248~1255.

### 3.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기존의 전문인력(산업현장 교수, 국가명장 등)을 시니어 컨설턴트로 육성하고, 숙련·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이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 반도체 분야, ICT 분야, 산업디자인 분야, AI 학습 데이터 구축과 관련하여 고령자를 활용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인이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R&D 기술과 관련하여 현장 기술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을 제안했으나 향후 5년간의 실행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테스트베드 지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 전문인력 양성지원이 주요 추진내용이며, 관련 분야에 연도별로 10여명을 채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 관련 컨설팅 지원과 전문인력 채용은 고령자 또는 신중년 대상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과제 적합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ICT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은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 창업가의 기술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ICT, 4차산업혁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창업 전문교원을 연간 50명 이상 양성하여 파견하고, 대학생 및 예비 창업자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디자인 분야에서는 시니어 컨설턴트(50세 이상)와 예비 컨설턴트(50세 미만)를 육성하여 시니어 컨설턴트는 디자인경영역량 진단사업,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 등에 활용하고, 시니어 컨설턴트 중에 적임자가 없거나 타 사업에서 자문이 필요할 때는 예비 컨설턴트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20년에는 디자인역량진단 사업을 위해 시니어 컨설턴트(113명)과 예비 컨설턴트(46명) 등 총 159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학습데이터 구축과 관련해서도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의 노하우, 경험 등을 AI 학습 데이터로 구축하겠다는 사업을 구상하여 2021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이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제시했다. 5년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표 4-11〉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주요 사업내용	성과지표 및 목표	예산(백만원) <sup>1)</sup> (2021~2025)	담당 부처
•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지원	• 과학기술인의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지원 건수 • 2021년 64건 → 2025년 76건	- 국비: 10,988 (국비 100%)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반도체 분야) 반도체 테스트지원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분야 등에 10명 채용	• 해당 없음	- 국비 13,000 (국비 100%)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ICT 분야) 대학 창업 전문교원 양성,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멘토링 횟수 • 2021년 3,605건 → 2025년 3,713건	- 국비 1,999 (국비 100%)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주요 사업내용	성과지표 및 목표	예산(백만원) <sup>1)</sup> (2021~2025)	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디자인 분야) 50세 이상 시니어 컨설턴트/예비 컨설턴트 육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설턴트 풀 인원수</li> <li>2021년 400명 → 2021년 600명</li> </ul>	- 비예산	-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데이터 구축) 퇴직전문 인력의 노하우, 경험을 AI 학습데이터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셋 구축</li> <li>2022년 2개 → 2025년 2개</li> </ul>	- 국비 35,200 (국비 100%)	- 고용노동부

주: 1) 연도별(2021~2025년) 예산의 총합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p. 1256~1274.

## 제2절 고령자의 경제활동 정책 모니터링

### 1. 전문가 서면조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포함된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추진과제 총 18개, ‘고령자 사회활동’과 관련된 추진과제 9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의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지표는 ①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② 추진내용의 적정성, ③ 추진일정의 적절성, ④ 성과지표의 적절성, ⑤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의 다섯 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시행되면서 추진과제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모니터링 지표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4-12〉 시행계획 모니터링 지표

모니터링 지표		측정 기준
지표1	목적/내용의 적합성	과제 목적과의 연계성(논리적인 인과관계)이 분명한지를 판단
지표2	추진내용의 적정성	추진내용이 목적과 연계하여 수립되었는지, 목적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이 적정한지를 판단
지표3	추진일정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내용이 목적과 추진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추진일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
지표4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가 목적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인지를 판단
지표5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목표치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인지,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는지 판단

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중앙부처별 시행계획 중 고령자 경제활동과 관련한 과제별 모니터링 양적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과 추진 내용의 적정성은 양호한 반면,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추진과제별 질적 평가에서도 목적과 성과지표의 낮은 연관성, 성과 목표치의 부적절성(소극적인 목표치), 정성평가 지표에 대한 고려 등 성과지표나 목표치에 대한 의견이 공통으로 제안되었다.

〈표 4-13〉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추진과제별 모니터링 결과(평균)

연번	과제명	지표1	지표2	지표3	지표4	지표5
5-1-가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 (계속고용장려금)	2.67	2.00	2.11	2.44	2.38
5-1-가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 (임금체계 개편 지원)	2.44	2.33	2.44	2.11	2.11
5-1-나	신체능력 저하 등을 고려한 다양한 근로 형태 확산	2.44	2.56	2.22	2.44	2.33

연번	과제명	지표1	지표2	지표3	지표4	지표5
5-1-다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2.78	2.44	2.44	2.33	2.44
5-1-라	계속고용과 관련된 증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	2.33	2.22	1.89	1.75	1.75
5-1-라	계속고용과 관련된 증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사회적 공감대 확산)	2.78	2.56	2.11	1.87	1.75
5-2-가	전직 준비 기반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3.00	2.89	2.78	2.44	2.33
5-2-나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신중년 재취업)	3.00	2.67	2.44	1.89	2.00
5-2-나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기술인력)	2.33	2.00	1.78	1.89	1.67
5-2-나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연구인력)	2.44	2.44	2.44	2.22	2.44
5-2-나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연구인력)	2.33	2.22	2.44	2.22	2.33
5-2-다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 소상공인 창업/재기 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	2.63	2.38	2.50	2.38	2.50
5-2-다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 소상공인 창업/재기 지원(희망리턴패키지)	2.67	2.22	1.89	1.67	1.78
5-3-가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학기술분야)	2.11	1.89	1.89	2.11	2.22
5-3-가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반도체 분야)	2.44	1.89	1.63	1.14	1.00
5-3-가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ICT 분야)	3.00	2.89	2.67	2.44	2.33
5-3-가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산업디자인 분야)	2.67	2.56	2.33	2.11	2.33
5-3-가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AI 학습 데이터)	2.33	2.11	1.89	1.56	1.56
5-3-나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44	2.22	2.22	2.44	2.22
5-3-나	기업 정부 간 협업 통한 사회서비스 활동 연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78	2.44	2.44	2.44	2.11

주: 1) 지표 1은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지표 2는 '추진내용의 적정성', 지표3은 '추진일정의 적절성', 지표 4는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표 5는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을 의미함.

2) 3점 척도(1=미흡, 2=보통, 3=우수)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

전문가의 양적 평가와 함께 서면으로 제시한 질적 평가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몇 가지 사항이 제시된다. 첫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나 추진 의지가 불명확한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계속고용과 관련된 중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학기술 분야),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AI 학습 데이터) 등이 있다.

둘째, 고령자가 아닌 일반 성인을 정책 대상으로 하여 고령자의 계속고용이나 재취업/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과제들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신체능력 저하 등을 고려한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반도체 분야) 등이 해당된다.

셋째, 성과지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5년간 성과지표가 명시되지 않거나 (계속고용과 관련된 중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 희망리턴패키지, 반도체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등), 사업대상이 소규모인 과제(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 기술전문경력인 20명,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지원 분야 채용 10명 등)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과제들이 5년간 목표치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5년간 과제 추진에서 소극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14〉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추진과제별 검토의견

연번	과제명	검토의견
5-1-가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 (계속고용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적 측면 외에 질적 측면도 고려한 측정방법 고민 필요</li> <li>- 20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및 사업비가 20년 245억(9.096명) 지급에서 21년 약 82억 (2.274명)으로 현격히 감소함, 성과 목표치 상향조정 필요</li> <li>- 현재 추진내용과 성과지표는 목표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함</li> </ul>
5-1-가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계속고용 지원 (임금체계 개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체계 변화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충분한 연구와 협의 필요. 다만 호봉제 운영 비율의 감소가 임금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과지표 도출 제안</li> <li>- 인프라 구축과 공간대 형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 외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추진내용 미흡</li> <li>- 호봉금을 대신한 연공형 임금체계의 운영 비용 또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측정 및 성과지표 도입 필요. 현재 성과지표에서 100인 이상 사업체로 종사자 수를 설정한 이유와 근거가 불명확.</li> <li>- 호봉급에서 연공형 등 공정한 임금체계로 전환한 사업체 수 등도 추가 검토 필요</li> <li>- 호봉급 운영 자체보다는 임팩트크게 운영으로 성과지표를 수정 고려</li> </ul>
5-1-나	신체능력 저하 등을 고려한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적 측면 외에 질적 측면도 고려한 측정방법 고민 필요</li> <li>- 20년 계획 대비 높은 집행성과로 사업필요성 및 용구가 높다는 것은 수용 가능하나,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확인 필요. 축소된 지원 인원에 대한 선정기준 등 적절한 추진을 위한 추가 논의 필요</li> <li>- 2022~2025년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인원이 거의 2배 증가한 뒤 유지되는데 목표치 설정 근거가 예산상 물량이라는 점 외에 설명이 부재하여 납득하기 어려움</li> <li>- 과제 달성 차원에서 목적, 추진내용, 성과 등이 다소 적절하지 않음</li> </ul>
5-1-다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안 통과와 시행 전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 어렵음</li> <li>- 2020년에 발의한 송옥주 의원 법안으로 개정 및 시행하는 것 외에 2021~2025년에 새로 추진 되는 내용이 부재함. 별도의 추진내용이 없어 2022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6월 발의된 법안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추진내용, 일정, 성과지표 및 성과 목표치 모두 미흡함</li> <li>- 개정을 통해서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평가 필요</li> </ul>

연번	과제명	검토의견
5-1-라	계속고용과 관련된 증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필요</li> <li>- 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추진일정 구체화 필요</li> <li>- 전체적으로 모호하여 구체성 제고 제안</li> </ul>
5-1-리	계속고용과 관련된 증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사회적 공감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제화 이전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이 어려움</li> <li>- 계속고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신속한 진행 필요</li> <li>- 구체적인 추진일정 제시 필요</li> <li>- 시민의 계속고용 제도 인식 제고 방안 필요</li> <li>-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필요</li> </ul>
5-2-가	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적 측면 외에 질적 측면도 고려한 측정방법 고민 필요</li> <li>- 2025년 사업예산이 2020년 기준에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보아 추진의지가 다소 약하다고 여겨짐</li> <li>- 2022년 이후 서비스 제공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나 증장년 인구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향적 목표치가 아닌 취업자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로 목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사업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됨</li> <li>- 추진일정 내용 미흡, 성과지표 재설정 제안</li> </ul>
5-2-나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신중년 재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 전문인력 DB 관리 및 부처별 사업의 정보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 논의 포함 고려. 또한 고용장려금에 대한 성과지표만 제시되어 있어 컨설팅 및 퇴직전문인력 DB 관리에 대한 성과지표 추가 제안</li> <li>- 양적 측면 외에 질적 측면도 고려한 측정방법 고민 필요</li> <li>- 고용장려금 이외에 컨설팅 만족도 기준의 컨설팅지원과 이용자수 기준의 DB활용을 활용한 성과평가가 개선방안 제안</li> <li>- 퇴직전문인력 컨설팅 지원에 대한 성과지표 추가 필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승인 인원 수가 신중년 인구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지되고 있어 성과 달성에 소극적이라고 판단됨</li> <li>- 퇴직전문인력 컨설팅 지원에 대한 성과-목표치가 부재함.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승인 인원 수의 경우에도 목표치 설정 근거가 전년 실적 대비 5% 증가라고 되어 있으나, 시행계획 보고 서상에는 목표인원이 5,100명으로 되어 있어 내용 상이함</li> <li>- 목적, 추진내용, 성과지표 간 연계성 제고 필요</li> </ul>

연번	과제명	검토의견
5-2-나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기술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에 비해 2021~2025년의 사업비는 소폭 증액되었으나 사업량 성과목표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됨. 사업참여자의 정량 수치 상향 조정 필요</li> <li>- 추진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li> <li>- 성과지표인 사업참여자 수의 목표치 점진적 상향하는 방안 제안</li> <li>-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내용과 추진일정 개선 고려</li> </ul>
5-2-나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연구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목적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지원 인력 수를 확대하는 방안 고려. 성과지표에도 추가하는 방안 고민 필요</li> <li>- 추진 내용 미흡, 정량 평가 성과지표 필요</li> </ul>
5-2-나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연구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목적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원 인력 수를 확대하는 방안 제안</li> <li>- 현재 지원 인원이 적어 정량적인 성과지표에 지원 인원 수를 추가하고, 성과 목표치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향 고려</li> <li>- 추진 내용 미흡, 정량 평가 성과지표 필요</li> </ul>
5-2-다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 소상공인 창업/재기 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내용의 경우 물리적 확대 외에 질적 확대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의 경우 코로나 상황임을 고려하여 창업률뿐 아니라 예비창업, 창업준비 노력 등의 요소도 추가하는 방안 제안</li> <li>- 추진내용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에 본 사업을 이용하는 참여자 수, 지역 수 등 정량 평가 추가 고려</li> </ul>
5-2-다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 소상공인 창업/재기 지원(희망리턴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목적을 고려하여 사업방식 개선, 마케팅 비용 지원 등 재기 부담 완화 지원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 혹은 성과를 성과지표에 추가하는 방안 제안</li> <li>-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정량 요소보다는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인 요소로 성과지표 설정하는 방향 고려</li> <li>- 추진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과제 목적과 적절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2021년 시범운영 이후 계획 외에 다른 추진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진일정이 다소 적절하지 않음</li> <li>- 목표를 달성에 적합한 추진내용 및 일정 개선 필요, 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정량 목표 제시 필요</li> </ul>

연번	과제명	검토의견
5-3-가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학기술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 목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과 청소년 과학교육이나 추진내용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멘토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과제 목표와 내용 간 균형 필요. 과제 목표 및 대상의 명확화, 지원 분야 및 인력 활용 계획의 구체화 필요</li> <li>- 과학기술분야가 다양하여 분야별 필요 기술 및 멘토링 방법이 다른 만큼 분야별 지원금액 및 방법을 상이하게 정하는 방안 제안</li> <li>- 목적을 제외하고 추진내용, 일정, 성과목표 등 매우 미흡함</li> <li>- 목적 및 추진내용은 타당하나 그 외는 내용이 매우 미흡함.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립 필요</li> <li>- 앞서 제시된 과학기술분야 및 타 분야의의 차별성 모색 필요</li> </ul>
5-3-가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반도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2025년 성과목표가 동일하여 목표치 설정 근거인 기존 3년간 멘토링 횟수 타당성 검토 필요</li> <li>- 정량적인 멘토링 횟수로만 성과지표가 구성되어 있어 창업 단계별 연계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의 추진내용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추가 보완 제안</li> <li>- 서비스 대상이 제한적이므로 대학생 외 창업을 희망하는 성인 등 서비스 대상 확대 필요</li> </ul>
5-3-가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산업디자인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턴트 풀 인원 확대도 필요하지만 인력 풀을 활용한 구체적인 고도화 방안 역시 논의 필요</li> <li>- 양적 측면 외에 질적 측면도 고려한 측정방법 고민 필요</li> <li>- 컨설턴트 풀 인원과 실제 컨설팅 수행 건수 및 수혜자를 성과지표로 고려하는 방안 제안</li> </ul>
5-3-가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AI 학습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위한 인력 풀 모집 계획, 관리, 학습데이터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 미흡. 또한 데이터 구축 후 자로 활용에 대한 후속 고민 필요. 학습 데이터의 수요 파악부터 활용 계획까지 논의가 포함되어야 함. 성과지표의 산출 근거 역시 미흡</li> <li>-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그 이후의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함. 성과목표의 근거 구체적 제시 필요</li> <li>- 목적에 맞는 적절한 추진내용, 구체적인 추진일정 및 성과지표 제시 고려</li> <li>- 2021년의 추진내용이 불충분하여 2022년 이후 추진일정 역시 장담 어려움. 2022년 이후 구축한 데이터셋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매년 2개씩의 신규 데이터셋을 추가로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성과 목표치도 명확하게 설정 필요</li> </ul>

연번	과제명	검토의견
5-3-나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기준 목표치가 50% 감소된 것을 고려하여 2021년, 2022년 성과 목표 조정 필요 - 일자리 참여자 수를 매년 1,000명씩 증가시키는 것을 성과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보다 구체적인 추진내용 마련 필요 - 지역사회보다 구체적 기관이나 단체 등 협력체계 제시

## 2. 고령자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 가. 조사 개요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 대상의 초점집단인터뷰(FGI)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된 정책 대상이 50대의 계속고용과 재취업 지원이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50대 경제활동 참여자 2개 집단 그리고 60대 경제활동 참여자 1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가진 50대 직장인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프리랜서 등에 종사하는 경제활동 참여자로, 두 번째 집단은 50대 그리고 세 번째 집단은 60대 이상인으로 구성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근무조건과 만족도,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및 대처 경험, 향후 경제활동 계획, 그리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 4-15〉 경제활동 참여 고령자 대상 FGI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64세 경제활동 참여자</li> </ul>
조사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대 대기업 종사자 등(4명)</li> <li>• 50대 경제활동 참여자(4명)</li> <li>• 60대 이상 경제활동 참여자(4명)</li> </ul>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조건 및 만족도</li> <li>• 차별 경험 및 대처 방법</li> <li>• 향후 경제활동 계획</li> <li>• 정책 제안</li> </ul>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9월 1일 ~ 9월 6일</li> </ul>

초점집단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집단 A 참여자의 연령은 50~55세의 동일 직종에 근무한 연수가 20년 이상이었으며, 50대 경제활동 참여자(집단 B)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거나 경력단절 등을 경험한 뒤 해로운 일을 시작한 참여자로 구성되었다. 60대 이상 경제활동 참여자(집단 C)는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직종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참여자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한 참여자도 있었다. 경제활동 참여자 12명 중 남성이 8명, 여성이 4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8명, 60대 4명이었다. 거주지역은 서울 10명, 경기와 인천이 각각 1명이었다. 참여자 중 7명은 동일 직종에서 20년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동일 직종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으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경제활동 참여자 일반 현황

집단	구분	고유번호	성별	만 연령	거주지	직업	동일 직종 근속
A	50대 대기업 종사자 등	A1	남성	50세	서울	방산업체 회사원	22년
		A2	남성	54세	서울	항공사 회사원	29년
		A3	남성	54세	서울	공무원	27년
		A4	남성	55세	서울	전자업체 회사원	29년
B	60대 이상 경제활동 참여자	B1	여성	63세	경기	의류 판매원	20년
		B2	남성	60세	서울	영상조명 자영업	20년
		B3	여성	64세	서울	중소기업 회사원	42년
		B4	남성	62세	서울	프리랜서-강사 등	1년
C	50대 경제활동 참여자	C1	여성	56세	서울	가스 점검원	2년
		C2	남성	52세	인천	콜센터 관리자	7년
		C3	여성	53세	서울	프리랜서-강사 등	4년
		C4	남성	58세	서울	바리스타	1년

## 나. 주요 내용

### 1) 근무 현황

FGI 참여자들은 고용형태, 종사상 지위 등에 따라 근무 현황이 상이하였다. A 집단 참가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로서 주 40~50시간 가량 근무하고 있었다. B와 C 집단 참가자들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가 다양하였으며,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참여자들부터, 격일제 근무, 유연 근무, 주 20시간 미만 근무 참여자 등 근무시간이나 방식도 다양하였다. B 집단에는 자영업 종사자도 1명 있었고, C 집단에는 정규직 회사원과 자영업을 겸업하는 종사자도 1명 있었다.

고용형태에 따라 휴가 사용 양상의 차이가 있었다. A 집단에서는 대체로 휴가 사용이 일정 정도 보장되었지만, B와 C 집단의 계약직, 프리랜서의 경우 휴가 사용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다만 휴가 사용이 보장된 경우에도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쓰지는 못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연가도 1년에, 이제 직급별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23일. 연 23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눈치 보여서 좀 사용 못 해요. 한 10일은 무조건 사용하는 만큼. 10일 초과분만 지금 연가보상비를 주거든요. 연말에. 그래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죠. 그거 아니면 좀 눈치도 보이고. (A3)

거의 1년에 연차 휴가 그런 게 한 15일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고 쉬고 싶을 때 미리 얘기하고 쓰고 있어요. (C1)

(휴가는 없고) 월요일부터 쪽 해서 일요일만 쉽니다. 일요일만 쉬고. 육체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어요. 은행, 병원 일 이런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체국에 무슨 적금 하나가 이렇게 만기가 돼서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갔어요. 근데 본인 아니면 그걸 안 해주시잖아요. 저희 집사람 보내놓고 거기 팀장님하고 잘 아니까 전화를 했는데, 이런 게 조금 힘들구나. (C4)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에 걸쳐 직장 내 업무와 관계에 익숙해진 터라 직장생활에서 큰 스트레스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다른 참가자들에서도 안정적인 고용, 업무에서의 보람, 안정적인 소득 등을 이유로 현 직장에 만족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정년까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만족감을 표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들어오는 업무 처리해 주거나 기존에 있던 영역들을 관리하는 업무라, 지금으로서는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은 크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이 좀 적어서. (A2)

만족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충분히, 정말 이렇게 요즘은 고용주가 참 나쁜 사람들도 많잖아요. 너무 인품이 있으시고 정말 우리, 저희 회사 직원들 다 20~30년 다 다녔어요. 나가지를 앓았어요. 대신에 급여가 뭐 대기업처럼 많지는 않지만. 특히 여자들은 근무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애기들이 아프고 이러면 시간이 필요한데 충분히 배려해주고, 그런 거 전혀 스트레스 없이, 정말 저는 한평생을 너무 편하게 잘, 고마울 따름이죠. (B3)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급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직장생활을 했던 때보다는 턱없이. 그 일이라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근데 그걸 떠나서 나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자리의 그 소중함이라는 거를. 아침에 남자가 출근해갖고 자기 자리 책상을 하나 갖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장히,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돈을 떠나서 직장을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감이 많고. (C4)

반면 현재 직장에서의 불만족 사항으로는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보상, 실적 스트레스, 관리자로서 직원 관리 고충, 익숙해진 업무로 인한 흥미 감소, 높은 업무 강도, 고용불안 등이 거론되었다.

다만 업무가 좀 강도가 좀,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또 열성을 다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죠. (A1)

이직을 안 하는 대신에 한 쪽에서 계속 한 업체에 있다 보니까, 뭐 후배들이 이제 잘 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도 없는데, 새로운 기회가 적어지니까 재미는 좀 없죠. (A4)

어려운 건 뭐냐면, 주 8시간이고 뭐 이렇게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일자리가 더 줄이려고 하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젊은 사람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젊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젊은 사람하고 옛날에는 우리 또래들이나 40대, 50대들이 많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치고 올라가니까 좀 불안감이 있어요. (C3)

참여자는 50대 이후에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나이로 인한 어려움도 일부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젊은 직원들 눈치를 보거나 업계 내에서 세대 차로 인해 괴리감을 느끼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시력 감퇴, 체력 저하 등 신체적인 기능 약화로 인한 어려움도 거론되었다.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 60대가 넘어서 내 자신이 살짝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 제가 어려움은 느끼지는 않는데 주위에서 보시는 분이, 젊으신 분들이 아, 이제 그만두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분들이 제가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저 혼자만의 느낌으로. (B1)

저는 이제 60대가 이제 중반이 되다 보니까, 첫째 보는 거, 쓰는 거 그게 저한테 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이 먹으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봐야 일, 자세히 글씨 하나하나를 봐야지, 제가 써야지.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눈 때문에. 그래서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나 봐요. (B1)

기본적으로 요즘 다른 거에 비해서 저희 영상 쪽이나 IT 쪽은 세대가 굉장히 빨라져서 그거를 맞춰나갈 수가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나이 먹은 사람, 40대, 50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안 하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기술력이나 이런 능력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자기들끼리만의 세계 같이 세대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B2)

뭐 광고, 광고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들을, 좀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불편한 거를, 저는 못 느끼는데 상대방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 (B2)

정년 있고 정년까지 가고 싶은데 올해부터 눈이 안 보여서. 컴퓨터가 이게 좀 더 피곤하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전화가 오면 이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자인지 '야'자인지 '어'인지, 이게 이렇게 안 보여서 돋보기를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C2)

## 2)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

구직 과정이나 직장 안에서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과 대응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기업이나 공무원 직종에 있는 FGI 참여자들은 현재 직장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근무를 해왔던 터라 구직이나 채용 경험이 따로 없었다. 반면, B, C 집단에서는 40대, 50대 이후 구직/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채용 공고에 공식적으로 공지되진 않더라도 비공식적인 나이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40대나 50대 이후에는 구직이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격을, 나이, 다 통상 보면 다 나이 제한 없다고 나와요. 나이 제한 없이 나오는데 뽑을 때 나이 제한을 두지. 면접 보면 나이 제한을 두는데. (B4)

제가 느꼈던 게 일단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라면 인재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나이 연령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력 단절되신 여자 분들이라든가 남자도 경력 단절이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한 45살 이상이 돼버리면 일단 넣어볼 수 있는 게 없어. 직장 자체가. 이력서를 넣어도 소용도 없고 넣어볼 수 있는 그것도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C2)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한 번 더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하고 평생교육사를 따면 그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거 따니까 또 저는 유치원 교육사,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긴 한데, 문제는 전화하면 (유치원 등을 직접) 차려야 된대요. 차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픈해야만 되는 거고. 취업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자격증을 많이 따도 그런 기회가 많이 없고 이력서를 많이 내도 그러니까, 인내가 아닌 경우는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C3)

직장생활 내에서 고령자로서 크고 작은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대기업에서는 부서별로 다소 편차는 있으나, 임금피크 시기가 다가오면 직간접적으로 위축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업무배치에서도 기존 역할보다 낮은 역할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직장에서 50대 이상 직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다수 참가자가 언급하였다. 한편, 일부 참가자는 현실적으로 50대 이상을 무시하는 경향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문화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사회가 충분히 인정을 해줄 수 있고 아까처럼 상대적으로 못한다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 또 강점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내지 당연히 '이렇게 나이 많으면 잘 못 거야'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감안돼서 임금피크 회사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사회 자체가 '그게 당연하지'라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위축되는 게 조금 별로 기분은 썩 좋지는 않은 거고. (A1)

어쨌든 회사에서 강제로 내보낼 수 없는 분위기가 돼서 강제로 내보내지는 않는데, 대부분 가끔은 여태까지 내가 해오지 않은 부서로 발령을 해요. 이런 케이스인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거기서 버틸 거냐. (중략) 그거를 본인이 견디거나 할 수 있으면 정년까지는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분위기를 못 견디는 사람은 희망퇴직이라는 케이스 때 나가는 거고. (A2)

이제 직장 내에서 50만 넘어가면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거의, 그러니까 30~40대가 보기에는 별로 쓸모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나이에서 이제 저는 뭐 퇴직할 때가 이제 간부를 하고 했는데, 통상 보면 직원들이 한 50세 먹어도 이제 평직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은 직원들이 대우를 안 해주니까 상당히 힘들고. 나도 젊었을 때 나이 든 사람들 같이 일할 때 한창 내가 30 먹을 때 50, 60 먹은 사람들 같이 일하면 저것들 뭐 일도 안 하고 앉아서 뭐 하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이 먹은 사람들 대우 안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차라리 순리다 생각을 해요. (B4)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좀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해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거. 회사에서 그럴 때도 있고요. 같은 직원들끼리 그럴 때도 있고. (C1)

### 3) 향후 근로 여부 및 근로 조건

현재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였다. 대기업 종사자나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된 상황이긴 하나, 이후 정년까지의 근무 계획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몇 년 더 근무하다가 정년을 일부 남기고 협력업체로 이전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임금피크 시기 즈음에 기회가 된다면 희망퇴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정년을 끝까지 채우고 퇴직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남은 한 5년 동안에 자격증을 따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운 업무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2)

지금 27년 차거든요. 근데 정년은 61세인데, 그냥 앞으로 꾸역꾸역 해가지고 끝까지 어떻게든. 정년까지 5~6년 남았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도 안 좋고 그래서 끝까지 버티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A3)

FGI 참여자들은 대체로 향후 70세 정도까지 경제활동을 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위해 자격증 준비를 계획하기도 하였다. 한편 경제활동은 지속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직장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며 조직생활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 사용이 자유로운 프리랜서 형태의 근무를 희망하는 참가자들도 일부 있었다. 또한, 60대 초중반까지만 일하고, 이후는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참여자도 소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나이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정년퇴직하고 10년 정도는 현역 정도 다니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2)

저는 저 건강만 주어진다면. 제가 뭐 볼 수, 뭐 볼 수 있고 손 움직이고 걸을 수만 있다면 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70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1)

지금도 저는 충분히 건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0, 그래도 70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그 뒤에는, 그 뒤에는 가봐야 알지만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때는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B3)

지금은 70세가 돼도 체력만 되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라서. 최대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고 싶어요. 딱 나이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C1)

저는 62살까지만 일할 겁니다. 지금이 52세니까 딱 10년만 더 일하고 일 안 할 거예요. 놀러 다닐 거예요. 춤도 추러 다니고. (웃음) (C2)

현 직장 퇴직 후 또는 60대 이후에 70세 정도까지 경제활동을 이어갈 경우 희망하는 소득 수준은 그룹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대기업 종사자와 공무원 참가자는 연봉 5천만원 내외의 소득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다른 참여자들에서는 월 1~2백만원 정도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자영업을 하는 경우 일부 월 4~5백만원까지 희망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70까지 딱 일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웃음) 적어도 한 6~7천은 제 자체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런데 물론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6천 정도는 이렇게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A1)

152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현 직장 퇴사 후) 그때는 좀 나이 좀 들고 하니까 한 4~5천 정도. 연봉 기준으로.  
(A3)

제 생각인데 일하면서 나는 머리가 좀 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하루에 8시간  
씩 뭐 5일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 저는 한 4~5백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B2)

저는 이제 생활도 해야 되고 제 용돈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일단 또 아프면 나이 들  
어서 아프면 병원비도 있어야 되니깐, 최하 200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C1)

그냥 100만 원만 쥐도 감사할 것 같아요. 100만 원만 쥐도 감사하고. (C3)

현 직장 퇴직 후 또는 60대 이후에 70세 정도까지 계속 일하고 싶은 이  
유로는 젊음, 건강,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일  
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을 경우, 활력과 건강을 잃고 상대적으로 더 빨리  
늙어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자기 생활의 필요성, 부부간의 갈등  
등 관리, 소득 유지 측면에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의  
견이 있었다. 한편, 경제활동 지속을 원하긴 하나 조직이나 시간에 얽매  
이지 않는 생활을 추구한다는 참가자들도 일부 있었다.

저는 목적이 그래도 제 자신의 약간 긴장감도 있지만, 제 스스로 뭔가 하고 있다. 내  
가 뭔가 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좀 애들이나 아니면 또 배우자가 볼 때도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의 어떤 스스로 제가 많  
이 모자라니까 좀 인격 형성이 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사람도 만나잖아요. 또 뭐 이것  
저것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지식도 쌓이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A3)

한 가지 좋은 점은 직장 생활하면 다 저거, 나가 있으니까 다 젊잖아요. 젊은 사람들  
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커요. 너무너무 커요. 그 부류에, 그 속에서 나는 나이가 많지  
만 그 대화 내용이 다 연령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더 많이 얻는 게. ... 마인드  
가 젊어지고. (B3)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좀 낯 시간대는 다 일들 하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좀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나가서 사회 활동하는 게, 그게 건강을 지키는 일일 것 같아요. (C1)

저는 일이 없으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습관인가 봐요. 일이 없으면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래서. 돈도 돈이겠지만. (C3)

#### 4) 정책적 지원 사항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참가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먼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참여에 있어 나이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IT 활용 교육의 보편화의 필요성, 그리고 교육(배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직접적인 일자리 알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다수가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에 여러 가지 막 붙어 있어요. ai 강좌 최신에 들어서 찾아보는데, 나이 제한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 이거 열심히 들으면 취업 길 열어드린다. 이런 게 다 나이 제한이 다 걸려 있어요. 저런 강좌도 좀 나이 먹은 사람한테도 열어주면 어떨까. (A2)

나라에서 하는 거 중장년 플러스 센터라고 있는데, 그런 기관을 조금 더 확대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서 이렇게 상담 같은 거 받고, 좋은 일자리 같은 것도 많이 좀 말 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많이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C1)

이게 다 교육에서 끝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육만 하고 끝나. 그냥 수료증 하나만 주고 끝나. 그다음은 또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러면 수료의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일을 하고 싶다는 그 무언가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이 교육을 마치게 되면 이쪽에서 많은 보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는 어떤 일을 하게끔까지 해주는, 그것까지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C2)

우리나라에 또 그런(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접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홍보 같은 게 좀 잘 됐으면 중장년층들이 조금 사회에 진입할 때 정말 두렵지 않고. 굉장히 사실 두렵잖아요. 평생 직장생활하다가 이렇게 사회에 딱 나오게 되면 혼자 외톨이가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내 동료도 없고 그때부터는 또 동료도 옛날 동료가 아니잖아요. 만나기도 싫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거 아무리 뭐 사회생활을 해도 자기 장점 없겠습니까.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C4)

둘째, 일자리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령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업종을 발굴하여 매칭해야 한다는 의견, 요양보호사/간병인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의견, 지방의 부족한 일자리를 고령인력과 연계하여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일의 종류는 수만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도 50대 이상의 이 연령대별로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업종을 좀 찾아 가지고, 정부에서 종류별로 좀 연령대별로 선택할 수 있게 그거를 이렇게 적용 폭을 넓혀줬으면, 그래도 뭐라도 어렵지 않은 본인에 맞는 그걸로.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도 생산 가능하면 국가적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3)

서울은 모르겠는데 지방은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중장년들이 은퇴해서 가서 할 수 있는 연계를 좀, 나라에서 좀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또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얘기를 뉴스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C1)

지금은 혼자 집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분들은 직장 다니니까 도움 줄 수 없으니까 요양보호사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저거는 참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좋은 예를 삼아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C1)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고령자를 사업장에 한 명씩 배치하기보다는 고령자들이 일정 규모로 집단을 구성하여 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적응할 수 있다는 의견, 지자체나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근무 가능한 연령대를 70세 정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가까운 지자체에서 조금 더 연령을 높여서 연령 제한 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중략) 그 연령을 조금 높이면 되죠. 요즘 70세도 젊잖아요. 저도 65세인데, 저는 아직 젊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B3)

### 3. 경제활동 참여자 설문조사

#### 가. 응답자의 일반사항

경제활동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여성(43.5%)보다 남성(56.5%)이 더 많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 참여자의 53.5%로, 60대보다 많이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학력의 경우, 대체로 고졸 이상이며 월평균 가구소득으로는 4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8.0%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21.8%)과 100~200만원 미만(20.3%)이 그다음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4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 27.8%, 200~300만원 미만 19.3% 등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2인 가구가 39.5%, 1인 가구 23.3%, 3인 가구 39.5% 등으로 1~2인 가구가 60%를 상회하였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도시지역(동부)(71.0%)에 거주하고 있고, 권역별로는 경기·인천(29.0%)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서울(15.8%), 부산·경남권(1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7〉 경제활동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400)	100.0
성별	남성	(226)	56.5
	여성	(174)	43.5
연령	50대	(214)	53.5
	60대	(186)	46.5
학력	중졸 이하	(82)	20.5
	고졸	(150)	37.5
	전문대졸 이상	(168)	42.0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1)	15.3
	100~200만원 미만	(81)	20.3
	200~300만원 미만	(87)	21.8
	300~400만원 미만	(59)	14.8
	400만원 이상	(112)	28.0
월평균 근로소득	100만원 미만	(111)	27.8
	100~200만원 미만	(168)	42.0
	200~300만원 미만	(77)	19.3
	300~400만원 미만	(22)	5.5
	400만원 이상	(22)	5.5
가구원 수	1인	(93)	23.3
	2인	(158)	39.5
	3인	(78)	19.5
	4인 이상	(71)	17.8
거주 지역	동부	(284)	71.0
	읍면부	(116)	29.0
권역	서울	(63)	15.8
	경기/인천	(116)	29.0
	강원권	(20)	5.0
	충청권	(46)	11.5
	대구/경북권	(43)	10.8
	부산/경남권	(61)	15.3
	호남/제주권	(51)	12.8

## 나. 근로 현황

경제활동 설문조사에서 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살펴보면, 서비스직(31.5%)과 단순 노무직(27.3%)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남성

의 경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32.3%이고, 여성의 경우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55.2%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50대는 서비스직(34.6%)에, 60대는 단순노무직(39.2%)에 가장 많이 종사하며,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도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많이 종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거주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읍면부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율이 31.9%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8〉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

구분		사제 수(명)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직, 경찰/ 소방관 등)	단순노무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일반 사무직)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기술직)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문직, 교수 등)	판매 종사자 (영업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생산직)
성별	전체	(400)	31.5	27.3	12.5	10.5	5.5	4.8	3.0	2.5	2.5
	남성	(226)	13.3	32.3	19.5	10.6	8.8	6.2	2.7	3.1	3.5
연령	여성	(174)	55.2	20.7	3.4	10.3	1.1	2.9	3.4	1.7	1.1
	50대	(214)	34.6	16.8	14.0	16.4	4.2	5.6	2.3	2.8	3.3
학력	60대	(186)	28.0	39.2	10.8	3.8	7.0	3.8	3.8	2.2	1.6
	중졸 이하	(82)	19.5	46.3	18.3	0.0	3.7	4.9	1.2	2.4	3.7
월평균 가구소득	고졸	(150)	38.7	24.7	14.7	6.0	4.7	2.7	3.3	2.7	2.7
	전문대졸 이상	(168)	31.0	20.2	7.7	19.6	7.1	6.5	3.6	2.4	1.8
거주 지역	100만원 미만	(61)	16.4	50.8	21.3	3.3	1.6	1.6	3.3	1.6	0.0
	100~200만원 미만	(81)	21.0	37.0	14.8	9.9	6.2	1.2	2.5	0.0	7.4
	200~300만원 미만	(87)	33.3	29.9	10.3	9.2	2.3	5.7	0.0	8.0	1.1
	300~400만원 미만	(59)	33.9	18.6	8.5	16.9	10.2	5.1	3.4	1.7	1.7
지역	400만원 이상	(112)	44.6	9.8	9.8	12.5	7.1	8.0	5.4	0.9	1.8
	동부	(284)	34.2	27.5	4.6	12.3	6.0	5.6	3.5	2.8	3.5
	읍면부	(116)	25.0	26.7	31.9	6.0	4.3	2.6	1.7	1.7	0.0

(단위: %)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근로 유형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임시근로자(41.0%)와 상용근로자(31.5%)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남성(36.3%)과 여성(47.1%) 모두 임시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에서는 상용근로자(37.9%), 60대에서는 임시근로자(45.7%)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도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나 중졸 이하(26.8%)와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24.6%)인 응답자의 경우 임시근로자 다음으로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4-19〉 근로 유형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임시 근로자	상용 근로자	자영업자	일용 근로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전체		(400)	41.0	31.5	14.5	12.5	0.3	0.3
성별	남성	(226)	36.3	29.6	21.2	12.8	0.0	0.0
	여성	(174)	47.1	33.9	5.7	12.1	0.6	0.6
연령	50대	(214)	36.9	37.9	16.4	8.9	0.0	0.0
	60대	(186)	45.7	24.2	12.4	16.7	0.5	0.5
학력	중졸 이하	(82)	35.4	15.9	20.7	26.8	0.0	1.2
	고졸	(150)	45.3	28.7	17.3	8.7	0.0	0.0
	전문대졸 이상	(168)	39.9	41.7	8.9	8.9	0.6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1)	41.0	18.0	14.8	24.6	0.0	1.6
	100~200만원 미만	(81)	49.4	19.8	12.3	18.5	0.0	0.0
	200~300만원 미만	(87)	39.1	31.0	18.4	11.5	0.0	0.0
	300~400만원 미만	(59)	39.0	39.0	13.6	8.5	0.0	0.0
	400만원 이상	(112)	37.5	43.8	13.4	4.5	0.9	0.0
거주 지역	동부	(284)	42.3	35.6	10.9	10.6	0.4	0.4
	읍면부	(116)	37.9	21.6	23.3	17.2	0.0	0.0

응답자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40시간 미만(37.8%)과 40~60시간 미만(36.0%)인 경우가 많고, 평균 31시간

근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36.5시간)의 근무시간이 여성(23.9시간)보다 더 길고, 연령별로는 50대(34.3시간)가 60대(27.3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별로는 고학력 응답자가,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200~300만원 미만인 응답자들이 1주당 근무시간이 더 긴 경향을 보였다.

〈표 4-20〉 1주당 평균 근무시간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명)	20시간 미만	20~40시간 미만	4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평균]	[중앙값]
전체		(400)	20.8	37.8	36.0	5.5	31.0	30.0
성별	남성	(226)	15.0	21.2	55.3	8.4	36.5	40.0
	여성	(174)	28.2	59.2	10.9	1.7	23.9	25.0
연령	50대	(214)	7.5	43.9	42.1	6.5	34.3	35.0
	60대	(186)	36.0	30.6	29.0	4.3	27.3	25.0
학력	중졸 이하	(82)	41.5	20.7	32.9	4.9	27.1	25.0
	고졸	(150)	14.7	46.0	31.3	8.0	32.1	30.0
	전문대졸 이상	(168)	16.1	38.7	41.7	3.6	32.0	31.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1)	54.1	23.0	19.7	3.3	22.1	15.5
	100~200만원 미만	(81)	23.5	39.5	33.3	3.7	29.5	25.0
	200~300만원 미만	(87)	14.9	31.0	44.8	9.2	35.0	40.0
	300~400만원 미만	(59)	8.5	45.8	42.4	3.4	32.3	30.0
	400만원 이상	(112)	11.6	45.5	36.6	6.3	33.1	30.0
거주 지역	동부	(284)	22.2	37.7	34.9	5.3	30.6	30.0
	읍면부	(116)	17.2	37.9	38.8	6.0	32.2	30.0

다음으로는 근무시간 유형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일제(60.0%)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전일제(73.5%), 여성은 시간제(57.5%)로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과 학력, 그리고 거주 지역별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표 4-21〉 근무시간 유형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전일제	시간제
전체		(400)	60.0	40.0
성별	남성	(226)	73.5	26.5
	여성	(174)	42.5	57.5
연령	50대	(214)	65.9	34.1
	60대	(186)	53.2	46.8
학력	중졸 이하	(82)	54.9	45.1
	고졸	(150)	58.0	42.0
	전문대졸 이상	(168)	64.3	35.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1)	34.4	65.6
	100~200만원 미만	(81)	59.3	40.7
	200~300만원 미만	(87)	66.7	33.3
	300~400만원 미만	(59)	64.4	35.6
	400만원 이상	(112)	67.0	33.0
거주 지역	동부	(284)	58.5	41.5
	읍면부	(116)	63.8	36.2

4대보험 가입율은 건강보험 76.3%, 고용보험 65.0%, 국민연금 63.0%, 산재보험 62.8%로 조사되었으며, 4대보험에 하나라도 가입되지 않은 비율은 20.5%로 나타났다. 한편 4대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졸 이하(32.9%)와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42.6%) 집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22〉 4대보험 가입 현황(복수응답)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모두 해당 없음
전체		(400)	76.3	65.0	63.0	62.8	20.5
성별	남성	(226)	77.0	60.2	62.8	58.4	19.5
	여성	(174)	75.3	71.3	63.2	68.4	21.8

구분		사례수 (명)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모두 해당 없음
연령	50대	(214)	83.2	75.7	82.2	72.4	13.1
	60대	(186)	68.3	52.7	40.9	51.6	29.0
학력	중졸 이하	(82)	63.4	42.7	41.5	39.0	32.9
	고졸	(150)	77.3	68.0	65.3	65.3	20.0
	전문대졸 이상	(168)	81.5	73.2	71.4	72.0	14.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1)	52.5	26.2	31.1	24.6	42.6
	100~200만원 미만	(81)	71.6	65.4	54.3	59.3	22.2
	200~300만원 미만	(87)	79.3	66.7	70.1	65.5	16.1
	300~400만원 미만	(59)	84.7	74.6	74.6	74.6	15.3
	400만원 이상	(112)	85.7	79.5	75.0	77.7	13.4
거주 지역	동부	(284)	76.8	68.3	65.1	65.8	19.4
	읍면부	(116)	75.0	56.9	57.8	55.2	23.3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63.0%였으며,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전체 응답자의 직업 만족도는 68.2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74.1%)이 남성(54.4%)보다 자신의 직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모두 전반적으로 자신의 직업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였다.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 그리고 거주 지역별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표 4-23〉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긍정 평가	부정 평가	100점 평균
전체		(400)	20.8	42.3	28.0	7.0	2.0	63.0	9.0	68.2
성별	남성	(226)	18.1	36.3	33.6	8.8	3.1	54.4	11.9	64.4
	여성	(174)	24.1	50.0	20.7	4.6	0.6	74.1	5.2	73.1
연령	50대	(214)	20.1	43.0	28.5	6.5	1.9	63.1	8.4	68.2
	60대	(186)	21.5	41.4	27.4	7.5	2.2	62.9	9.7	68.1

164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긍정 평가	부정 평가	100점 평균
학력	중졸 이하	(82)	9.8	45.1	36.6	8.5	0.0	54.9	8.5	64.0
	고졸	(150)	23.3	40.0	27.3	5.3	4.0	63.3	9.3	68.3
	전문대졸 이상	(168)	23.8	42.9	24.4	7.7	1.2	66.7	8.9	70.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1)	9.8	37.7	37.7	13.1	1.6	47.5	14.8	60.2
	100~200만원 미만	(81)	16.0	43.2	28.4	7.4	4.9	59.3	12.3	64.5
	200~300만원 미만	(87)	16.1	40.2	35.6	6.9	1.1	56.3	8.0	65.8
	300~400만원 미만	(59)	25.4	50.8	18.6	5.1	0.0	76.3	5.1	74.2
	400만원 이상	(112)	31.3	41.1	21.4	4.5	1.8	72.3	6.3	73.9
거주 지역	동부	(284)	23.2	44.0	23.6	8.1	1.1	67.3	9.2	70.1
	읍면부	(116)	14.7	37.9	38.8	4.3	4.3	52.6	8.6	63.6

현재 종사하는 직업이 만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적성, 보람, 성취감 등을 이유로 직업 자체에서 얻는 만족감(38.1%)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엄격하지 않은 근무환경(28.6%),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서 얻는 만족감(22.2%), 경제적인 조건(15.1%)을 이유로 들었다.

〈표 4-24〉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

구분	비율	세부 답변 예시
직업 자체에 만족함 (적성, 보람, 성취감 등)	38.1	- 적성에 맞춤 (9.9%) - 보람 있음 (4.8%) - 즐거움 (2.8%) 등
근무환경에 만족함 (근무규정, 노동강도, 대우 등)	28.6	- 근로시간이 적당함 (7.5%) - 시간이 자유로움 (7.1%) -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음 (2.4%) 등
근무(일)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만족함	22.2	- 일을 할 수 있음 (15.5%) -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음 (4.8%) - 오래 일을 할 수 있음 (1.6%) 등

구분	비율	세부 답변 예시
경제적인 조건에 만족함 (수익, 복지 등)	15.1	- 수익이 생김 (11.1%) - 소일거리 (2.0%) - 보수가 적당함 (1.6%) 등
기타	2.4	- 건강에 도움이 됨 (1.6%) - 미래를 생각함 (0.4%) 등
모름/무응답	5.2	-

한편 현재 직업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적은 급여와 복지 등의 충분하지 않은 경제조건(61.1%)을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엄격한 근무규정이나 센 노동강도 등의 불만족스러운 근무환경(30.6%)이 그다음 순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고령자에게 일정수준의 수입과 유연한 근무환경이 중요하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표 4-2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복수응답)

(단위: %)

구분	비율	세부 답변 예시
경제적인 조건에 불만족함 (수익, 복지 등)	61.1	- 급여/수익이 적음 (33.3%) - 경기가 좋지 않음 (11.1%) - 업무 강도에 비해 급여가 적음 (5.6%) 등
근무환경에 불만족함 (근무규정, 노동강도, 대우 등)	30.6	- 업무 강도가 강함 (8.3%) - 업무시간이 짧음 (8.3%) - 서서 일을 함 (2.8%) 등
직업 자체에 불만족함 (적성, 보람, 성취감 등)	5.6	- 적성에 맞지 않음 (5.6%)
기타	2.8	- 일자리(건수)가 없음/부족함 (2.8%)
모름/무응답	5.6	-

### 다. 연령차별을 받은 경험

다음으로는 경제활동 시 연령차별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먼저 전체 응답자 10명 중 약 4명(38.8%)은 구직 과정에서 연령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50대 보다는 60대 인구집단이,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구직 과정에서 연령차별을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6〉 구직 과정에서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

(단위: %)

구분		사례 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해당 없음
전체		(400)	38.8	58.3	3.0
성별	남성	(226)	41.2	55.8	3.1
	여성	(174)	35.6	61.5	2.9
연령	50대	(214)	36.4	60.7	2.8
	60대	(186)	41.4	55.4	3.2
학력	중졸 이하	(82)	29.3	64.6	6.1
	고졸	(150)	37.3	58.7	4.0
	전문대졸 이상	(168)	44.6	54.8	0.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1)	34.4	60.7	4.9
	100~200만원 미만	(81)	40.7	58.0	1.2
	200~300만원 미만	(87)	49.4	49.4	1.1
	300~400만원 미만	(59)	33.9	64.4	1.7
	400만원 이상	(112)	33.9	60.7	5.4
거주 지역	동부	(284)	42.3	55.3	2.5
	읍면부	(116)	30.2	65.5	4.3

직장에서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겪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90.8%)가 그런 경험이 없다고 밝혔

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학력에서는 전문대졸 이상인 고령자가, 읍면 지역보다는 동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임금이나 복지 후생에 있어 연령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27〉 직장 내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해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은 경험 (단위: %)

구분		사례 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400)	9.3	90.8
성별	남성	(226)	11.9	88.1
	여성	(174)	5.7	94.3
연령	50대	(214)	8.9	91.1
	60대	(186)	9.7	90.3
학력	중졸 이하	(82)	7.3	92.7
	고졸	(150)	9.3	90.7
	전문대졸 이상	(168)	10.1	89.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1)	9.8	90.2
	100~200만원 미만	(81)	12.3	87.7
	200~300만원 미만	(87)	12.6	87.4
	300~400만원 미만	(59)	5.1	94.9
	400만원 이상	(112)	6.3	93.8
거주 지역	동부	(284)	10.6	89.4
	읍면부	(116)	6.0	94.0

직장에서 연령을 이유로 발령, 인사이동, 승진 시 불이익을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91.5%)가 그런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

〈표 4-28〉 직장 내 인사정책(발령, 승진, 인사이동 등)에서 연령 차별 경험 (단위: %)

구분		사례 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400)	8.5	91.5
성별	남성	(226)	9.3	90.7
	여성	(174)	7.5	92.5
연령	50대	(214)	8.9	91.1
	60대	(186)	8.1	91.9
학력	중졸 이하	(82)	8.5	91.5
	고졸	(150)	7.3	92.7
	전문대졸 이상	(168)	9.5	90.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1)	13.1	86.9
	100~200만원 미만	(81)	9.9	90.1
	200~300만원 미만	(87)	10.3	89.7
	300~400만원 미만	(59)	6.8	93.2
	400만원 이상	(112)	4.5	95.5
거주 지역	동부	(284)	9.9	90.1
	읍면부	(116)	5.2	94.8

## 라. 고령자 고용 지원정책 인지 및 욕구

다음으로는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 인지와 욕구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정책 유형별 인지율의 경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62.3%)가 가장 높았고, 연령차별금지법(41.8%), 신사업창업사관학교(39.8%), 계속고용제도(39.5%) 등이 그다음을 차지했다.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응답률에 차이는 있으나 경향성은 전체 응답자 비율과 유사하였다.

〈표 4-29〉 고령자 고용정책 유형별 인지도

(단위: %)

구분		사례수	계속 고용 제도	연령차별 금지법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희망리턴 패키지	노후준비 서비스
전체		(400)	39.5	41.8	62.3	39.8	36.0	31.3
성별	남성	(226)	38.5	40.7	58.8	39.8	35.4	30.5
	여성	(174)	40.8	43.1	66.7	39.7	36.8	32.2
연령	50대	(214)	39.3	40.2	59.8	39.3	32.7	28.0
	60대	(186)	39.8	43.5	65.1	40.3	39.8	34.9
학력	중졸 이하	(82)	25.6	23.2	51.2	23.2	30.5	30.5
	고졸	(150)	46.0	42.0	62.7	36.0	37.3	27.3
	전문대졸 이상	(168)	40.5	50.6	67.3	51.2	37.5	35.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1)	26.2	23.0	42.6	29.5	29.5	21.3
	100~200만원 미만	(81)	33.3	34.6	54.3	32.1	33.3	28.4
	200~300만원 미만	(87)	39.1	46.0	67.8	39.1	40.2	29.9
	300~400만원 미만	(59)	35.6	45.8	67.8	37.3	27.1	28.8
	400만원 이상	(112)	53.6	51.8	71.4	52.7	42.9	41.1
거주 지역	동부	(284)	43.3	45.4	65.8	44.0	37.3	33.8
	읍면부	(116)	30.2	32.8	53.4	29.3	32.8	25.0

계속고용제도와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외한 고령자 고용정책 유형별 이용 의향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대해서는 66.5%가,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서는 66.3%가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희망리턴패키지 이용 의향 비율도 각각 30%대를 웃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0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표 4-30〉 고령자 고용정책 유형별 이용 의향 보유율

(단위: %)

구분		사례 수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희망리턴 패키지	노후준비 서비스
전체		(400)	66.5	33.5	37.3	66.3
성별	남성	(226)	62.4	33.2	34.1	60.6
	여성	(174)	71.8	33.9	41.4	73.6
연령	50대	(214)	63.1	35.0	39.7	66.8
	60대	(186)	70.4	31.7	34.4	65.6
학력	중졸 이하	(82)	65.9	24.4	31.7	62.2
	고졸	(150)	70.7	33.3	38.7	70.7
	전문대졸 이상	(168)	63.1	38.1	38.7	64.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1)	59.0	27.9	24.6	49.2
	100~200만원 미만	(81)	70.4	32.1	39.5	72.8
	200~300만원 미만	(87)	65.5	35.6	37.9	65.5
	300~400만원 미만	(59)	66.1	30.5	32.2	71.2
	400만원 이상	(112)	68.8	37.5	44.6	68.8
거주 지역	동부	(284)	68.3	36.3	39.1	66.5
	읍면부	(116)	62.1	26.7	32.8	65.5

고령자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재취업 지원(28.5%), 정년연장제도의 안착(24.0%),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금전 지원(20.8%)이라고 응답했다. 성별, 학력, 거주 지역별 응답률도 전체 응답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표 4-31〉 고령자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

구분		사례수	1	2	3	4	5	6	7	8
전체		(400)	20.8	28.5	24.0	6.0	16.5	0.8	1.5	2.0
성별	남성	(226)	15.5	33.6	23.5	8.0	15.0	0.4	1.8	2.2
	여성	(174)	27.6	21.8	24.7	3.4	18.4	1.1	1.1	1.7
연령	50대	(214)	27.1	20.6	23.4	7.5	16.8	0.0	2.3	2.3
	60대	(186)	13.4	37.6	24.7	4.3	16.1	1.6	0.5	1.6
학력	중졸 이하	(82)	12.2	31.7	25.6	7.3	13.4	2.4	2.4	4.9
	고졸	(150)	21.3	33.3	22.7	3.3	17.3	0.0	1.3	0.7
	전문대졸 이상	(168)	24.4	22.6	24.4	7.7	17.3	0.6	1.2	1.8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1)	8.2	42.6	19.7	1.6	19.7	0.0	1.6	6.6
	100~200만원 미만	(81)	12.3	37.0	29.6	4.9	13.6	0.0	1.2	1.2
	200~300만원 미만	(87)	11.5	26.4	24.1	12.6	21.8	2.3	1.1	0.0
	300~400만원 미만	(59)	33.9	18.6	22.0	3.4	20.3	0.0	1.7	0.0
	400만원 이상	(112)	33.9	21.4	23.2	5.4	10.7	0.9	1.8	2.7
거주 지역	동부	(284)	22.5	28.9	22.9	6.0	16.5	0.7	1.1	1.4
	읍면부	(116)	16.4	27.6	26.7	6.0	16.4	0.9	2.6	3.4

주: 1은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 2는 '재취업 지원(전문직업교육, 교육훈련 비용 지원, 취업알선 등)', 3은 '정년연장제도 안착', 4는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적인 사회적 문화 개선', 5는 '창업 지원(창업교육, 창업자금 지원 등)', 6은 '기타', 7은 '없음', 8은 '모름/무응답'임.

### 제3절 소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제시된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과제들은 대부분 고령자의 계속고용과 고령자의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중년의 계속고용과 관련해서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과 연령차별 피해자를

위한 구제제도의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퇴직 후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직 준비와 생애경력설계 등과 같은 교육이나 상담 지원, 전문직이나 숙련직 중심의 취업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수당 지원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과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고령자의 비예산 과제 수는 20개 중 4개 과제(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계속고용 관련 중장기적 제도 개편논의 2개 과제,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산업디자인)이다. 나머지 16개 과제의 5년간 소요 예산은 약 1조 7천억원이며, 이 중 계속고용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5년간 약 4천억원인 반면 중고령자의 재취업이나 창업과 관련한 예산은 약 1조 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성격은 크게 인건비(장려금, 지원금 등) 지원과 사업비(컨설팅, 사업운영, 연구개발 등)로 구분 가능하며, 대략적으로 인건비 예산은 약 58%, 사업비 예산은 약 42%로 분석되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거나 고령자가 아닌 일반 성인 대상의 과제가 포함된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제의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추진내용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적절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목표치의 적절성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목적이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5년간 추진실적이 100% 이상 달성하도록 성과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는 등의 현상에 기인한다. 이와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자 경제활동 정책은 주로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거나 안정적인 직업군을 대상으로 계속고용이나 재취업을 지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있고, 반대로 고령자의 취업 비중이 높은

단순노무종사자 같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고령자에 대한 정책과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령자 대상 초점집단인터뷰에서는 대상자의 연령대, 고용안정성 등에 따라 인터뷰 내용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며, 7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터뷰 참여자의 대다수는 구직 과정이나 직장 안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였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업교육이나 IT 교육이 확대되어야 하며, 연령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업종을 발굴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비슷한 연령대의 고령자가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사업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50~60대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환산 기준 68.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과정에서 연령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38.8%로 직장 내 연령차별(10% 미만)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령자 고용정책의 개선사항으로는 재취업 지원, 정년제 안착 등이 높게 나타났다.

〈표 4-32〉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추진과제별 연도별 성과목표(사업 규모)

구분	성과목표 또는 사업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1-1-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근로자 수(명)	1,050	1,150	1,270	1,400	1,500
5-1-1-나	입금체계 개편 지원: 100인 이상 사업체 호봉급 운영 비율(%)	56.7	55.7	54.7	53.7	52.7
5-1-1-다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워라벨 장려금 지원 인원(명)	10,000	10,500	11,025	11,576	12,155
5-1-2-가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	법 개정	-	-	-	-
5-1-2-라	계속고용과 관련된 증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	-	-	-	-	-
5-1-2-나	계속고용과 관련된 증장기적 제도 개편 논의(사회적 공감대 확산)	-	-	-	-	-
5-2-1-가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취창업지원(명)	40,000	60,000	60,000	60,000	60,000
5-2-1-나	전직 준비 기반 마련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생애경력설계 참여자(명)	40,000	25,000	25,000	25,000	25,000
5-2-1-다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신중년 재취업): 고용장려금 승인인원 수	8,000	8,000	8,000	8,000	8,000
5-2-1-라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기술인력): 사업참여자(명)	240	250	250	250	250
5-2-1-나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연구인력): 고경력 채용지원(명)	278	305	335	370	400
5-2-1-다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연구인력): 기술전문경력인 지원(명)	20	20	20	20	20
5-2-1-라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 소상공인 창업 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창업률(%)	75	76	77	78	79
5-2-1-나	신중년 퇴직인력 및 자영업, 소상공인 창업/재기 지원(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을 통한 전직 활동률(%)	70	-	-	-	-

구분	성과목표 또는 사업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3-가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과학기술인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지원 간수	64	67	70	73	76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지원분야 채용	-	-	-	-	-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ICT): 멘토링 횟수	3,605	3,713	3,713	3,713	3,713
5-3-나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산업디자인): 컨설턴트 풀 인원수(명)	400	450	500	550	600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AI 학습 데이터): 데이터셋 구축	-	2개	2개	2개	2개
5-3-나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수	5,000	6,000	7,000	8,000	9,000
	기업 정부 간 협업 통한 사회서비스 활동 연계: 사회서비스 취업자 수	200	300	330	360	4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p. 1198~1274.





## 제5장

### 고령자의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

제1절 고령자의 사회활동 정책 추진현황

제2절 고령자의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

제3절 소결



## 제 5 장 고령자의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

### 제1절 고령자의 사회활동 정책 추진현황

다음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에 포함된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추진과제는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영역에서 2개, ‘신중년의 품격 있고 활기찬 일과 사회참여’에서 4개 과제로 구성된다. 사회활동 영역별로 범주화하면 ① 고령자 교육, ② 고령자 자원봉사, ③ 여가문화, ④ 노후준비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표 5-1〉 사회활동 관련 과제

<b>㉒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b>	
2-2-라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격차 해소(성인문해교육)
2-2-라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격차 해소(디지털 격차해소)
2-3-다	노인교육 강화
<b>㉓ 신중년의 품격 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b>	
5-3-나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5-3-다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확대
5-3-라	신중년/고령자 여가기회 확대(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교육, 관광여행 지원)
	신중년/고령자 여가기회 확대(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활용)

## 1. 고령자 교육

고령자의 교육 관련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성인문해교육 운영과 노인 교육 강화와 관련된 총 2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성인문해교육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 문해력 향상 지원을 통해 의무교육 수준인 초·중학 학력인정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초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해교육 지원 확대 및 다양화와 생활문해 지원 강화를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문해교육 지원 확대는 문해교육기관 대상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찾아가는 방문형 문해교실 운영, 지역 맞춤형 문해교육 특성화 사업 시범운영, EBS 문해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 있다. 생활문해 지원 강화는 초등 및 중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 무상보급, 생활문해 교수 및 학습자료 무상보급 등이 포함된다. 성인문해교육의 성과지표는 문해교육을 지원받은 학습자 수로, 2021년 6.0만명에서 2025년에는 7.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제시했다(대한민국정부, 2021, pp.984~988).

교육부가 2022년에 발표한 ‘2022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 계획’을 보면,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 문해교육 지원, EBS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성인문해교육 교수 및 학습자료 보급으로 구성된다(교육부, 2022).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시설, 야학, 문해교육 전담기관 등에서 실시되며, 문해교육기관은 2021년 기준, 전국에 42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문해 학습자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76,501명으로 집계되었다(교육부, 2022). 이와 함께 교육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강사의 현장 방문(경로당, 마을회관, 학습자의 가정 등)을 통한 방문형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표 5-2〉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내용	세부 내용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해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시설, 야학, 문해교육 전담기관 등 문해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li> <li>- 찾아가는 문해교실: 교육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강사의 현장 방문을 통한 방문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li> </ul>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 문해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 문해교육 특성화: 지역 내 문해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문해교육 특성화 사업 운영</li> <li>- 광역 문해교육 기반 구축: 중앙-지방 문해교육 지원체제 강화 및 광역 단위 문해교육 지원 기반 구축 지원</li> <li>- 문해교육 거버넌스 재구축 연구: 문해교육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지자체(교육청)의 역할 재정립 등 문해교육 체제 정비 연구 추진</li> </ul>
EBS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작·방영	EBS와 연계하여 비대면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인 학습자에게 필요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작·방영
성인문해교육 교수·학습자료 보급	초등, 중학, 생활문해교육 교수·학습자료 무상 보급

자료: 1) 교육부. (2022. 01.). 2022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https://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38&boardSeq=9039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4&opType=N>에서 2022. 12. 19. 인출.  
 2)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p. 984~988.

노인교육 강화는 「평생교육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평생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인교육 강화를 위해서 향후 5년간 고령층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022년), 노인평생교육 활성화 관련 성과 도출 및 확산(2023년 이후)을 계획하고 있으나 노인교육 추진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향후 5년간 소요 예산은 신규사업, 정책연구 등을 통해 예산 소요액을 도출할 예정으로 제시하였다. 노인교육 강화의 성과지표는 고령층(65~79세)의 평생교육 참여율로 2021년 29.5%에서 2025년에는 35.9%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다.

〈표 5-3〉 고령자 교육지원

주요 사업내용	성과지표 및 목표	예산(백만원) (2021~2025)	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문해교육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해교육을 지원받은 학습자 수</li> <li>2021년 6만명 → 2025년 7.3만명</li> </ul>	- 국비: 38,473 (국비 100%)	-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교육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층(65~79세) 평생교육 참여율</li> <li>2021년 29.5% → 2025년 35.9%</li> </ul>	해당 없음	- 교육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p. 984~988, pp. 1014~1016.

## 2. 고령자 자원봉사

고령자의 자원봉사와 관련한 과제로는 행정안전부의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과제가 있다.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는 중고령자(만 50세 이상) 퇴직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목적의 시스템 개선과 기관 간 연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진 내용으로는 퇴직 전문인력의 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퇴직 전문인력 자원봉사 참여 홍보 및 교육, 퇴직 전문인력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확대, 모바일앱 기능 개선,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자원봉사 서비스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5-4〉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주요 사업내용	성과지표 및 목표	예산(백만원) (2021~2025)	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봉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li> <li>2021년 86% → 2025년 90%</li> </ul>	비예산	- 행정안전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p. 1283~1285.

### 3. 고령자 여가문화

#### 가.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교육, 관광·여행 지원

고령자의 여가·문화활동 지원은 신중년·고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관광·여행 등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 과제는 고령자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지원, 고령자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지원, 고령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편리하고 안전한 열린 관광지 확대에 구성된다.

고령자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사업)은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행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내용으로 고령자가 스스로 테마가 있는 국내여행 계획을 수립하고 반복 참여하기 위해 학습과 교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고령자 대상 전국 권역별 꿈꾸는 여행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꿈꾸는 여행자 후속활동 발굴 및 지원으로 구성된다(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2).

〈표 5-5〉 고령자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구분	지원내용
교육 프로그램	7주간 실시 여행 실행력 증진을 위한 이론교육, 졸업여행, 여행계획 발표, 실습 여행 지원
열린 강연회	여행의 즐거움을 소개하는 온/오프라인 토크 콘서트
시니어 커뮤니티	꿈꾸는 여행자 교육과정 수료자의 지속적인 여행 네트워킹 모임

자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2).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사업 개요 및 내용. [http://www.ekta.kr/?act=info.page&pcode=sub2\\_13](http://www.ekta.kr/?act=info.page&pcode=sub2_13)에서 2022. 07. 14. 인출.

고령자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지원(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문화로 청춘’)은 60세 이상 어르신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지원하며, 어르신 문화활동(교육형, 동아리형, 혼합형)과 어르신 사회활동(사회문제해결형, 세대교류형, 지역연계형)을 지원한다.<sup>20)</sup>

고령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에는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과 노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a).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신중년(50~60대) 대상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며, 노인 문화예술교육은 전국 노인복지관에 예술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열린 관광지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무장애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관광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5. 18., p. 1).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 92개 열린 관광지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고령자 여가기회 확대 과제의 성과지표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고령자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참여자 수’ 성과지표의 경우 2025년까지 참여자 수를 750명까지 증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성과지표의 경우 2021년 86.1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만족도를 89.5점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고령자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지원 참여자 수’의 경우 사업 참여자 수를 2025년까지 6,350명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20)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2022). 어르신문화프로그램사업. <https://kccf.or.kr/dspv1/User/bsnsIntrcn/gvrnCnsgnBsns/GvrnCnsgnBsns.do>에서 2022. 07. 13. 인출.

으며, '열린 관광지 조성 개소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2021년 20개소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매년 열린 관광지 20개소 및 열린 관광도시 1개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5-6〉 고령자 여가문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교육, 관광여행 지원

주요 사업내용	성과지표 및 목표	예산(백만원) (2021~2025)	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li> <li>• 고령자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li> <li>• 고령자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li> <li>• 열린 관광지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령자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참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320명 → 2025년 750명</li> </ul> </li> <li>②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86.1점 → 2025년 89.5점</li> </ul> </li> <li>③ 고령자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지원 참여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5,640명 → 2025년 6,350명</li> </ul> </li> <li>④ 열린 관광지 조성 개소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20개 → 2025년 20+1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158,296</li> <li>- 국비: 102,296</li> <li>- 지방비: 56,000</li> </ul>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p. 1295~1307.

## 나.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활용

보건복지부의 고령자의 여가기회 확대 사업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여가, 건강, 사회참여, 교육 제공 등을 포함한다. 경로당광역지원센터(16개소)를 통해 경로당에 여가·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복지관에 인지 및 신체, 건강증진, 노년기 재사회화 등 목표 중심의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프로그램 확대 경로당 수(7종 프로그램 중 전

년 대비 1개 이상 추가 제공한 경로당 수)이며, 2021년에는 6,300개소, 2022년에는 6,360개소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3년 이후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고령자 여가문화활동 계획 사업은 5년간 총 23,06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제시하였다.

〈표 5-7〉 고령자 여가문화 확대: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활용

주요 사업내용	성과지표 및 목표	예산(백만원) (2021~2025)	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로당광역지원센터 지원</li> <li>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확대 경로당 수</li> <li>2021년 6,300개소 → 2022년 6,360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23,064</li> <li>- 국비: 11,532</li> <li>- 지방비: 11,532</li> </ul>	- 보건복지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p. 1308~1312.

#### 4. 노후준비서비스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는 재무·건강·여가 등의 상황을 진단·상담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1년부터 5년 동안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및 정책 기반 강화,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 강화, 노후준비 필요 인식 관련 홍보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5-8〉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 추진내용

구분	세부 내용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및 정책 기반 강화	-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선 및 노후준비 가이드라인 개발 - 기존 상담 및 교육 콘텐츠 재정비 및 신중년 대상 서비스 확대 - 다층 소득보장체계 내실화로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 강화	- 전달체계 개편 준비 및 노후준비 지원센터, 지자체 및 지역 연계기 관 간 협력 표준모델 확대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제고 및 역량관리 강화 - 차세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및 연계서비스 확대
노후준비 인식 및 참여 제고	- 홍보채널 다각화 - 직장인 대상 노후준비 교육 지원 강화 및 단계별 적용 확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p. 1286~1294.

성과지표는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도’와 ‘노후준비 교육 대상자’이며, 2025년까지 노후준비 필요도 인식도 94.3점 달성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5만명에게 노후준비 교육을 제공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10,360백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었다.

〈표 5-9〉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

주요 사업내용	성과지표 및 목표	예산(백만원) (2021~2025)	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준비 진단지표 고도화</li> <li>노후준비 지원 인프라 강화</li> <li>노후준비 인식 개선 홍보 강화</li> </ul>	①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년 93.5점 → 2025년 94.3점</li> </ul> ② 노후준비 교육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1년 23만명 → 2025년 25만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10,360</li> <li>- 국비: 9,785</li> <li>- 지방비: 575</li> </ul>	보건복지부, 중앙·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p. 1286~1294.

## 제2절 고령자의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

### 1. 전문가 서면조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포함된 ‘고령자 사회활동’과 관련된 추진과제 9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의 서면조사를 2022년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지표는 ①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② 추진내용의 적정성, ③ 추진일정의 적절성, ④ 성과지표의 적절성, ⑤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의 다섯 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앙부처별 시행계획 중 고령자 사회활동과 관련한 과제별 모니터링 양적 평가 결과를 보면, 성인문해교육,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신중년 노후준비 강화, 신중년/고령자 여가기회 확대 과제(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 관광여행)는 ①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② 추진내용의 적정성, ③ 추진일정의 적절성, ④ 성과 지표의 적절성, ⑤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에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신중년/고령자 여가기회 확대(경로당, 노인복지관 활용) 과제의 경우 ④ 성과지표의 적절성, ⑤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고령자 사회활동 관련 추진과제별 모니터링 결과(평균)

연번	과제명	지표1	지표2	지표3	지표4	지표5
2-2-라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 격차 해소(성인문해교육)	2.78	2.44	2.56	2.11	2.44
2-2-라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 격차해소(디지털 격차 해소)	2.89	2.89	2.56	2.11	2.00
2-3-다	노인교육 강화	2.89	2.56	2.22	2.22	2.44
5-3-나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 시스템 개선	2.75	2.63	2.87	2.44	2.13
5-3-다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 확대	3.00	3.00	2.89	2.56	2.44
5-3-라	신중년/고령자 여가기회 확대(문화예술프로그램 및 교육, 관광여행 지원)	2.67	2.67	2.78	2.78	2.78
5-3-라	신중년/고령자 여가기회 확대(경로당, 노인복지관 활용)	2.67	2.56	2.22	1.89	1.89

주: 1) 지표 1은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지표 2는 '추진내용의 적정성', 지표3은 '추진일정의 적절성', 지표 4는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표 5는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을 의미함.

2) 3점 척도(1=미흡, 2=보통, 3=우수)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함.

고령자 사회활동 관련 추진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주된 지적사항은 추진내용과 성과지표가 불일치하다는 점과 성과 목표치의 부적절성(낮은 설정으로 인한 목표치 상향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성과지표 설정에서 양적 지표 이외의 질적 지표도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5-11〉 고령자 사회활동 관련 추진과제별 검토의견

연번	과제명	검토의견
2-2-라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 격차 해소 (성인문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반영시기와 학습자료의 보급시기가 불일치함. 따라서 실제 학습자료 배포 후 실시하는 통합 교육 지원 기간의 충분성 검토 필요. 또한 새로운 문해 학습자 발굴도 중요하지만 학습자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방안, 지역적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 필요</li> <li>- 양적 측면 외에 질적 측면도 고려한 측정방법 고민 필요</li> <li>- 교과서 무상 보급 등의 추진내용 효과성 다소 미흡하여 대상자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 필요</li> <li>- 지역별 문해교육 수준 편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미흡. 장기적 성과지표로 농산어촌·대도시의 비문해 인구 비율 제시</li> <li>- 학습자 수와 함께 실제 문해력 상승한 학습자 비율 등을 성과지표로 추가 제시</li> </ul>
2-3-다	노인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인 평생교육 제공기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강화 필요</li> <li>- 과제 목표에 대한 추진절차가 명확해야 함. 과제 목적은 '평생학습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이지만 성과지표는 '평생교육 참여율'로 목적과 성과가 다소 일치하지 않음.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초점(교육기관 발굴, 프로그램 개발 수 등)을 둘 것인지, 평생교육 참여율에 초점을 둘 것인지 명확하게 설정 필요</li> <li>- 고령층 인구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2021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2022년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일정이면 2021~2022년까지는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어려움. 따라서 성과·목표지에서 전년 대비 5% 증가는 2023년 이후부터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임. 또는 성과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2021~2022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는 등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을 변경하는 방안 제시</li> <li>- 과제 목적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공 여량에 대한 내용도 성과지표로 제시하는 방안 제안. 추진 내용에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li> </ul>
5-3-나	기업 정부 간 협업 통한 사회서비스 활동 연계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일자리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li> <li>- 취업자 수 정량 목표는 교육훈련 참여자 수 비율과 비교했을 때 감소 추세. 예로, 2020년 교육훈련 수료자 154명 중 103명 일자리 연계됨(67%). 2025년은 교육훈련 참여자 약 800명 중 400명 취업연계 목표를 세움(50%) 따라서 취업자 수 성과목표 상향조정 필요</li> <li>- 목표지 설정 근거가 전년 실적 대비 100% 증가라고 되어 있지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0명부터 그다음 30명, 40명, 40명씩 일정하지 않게 상향되는 추세이므로 성과·목표지치에 대한 재검토 및 설정 근거에 대한 설명 보완 필요함</li> <li>- 취업자 목표 수치가 매우 낮아 표적 효율성 우려</li> </ul>

연번	과제명	검토의견
5-3-나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업 참여자 수 상향 고려 필요</li> <li>- 시스템 개선에 대한 성과지표를 사용자 만족도로 할 경우 참여율에 대한 문제, 매년 1점의 만족도는 참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여 명확한 차이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li> <li>- 자원봉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는 퇴직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1365 시스템이 갖춰졌는지를 고려할 필요</li> <li>- 과제목적과 성과 지표가 상이함</li> <li>-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도'는 성과-목표치 변화가 미미하고 그 성과변화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노후준비서비스 인식도' 또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인력 확대'로 지표 변경 필요</li> <li>- 내실화 및 정책 기반 강화, 인프라 강화, 인식 및 참여 제고를 하는 만큼 성과 목표치인 노후준비 교육 대상자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상향할 필요 있음</li> <li>- 성과지표가 과제 목적을 측정한다고 보기 어려움</li> </ul>
5-3-라	신중년/고령자 여가기회 확대(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교육, 관광여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민간 여행 프로그램과 차이를 두기 어렵다고 판단됨</li> <li>-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대신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로 변경 필요</li> </ul>
5-3-리	신중년/고령자 여가기회 확대 (경로당, 노인복지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2025년 성과목표 부재</li> <li>- 프로그램의 질적 차원 측정 가능성 우려</li> <li>- 기존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실패가 제시되지 않아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을 가늠하기 어려움</li> <li>- 프로그램 경로당 수 외에 노인복지관의 추진내용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추가 필요. 특히 추진내용에서 목표 중심의 프로그램 보급을 강조하는 만큼 목표 중심 달성 여부 및 목표 중심 프로그램 수 등 측정 필요</li> <li>- 2023~2025년의 프로그램 확대 경로당 수치 제시 필요. 노인복지관의 추진내용에 대한 성과지표 마련, 이후 목표치도 타당하게 수립할 필요</li> <li>- 성과지표에 경로당만 포함하고 노인복지관은 제외되어 수정 필요</li> </ul>

## 2. 초점집단인터뷰

### 가. 조사 개요

초점집단인터뷰(FGI)는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 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였다. 사회활동 초점집단인터뷰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성인문해교육,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5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주된 연령층이 상이하여 프로그램별(집단별) 연령대를 다르게 구성하였다. 성인문해교육은 50~69세,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는 65세 이상,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속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는 50~64세인 자로 제한하였다. 각 집단의 초점집단인터뷰 참여자는 4명으로 구성하였다. 사회활동 초점집단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 및 그 외 사회활동 참여 현황, 향후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그리고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 등으로 이루어졌다.

〈표 5-12〉 고령자의 사회활동 FGI 조사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세 이상 사회활동 참여자</li> </ul>
조사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69세 성인문해교육 참여자 (4명)</li> <li>• 65세 이상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4명)</li> <li>• 50~64세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 참여자 (4명)</li> </ul>
조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프로그램 참여 현황</li> <li>• 해당 프로그램 이외 사회활동 참여 현황</li> <li>• 향후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li> <li>• 정책 제안</li> </ul>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9월 1일 ~ 9월 6일</li> </ul>

사회활동 FGI 참여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앙부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인문해교육 FGI 참여자는 모두 여성이고, 50대 후반 또는 60대로 구성되었으며, 문화예술 교육은 남성 1명, 여성 3명이며 7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FGI는 남성 1명, 여성 3명이 참여하였으며, 50대 3명과 60대 1명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사회활동 FGI 참여자 12명 중 8명은 서울에 거주하고, 3명은 경기, 1명은 인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사회활동 참여자 일반 현황

집단	구분	고유번호	성별	만 연령	거주지	소속
D	성인문해교육	D1	여성	62세	서울	**정보고등학교
		D2	여성	66세	경기	**종합사회복지관
		D3	여성	56세	서울	**평생학습관
		D4	여성	67세	서울	**정보고등학교
E	문화예술교육	E1	남성	80세	서울	**노인종합복지관
		E2	여성	74세	경기	**노인복지관
		E3	여성	70세	서울	**노인복지관
		E4	여성	79세	서울	**노인종합복지관
F	자원봉사	F1	여성	59세	서울	**자원봉사센터
		F2	여성	60세	경기	**자원봉사센터
		F3	여성	52세	서울	**자원봉사센터
		F4	남성	52세	인천	**자원봉사센터

## 나. 주요 내용

### 1) 성인문해교육

성인문해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대체로 배우지 못한 설움을 갖고

살던 와중에 뒤늦게 전단지를 보고 참여하거나, 자녀, 친구 등 주변 지인의 소개로 교육에 참여하였다. 손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문해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참가한 경우도 있었다.

저는 워낙 가정환경 때문에 배우지를 못해서 나이는 제일 어린 것 같은데. 너무 한이 돼가지고 (중략) 저는 딸내미가 추천해 줘서 여기다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졸업장이 없잖아요. 초등학교 다니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다녔거든 평생학습관요. (D3)

저는 친구가 먼저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가지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이 보고 있을 때, 그래서 손녀딸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아,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D4)

성인문해교육 참여자들은 기본적인 교육을 들으며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 단계별로 점차 다양한 과목의 수업을 듣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주 10시간 내외로 참여하고 있고, 학습 도서도 지원받는 등 소요 비용은 따로 없었다.

우리, 저희는 2시간씩 하고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유선으로 해요. 하루에 매일 하는데. 일주일에 이들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3일은 유선으로 공부를 하는데. (D2)

3시간 반. 금요일까지 음악하고, 뭐야 미술이 있을 때는요. 금요일까지도 하고. 그게 틀리더라고요. 다 요일마다. 목요일 날은 3시간 하고, 한 선생님은 국어만. 과목마다 다 틀려요. 저희는 월, 수, 금 50분씩 3번. (D4)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 내지 희열을 느낀다고 이야기하였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며 감사

하다는 반응도 많았다. 오전에 교육을 마치고 오후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불만족 사항으로는 검정고시 관련 의견이 많았는데, 검정고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거나, 과거 학력 증명이 어렵다는 의견,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이웃의 편견이나 무시에 상처를 받았다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어디 가서 이렇게 간판이 눈에 확 들어와서, 그 글자가 딱 들어왔을 때(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어서) 내가 너무 대단해. (D2)

문 열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들어오시잖아요.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딱 들어오시면 세상에 50분 동안 어떻게든지 여기다 한 자리라도 넣어 주시려고.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 닫고 나가실 때 이 돌머리에다가 싹을 피우게 하는 거잖아요. (중략) 저희가, 진짜 인내력이 진짜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D4)

누구한테 내가 학교 다닌다고 그러면 어디 다녀 이러는 거예요. (중략) 재는 무슨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중학생이야 이랬는데, 저번에 누가 어디 얼마큼 다했나 그러니까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부가 밑바닥인 줄은 몰랐대요.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진짜 인생 살아가면서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D3)

## 2) 문화예술교육

노인복지관의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60대 이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배우자가 먼저 이용하면서 함께 참여하거나,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64살 때 큰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 생활을 한 14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65였습니다. 완전 뒷방 늙은이가 되니까, 내 하나가 걸림돌이 된다는 걸 자꾸 이렇게 느끼게 돼요. (중략) 내가 보호해야 될 사람한테 내가 걸림돌이 되는구나 할 즈음에 \*\*복지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E1)

영감님이 아프셨어요, 2000년도에 수술하셔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2001년도에 이제 복지관에 문을 열기 때문에 거기를 그때 지팡이를 짚으시는데, 손잡고서는 거기를 갔어요. (중략) 매일 가다 보니까 제가, 저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아, 여기 복지관 여기에서 봉사를 하자 그러고서, 이제 헬스실 거기에 봉사를 했어요, 보조로. (E4)

노인복지관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대부분 최소 2~3개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난타, 연극, 댄스, 인형극, 미술, 종이접기, 수지침, 수화, 어학공부, 바리스타, 문화재 지킴이 등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문화예술교육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대체로 복지관 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시간이나 횟수 등을 보면, 문화예술교육 및 노인복지관 활동은 주 10~25시간 정도로 참여자별로 다소 편차를 보였으며, 대부분 무료 프로그램이어서 별도의 수강료를 지출하지는 않았다.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문화재 지킴이에 발을 들여다 났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 지킴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상당한 식견이 있는 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벗이 됐죠. 그래서 복지관 생활이 좀 이렇게 참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중략) 댄스 스포츠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E1)

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라인 댄스하고 실버로빅이라는 게 있어요. (중략) 그리고 이제 저는 취미, 여가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또

될 하나면 사군자를 그려요, 사군자. 그 펜 드로잉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너무 즐거워. (E3)

일주일에 5일은 복지관에 나갑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가면 적어도 5시간 이상 머뭙니다. (E1)

복지관에 4일 정도. ... 하루 보통 3시간. (E3)

참여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즐겁고 만족스럽다고 하였고, 사회복지사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였다. 또 건강개선이나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들을 내비쳤다.

내가 평소에 선망의 대상인 거를 돈 안 들이고 다 해보니까, (E1)

그리고 거기 가서 복지사 선생님들이 한마디 따뜻한 말 또 옆에서 해주는 게. 내가 그래서 제2의 스승이라고, 스승. 선생님들이 고맙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반겨주고. 아무리 싫어도 싫은 내색 한 번도 안 하고. (E2)

이렇게 활동을 하니깐 애들, 이제 며느리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관계도 좋아져요. 이렇게 활동을 하니깐 또 며느리도. 또, 애들도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다고 하고 엄마가 건강하게 다니시고 그렇다고. 여기서 막 재네들 막 서운해, 뭐 속상해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야. (E2)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다 좋아진 것 같아요. (E3)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으로는 프로그램 수준과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교육 프로그램이 60대 연령대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공급 확대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연극이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가 선생님이 자주 바뀌니까 내가 싫증을 느끼게 된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모시려는 작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급여를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형편이 안 되니까. (E1)

제 생각은 일단은 지금 우리 세대는 그냥 이렇게 복지관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앞으로 세대는 교육 수준도 높고 모든 게 저기 하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대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교육 수준도 높고. 이러니까 우리도 있지만 복지관에서도 모든 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E2)

이렇게 복지관에서 하면 인원이 적게 모집을 하니까, 추첨을 해갖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못 하니까, 대기가 2년, 2년 대기로 계시는 거예요. (E2)

### 3)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우연한 기회에 참여했다가 흥미나 보람을 느껴 계속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또는 이웃과 주변의 취약한 사정에 연민을 느껴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저는 이제 새마을문고 때문에, 지금 다 작은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하다 이제 이 봉사센터가 생기고 나서 어? 그런 게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봉사센터에 발을 놓고 거기서 기본 교육받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하다가... (F1)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집에서 어려운 어르신 이렇게 몇 분을 정해놓고,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저 혼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혼자 했는데 아는 지인 아저씨가 이렇게 하지 말고 무료급식소가 있으니깐 거기에서 같이 하면 서로 도움이 되니까, 그 어르신도 같이 도움이 되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무료급식소에서 한 지가 지금 11년 됐거든요. (F2)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는데 그때 한 2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제 지인이 그렇게 있으면 우울하니까 우리 영등포 쪽방촌에 봉사 한번, 배식 봉사를 한번 오라 그래서,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 거기에서 제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위로를 받았다 그래야 되나요? 위안을 받은 거예요. (F3)

자원봉사 활동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어르신 대상 봉사, 무료 급식 봉사, 미싱 봉사, 기후/환경 관련 봉사, 학습 지원 봉사, 집수리나 도배/장판 봉사, 봉사단 차원의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자원봉사 참여 시간은 주 2~3시간에서부터 주 40시간 이상까지 다양하였다.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기업의 공모사업에 신청하거나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고, 자원봉사자가 자비를 부담하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돈을 내고 (자원봉사활동을) 하죠. 회비도 내야 되고. 캠프 예산이 모자라면 주머니 돈, 쌈짓돈 막 나가야 되고. 네, 캠프장에 집이 창고화되어 있고. (F3)

무료급식 할 때는 회원들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50명 되거든요. 주머니 내가 다 빼서 해요.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구청, 시청, 농어촌공사 그런 데서 몇억씩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제출하는 서류가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돈을 반납을 했어요. 때려 죽여도 안 한다고. 정부 돈 안 쓴다고. (F4)

참여자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참여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만족 사항으로는 자원봉사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만족감을 표할 때 보람도 느끼고, 이를 통해 다시 동기 부여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그래요. 아니, 그 시간에 좀 더 돈을 버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 버는 거 갖고 그냥 내가 아껴서 쓰고, 저는 너무 이거 봉사를 하면서 행복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요. (F1)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급식을 할 때 아, 이게 뭐야. 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손을 꼭 잡아주면서,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 그 한마디면 내가 욕을 먹든 뭘 했던 그게 없어요. 그냥 싹 녹아요. 그래서 그걸로 다, 그 한마디에 충전이 돼서 다시 또 시작하고, 시작하고. (F3)

자원봉사 활동에서 불만족하는 부분은 우울감이 심한 대상자들을 만나 는 과정에서 봉사자들이 정서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들기도 하였다. 무급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의 소극적 참여, 자원봉사자들 사이의 텃세 분위기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봉사자들을 무급 노동력으로 간주하여 착취하는 수준의 대우를 하는 경우, 일부 봉사자들의 잇속 챙기는 경우 등을 경험하면서 봉사 전반에 부정적 인식이 생긴다고 지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자원봉사를 그냥 무임금 노동자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윗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수요처나 공공에서. 그리고 나는 토요일날 분명히 추석 음식을 다 해서 우리 동네에 다 돌렸는데 일손이 모자란다고 또 이제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중략) 우리를 무임금 노동자로 뭐 1년에, 뭐 한두 번 야유회 데리고 가서 스파 한 번 시켜주고 1년 내 부려먹고 이런 얘기가 이제 술술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봉사자들을 영입을 할 수도 없고. (F3)

제가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우리가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봉사자들 대접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무슨 아시아 경기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전국 체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보자고요. 이 물을 어르신 봉사자들은 다 이렇게 챙겨서 가는 거예요. (중략) 그런 분들이 지금 봉사로 봤을 때는 60세 이상(자원봉사자)이란 말이에요. 많아요, (60세 이상 자원봉사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집이 풍요로워도 뭐라도 챙겨가고 뭐 기념품 있으면 하나만 더 줘. 뭐 해줘. 하나씩 더 챙겨가시는 분, 뭐 공짜로 뭐 부채를 만든다, 여름에. 그러면 줄 서가지고서 하나라도 더 챙겨가고. (F4)

#### 4) 정책적 지원사항

고령자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사항으로 IT 교육 확대, 여행 지원, 복지관 프로그램의 다양화,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세대 간 교류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자원봉사 FGI 집단의 경우 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상해보험, 무료접종, 간병서비스 15일권, 제주도 여행권 등), 고령자 이전 시기부터의 자원봉사 참여 유인 마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등을 제안하였다. 반면,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봉사 본연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의견, 신규 참여자들을 신규 봉사단으로 별도 구성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인되었다.

노인네들이 또 가면 서울역에 가거나 청량리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봤거든요. 컴퓨터로 그거를 하래요. 그리고 역사에 그게 없어요. 찍는 그제. 들어가서 똑똑 똑 두들기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얘기를 하는 거야. 백이면 백 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 활용) 근데 단계적으로 조금 어디 주민 센터에 이렇게 배우고 싶은, 저기 어르신들 와서 배우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D4)

## 202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국가에서, 정부에 바라는 거는 입이 닳도록 몇 번을 얘기해도 노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멋진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이 돼야 복지관이든 노인정이든 활기가 차고, 뭔가 노인들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당당하게 살지. 땅을 내려다보고 앉아 있게 하거나 안 하게 만드는 거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E1)

가끔 이렇게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연계해 갖고 복지관에 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거를 더 자주 있어서, 좀 이렇게 소통하고 그러면 또 좋을 것 같아요. (E2)

정부에서 진짜 이 40대를 봉사로 끌어들이 수 있는 거에 진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그게 우리 마냥 아이들이 10대에서 했을 때 몸에 배듯이 똑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저는 교육도 매번 똑같은 교육이지만, 저는 매번 리바이브를 해야 된다고. 왜? 까먹거든요, 저희 인간은. 그러니까 교육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봉사에 대한 기본 교육도 어느 시점 되면 다시 한번 또 해야 되고. 똑같아요, 그게. 그런데 그건 어른도 똑같아요. 그런데 60대 봉사자, 제가 지금 60대인데 60대 봉사자 하려면 적어도 한 40대에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거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쉽지는 않아요. (F1)

자원봉사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 이렇게 각자 개성이 강한 다양한 나 이대가 모이기 때문에 갈등과 불소통이 분명히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성도 좀 달리 가야 되고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 교육에 대한 것도 오로지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한, 수시 때 플러스 업을 받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진정한 봉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적인 교육이 조금, 저희는, 나라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안 들어줘요. 이렇게, 저는 교육청에 민원도 많이 넣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F3)

### 3. 설문조사

#### 가. 응답자의 일반사항

사회활동 설문조사는 60~79세 고령자 집단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말 기준 주민등록통계를 활용하여 모집단으로 하여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기준 비례할당법을 통해 총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경제활동과 달리 여성(52.3%)의 비율이 더 높고, 연령별로는 70대(34.0%)보다 60대(66.0%)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학력의 경우 중졸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41.8%로 가장 높았고, 고졸 비율이 34.0%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으로는 100만원 미만(42.5%)과 100~200만원 이상(25.8%)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경제활동 설문조사 응답자와 유사하게 응답자의 상당수는 도시지역(74.5%)에 거주하고 있고, 권역별로는 경기·인천(26.5%)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서울(18.3%), 부산·경남권(16.5%)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4〉 사회활동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400)	100.0
성별	남성	(191)	47.8
	여성	(209)	52.3
연령	60대	(264)	66.0
	70대	(136)	34.0
학력	중졸 이하	(167)	41.8
	고졸	(136)	34.0
	전문대졸 이상	(97)	24.3

204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	42.5
	100~200만원 미만	(103)	25.8
	200~300만원 미만	(52)	13.0
	300만원 이상	(75)	18.8
가구원 수	1인	(122)	30.5
	2인	(207)	51.8
	3인	(46)	11.5
	4인 이상	(25)	6.3
거주 지역	동부	(298)	74.5
	읍면부	(102)	25.5
권역	서울	(73)	18.3
	경기/인천	(106)	26.5
	강원권	(20)	5.0
	충청권	(43)	10.8
	대구/경북권	(44)	11.0
	부산/경남권	(66)	16.5
	호남/제주권	(48)	12.0

나. 사회활동 참여 현황

다음으로는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본 조사에서의 사회활동은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닌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지난 한 달 동안 사회활동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4.8%가 사회활동에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70대 인구집단(69.9%), 중졸 이하(64.7%),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집단(66.5%)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5-15〉 지난 한 달 동안 사회활동 참여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
전체		(400)	74.8	25.3
성별	남성	(191)	75.4	24.6
	여성	(209)	74.2	25.8
연령	60대	(264)	77.3	22.7
	70대	(136)	69.9	30.1
학력	중졸 이하	(167)	64.7	35.3
	고졸	(136)	77.2	22.8
	전문대졸 이상	(97)	88.7	11.3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	66.5	33.5
	100~200만원 미만	(103)	74.8	25.2
	200~300만원 미만	(52)	84.6	15.4
	300만원 이상	(75)	86.7	13.3
거주 지역	동부	(298)	75.8	24.2
	읍면부	(102)	71.6	28.4

지난 한 달 동안 참여한 사회활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친목모임(54.5%) 비율이 가장 높고, 취미오락활동(33.0%), 자원봉사활동(29.0%), 스포츠 관람이나 참여(26.5%)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표 5-16〉 지난 한 달 동안 사회활동 유형별 참여율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1	2	3	4	5	6
전체		(400)	21.0	26.5	33.0	19.3	29.0	54.5
성별	남성	(191)	16.2	26.2	37.2	15.7	22.5	56.0
	여성	(209)	25.4	26.8	29.2	22.5	34.9	53.1
연령	60대	(264)	22.7	29.5	37.1	20.1	31.4	58.3
	70대	(136)	17.6	20.6	25.0	17.6	24.3	47.1
학력	중졸 이하	(167)	9.0	18.6	18.0	12.0	23.4	41.9
	고졸	(136)	19.9	27.9	39.0	19.9	25.0	55.1
	전문대졸 이상	(97)	43.3	38.1	50.5	30.9	44.3	75.3

206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구분		사례 수(명)	1	2	3	4	5	6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	11.2	21.2	24.7	14.7	23.5	41.2
	100~200만원 미만	(103)	20.4	26.2	31.1	16.5	24.3	52.4
	200~300만원 미만	(52)	21.2	23.1	30.8	17.3	38.5	71.2
	300만원 이상	(75)	44.0	41.3	56.0	34.7	41.3	76.0
거주 지역	동부	(298)	22.5	26.5	34.6	21.1	29.9	55.7
	읍면부	(102)	16.7	26.5	28.4	13.7	26.5	51.0

주: 1은 '문화예술 관람이나 참여', 2는 '스포츠(운동) 관람이나 참여', 3은 '취미오락활동', 4는 '학습/교육활동', 5는 '자원봉사활동', 6은 '친목모임(동호회 등)'임.

다음으로는 사회활동 유형별 참여 빈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1회 이하는 8.8%, 2~3회는 6.0%로 나타났고, 대체로 참여하지 않았다(79.0%)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빈도 경향성은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대졸 이상 집단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의 월평균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빈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지난 한 달 동안 참여한 사회활동 참여 빈도(문화예술 관람이나 참여)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참여하지 않음	일주일 3회 이상	일주일 1~2회	한 달 2~3회	한 달 1회 이하
전체		(400)	79.0	2.3	4.0	6.0	8.8
성별	남성	(191)	83.8	1.6	2.1	3.7	8.9
	여성	(209)	74.6	2.9	5.7	8.1	8.6
연령	60대	(264)	77.3	1.5	4.5	8.3	8.3
	70대	(136)	82.4	3.7	2.9	1.5	9.6
학력	중졸 이하	(167)	91.0	0.6	1.8	1.8	4.8
	고졸	(136)	80.1	1.5	3.7	6.6	8.1
	전문대졸 이상	(97)	56.7	6.2	8.2	12.4	16.5

구분		사례 수 (명)	참여하지 않음	일주일 3회 이상	일주일 1~2회	한 달 2~3회	한 달 1회 이하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	88.8	1.2	2.4	2.4	5.3
	100~200만원 미만	(103)	79.6	1.9	1.9	5.8	10.7
	200~300만원 미만	(52)	78.8	0.0	3.8	3.8	13.5
	300만원 이상	(75)	56.0	6.7	10.7	16.0	10.7
거주 지역	동부	(298)	77.5	3.0	4.0	6.0	9.4
	읍면부	(102)	83.3	0.0	3.9	5.9	6.9

스포츠 관람 및 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일주일 3회 이상 참여한 비율은 12.0%, 1~2회 참여한 비율은 7.3%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73.5%)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8〉 지난 한 달 동안 참여한 사회활동 참여 빈도(스포츠(운동) 관람이나 참여)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참여하지 않음	일주일 3회 이상	일주일 1~2회	한 달 2~3회	한 달 1회 이하
전체		(400)	73.5	12.0	7.3	3.5	3.8
성별	남성	(191)	73.8	11.5	7.3	3.1	4.2
	여성	(209)	73.2	12.4	7.2	3.8	3.3
연령	60대	(264)	70.5	12.9	9.1	3.8	3.8
	70대	(136)	79.4	10.3	3.7	2.9	3.7
학력	중졸 이하	(167)	81.4	9.0	3.6	2.4	3.6
	고졸	(136)	72.1	13.2	7.4	4.4	2.9
	전문대졸 이상	(97)	61.9	15.5	13.4	4.1	5.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	78.8	11.8	3.5	1.8	4.1
	100~200만원 미만	(103)	73.8	9.7	10.7	3.9	1.9
	200~300만원 미만	(52)	76.9	15.4	3.8	1.9	1.9
	300만원 이상	(75)	58.7	13.3	13.3	8.0	6.7
거주 지역	동부	(298)	73.5	11.7	7.4	3.4	4.0
	읍면부	(102)	73.5	12.7	6.9	3.9	2.9

취미오락활동 참여 빈도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일주일 3회 이상 참여한 비율은 11.0%, 1~2회 참여한 비율은 11.3%로 나타났고, 한 달에 2~3회 참여한 비율은 7.8%였다.

〈표 5-19〉 지난 한 달 동안 참여한 사회활동 참여 빈도(취미오락활동)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참여하지 않음	일주일에 3회 이상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2~3회	한 달에 1회 이하
전체		(400)	67.0	11.0	11.3	7.8	3.0
성별	남성	(191)	62.8	13.1	9.9	10.5	3.7
	여성	(209)	70.8	9.1	12.4	5.3	2.4
연령	60대	(264)	62.9	11.7	13.3	9.8	2.3
	70대	(136)	75.0	9.6	7.4	3.7	4.4
학력	중졸 이하	(167)	82.0	5.4	6.6	3.6	2.4
	고졸	(136)	61.0	11.8	13.2	8.8	5.1
	전문대졸 이상	(97)	49.5	19.6	16.5	13.4	1.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	75.3	9.4	8.2	4.1	2.9
	100~200만원 미만	(103)	68.9	6.8	11.7	9.7	2.9
	200~300만원 미만	(52)	69.2	9.6	9.6	9.6	1.9
	300만원 이상	(75)	44.0	21.3	18.7	12.0	4.0
거주 지역	동부	(298)	65.4	11.4	12.8	7.7	2.7
	읍면부	(102)	71.6	9.8	6.9	7.8	3.9

학습 및 교육활동 참여 빈도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1~2회 (6.8%) 또는 3회 이상(4.8%) 정도 참여하였으나 대체로 참여하지 않은 (80.8%)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지난 한 달 동안 참여한 사회활동 참여 빈도(학습/교육활동)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참여하지 않음	일주일에 3회 이상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2~3회	한 달에 1회 이하
전체		(400)	80.8	4.8	6.8	3.8	4.0
성별	남성	(191)	84.3	3.1	4.7	3.7	4.2
	여성	(209)	77.5	6.2	8.6	3.8	3.8
연령	60대	(264)	79.9	4.9	7.2	4.2	3.8
	70대	(136)	82.4	4.4	5.9	2.9	4.4
학력	중졸 이하	(167)	88.0	1.8	4.8	2.4	3.0
	고졸	(136)	80.1	5.1	5.9	4.4	4.4
	전문대졸 이상	(97)	69.1	9.3	11.3	5.2	5.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	85.3	3.5	4.1	2.9	4.1
	100~200만원 미만	(103)	83.5	2.9	5.8	3.9	3.9
	200~300만원 미만	(52)	82.7	5.8	9.6	1.9	0.0
	300만원 이상	(75)	65.3	9.3	12.0	6.7	6.7
거주 지역	동부	(298)	78.9	5.4	8.1	4.0	3.7
	읍면부	(102)	86.3	2.9	2.9	2.9	4.9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9.3%는 지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3회 이상을, 7.5%는 한 달에 1회 이하로 참여했다고 답변했다. 6.8%는 일주일에 1~2회 활동하였다고 응답했으나 다수는 참여하지 않았다(71.0%)고 답했다.

〈표 5-21〉 지난 한 달 동안 참여한 사회활동 참여 빈도(자원봉사활동)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참여하지 않음	일주일에 3회 이상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2~3회	한 달에 1회 이하
전체		(400)	71.0	9.3	6.8	5.5	7.5
성별	남성	(191)	77.5	8.9	4.7	3.1	5.8
	여성	(209)	65.1	9.6	8.6	7.7	9.1
연령	60대	(264)	68.6	8.3	7.6	6.8	8.7
	70대	(136)	75.7	11.0	5.1	2.9	5.1

210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구분		사례 수 (명)	참여하지 않음	일주일에 3회 이상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2~3회	한 달에 1회 이하
학력	중졸 이하	(167)	76.6	7.2	4.2	6.0	6.0
	고졸	(136)	75.0	8.8	6.6	3.7	5.9
	전문대졸 이상	(97)	55.7	13.4	11.3	7.2	12.4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	76.5	8.8	5.3	2.9	6.5
	100~200만원 미만	(103)	75.7	5.8	6.8	4.9	6.8
	200~300만원 미만	(52)	61.5	15.4	5.8	5.8	11.5
	300만원 이상	(75)	58.7	10.7	10.7	12.0	8.0
거주 지역	동부	(298)	70.1	10.1	7.4	5.7	6.7
	읍면부	(102)	73.5	6.9	4.9	4.9	9.8

동호회 등 친목모임 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22.8%는 한 달에 2~3회 정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 달에 1회 이하로 참여한 비율은 19.3%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의 친목모임 참여 빈도를 보면 41.3%는 한 달에 2~3회 정도 참여했다고 밝혀 그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5-22〉 지난 한 달 동안 참여한 사회활동 참여 빈도(친목모임)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참여하지 않음	일주일에 3회 이상	일주일에 1~2회	한 달에 2~3회	한 달에 1회 이하
전체		(400)	45.5	2.8	9.8	22.8	19.3
성별	남성	(191)	44.0	2.6	7.3	25.7	20.4
	여성	(209)	46.9	2.9	12.0	20.1	18.2
연령	60대	(264)	41.7	2.3	10.6	25.0	20.5
	70대	(136)	52.9	3.7	8.1	18.4	16.9
학력	중졸 이하	(167)	58.1	1.8	5.4	16.2	18.6
	고졸	(136)	44.9	1.5	10.3	27.2	16.2
	전문대졸 이상	(97)	24.7	6.2	16.5	27.8	24.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	58.8	2.4	8.2	15.9	14.7
	100~200만원 미만	(103)	47.6	1.0	5.8	19.4	26.2
	200~300만원 미만	(52)	28.8	3.8	13.5	25.0	28.8
	300만원 이상	(75)	24.0	5.3	16.0	41.3	13.3

구분		사례 수 (명)	참여하지 않음	일주일 3회 이상	일주일 1~2회	한 달 2~3회	한 달 1회 이하
거주 지역	동부	(298)	44.3	3.0	11.7	21.5	19.5
	읍면부	(102)	49.0	2.0	3.9	26.5	18.6

앞에서 살펴본 모든 유형의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미참여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4.7%로 가장 높았다. 시간 부족 외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21.8%), '건강이 안 좋아서'(16.8%), '혼자 즐기는 활동을 좋아해서'(13.9%) 등의 이유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1	2	3	4	5	6	7
전체		(101)	34.7	21.8	16.8	13.9	5.0	3.0	5.0
성별	남성	(47)	29.8	21.3	14.9	21.3	4.3	4.3	4.3
	여성	(54)	38.9	22.2	18.5	7.4	5.6	1.9	5.6
연령	60대	(60)	40.0	26.7	13.3	13.3	0.0	3.3	3.3
	70대	(41)	26.8	14.6	22.0	14.6	12.2	2.4	7.3
학력	중졸 이하	(59)	28.8	25.4	16.9	15.3	5.1	3.4	5.1
	고졸	(31)	38.7	12.9	19.4	12.9	6.5	3.2	6.5
	전문대졸 이상	(11)	54.5	27.3	9.1	9.1	0.0	0.0	0.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7)	22.8	29.8	17.5	17.5	5.3	1.8	5.3
	100~200만원 미만	(26)	42.3	11.5	23.1	7.7	3.8	3.8	7.7
	200~300만원 미만	(8)	62.5	25.0	0.0	0.0	0.0	12.5	0.0
	300만원 이상	(10)	60.0	0.0	10.0	20.0	10.0	0.0	0.0
거주 지역	동부	(72)	34.7	15.3	19.4	16.7	5.6	2.8	5.6
	읍면부	(29)	34.5	37.9	10.3	6.9	3.4	3.4	3.4

주: 1은 '시간이 부족해서', 2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3은 '건강이 안 좋아서', 4는 '혼자 즐기는 활동을 좋아해서', 5는 '참여 가능한 기관이나 관심 있는 프로그램/강좌가 없어서', 6은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7은 '기타'임.

사회활동 유형 중 하나라도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65.9%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00점 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69.8점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지금 참여 중인 사회활동에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24〉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사례 수 (명)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긍정 평가	부정 평가	100점 평균	
전체	(299)	15.4	50.5	32.1	2.0	65.9	2.0	69.8	
성별	남성	(144)	11.8	54.9	31.3	2.1	66.7	2.1	69.1
	여성	(155)	18.7	46.5	32.9	1.9	65.2	1.9	70.5
연령	60대	(204)	16.7	49.0	32.4	2.0	65.7	2.0	70.1
	70대	(95)	12.6	53.7	31.6	2.1	66.3	2.1	69.2
학력	중졸 이하	(108)	13.0	46.3	38.0	2.8	59.3	2.8	67.4
	고졸	(105)	16.2	52.4	30.5	1.0	68.6	1.0	71.0
	전문대졸 이상	(86)	17.4	53.5	26.7	2.3	70.9	2.3	71.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13)	15.0	52.2	31.0	1.8	67.3	1.8	70.1
	100~200만원 미만	(77)	10.4	44.2	44.2	1.3	54.5	1.3	65.9
	200~300만원 미만	(44)	18.2	50.0	31.8	0.0	68.2	0.0	71.6
	300만원 이상	(65)	20.0	55.4	20.0	4.6	75.4	4.6	72.7
거주 지역	동부	(226)	14.2	53.5	30.5	1.8	67.7	1.8	70.0
	읍면부	(73)	19.2	41.1	37.0	2.7	60.3	2.7	69.2

#### 다. 희망하는 사회활동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포함하여 희망하는 사회활동을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1순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스포츠 관람 및 참여가 20.8%로 가장 높았고, 취미오락활동(19.8%),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18.5%), 자원봉사활동(17.3%)이 그 뒤를 이었다.

〈표 5-25〉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활동 유형(1순위)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1	2	3	4	5	6	7
전체		(400)	20.8	19.8	18.5	17.3	15.0	8.0	0.8
성별	남성	(191)	24.6	18.8	18.8	14.1	17.8	4.7	1.0
	여성	(209)	17.2	20.6	18.2	20.1	12.4	11.0	0.5
연령	60대	(264)	18.9	20.8	19.7	17.4	14.0	8.7	0.4
	70대	(136)	24.3	17.6	16.2	16.9	16.9	6.6	1.5
학력	중졸 이하	(167)	21.0	19.8	18.6	19.2	12.0	8.4	1.2
	고졸	(136)	22.1	17.6	16.9	19.9	19.1	4.4	0.0
	전문대졸 이상	(97)	18.6	22.7	20.6	10.3	14.4	12.4	1.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	22.4	16.5	20.0	17.6	15.3	7.1	1.2
	100~200만원 미만	(103)	17.5	19.4	21.4	22.3	11.7	7.8	0.0
	200~300만원 미만	(52)	19.2	25.0	9.6	7.7	26.9	11.5	0.0
	300만원 이상	(75)	22.7	24.0	17.3	16.0	10.7	8.0	1.3
거주 지역	동부	(298)	19.5	20.8	17.8	16.8	15.8	8.4	1.0
	읍면부	(102)	24.5	16.7	20.6	18.6	12.7	6.9	0.0

주: 1은 '스포츠(운동) 관람이나 참여', 2는 '취미오락활동', 3은 '문화예술 관람이나 참여', 4는 '자원봉사활동', 5는 '친목모임 (동호회 등)', 6은 '학습/교육활동', 7은 '기타'임.

2순위의 경우 취미오락활동(26.4%)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밖에도 자원봉사활동(16.8%), 스포츠 관람 및 참여(16.5%)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표 5-26〉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활동 유형(2순위)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1	2	3	4	5	6	7
전체		(375)	26.4	16.8	16.5	15.5	11.5	11.2	2.1
성별	남성	(180)	25.0	17.2	16.1	17.8	11.1	11.1	1.7
	여성	(195)	27.7	16.4	16.9	13.3	11.8	11.3	2.6
연령	60대	(250)	25.6	17.6	16.0	16.8	10.8	11.2	2.0
	70대	(125)	28.0	15.2	17.6	12.8	12.8	11.2	2.4
학력	중졸 이하	(158)	24.7	15.8	19.6	14.6	12.7	10.8	1.9
	고졸	(125)	30.4	18.4	13.6	13.6	11.2	10.4	2.4
	전문대졸 이상	(92)	23.9	16.3	15.2	19.6	9.8	13.0	2.2

214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구분		사례 수(명)	1	2	3	4	5	6	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64)	29.9	17.1	15.9	11.6	11.6	11.6	2.4
	100~200만원 미만	(94)	27.7	10.6	21.3	20.2	9.6	8.5	2.1
	200~300만원 미만	(49)	20.4	34.7	12.2	10.2	12.2	8.2	2.0
	300만원 이상	(68)	20.6	11.8	14.7	22.1	13.2	16.2	1.5
거주 지역	동부	(275)	26.2	17.5	16.7	15.3	10.5	12.4	1.5
	읍면부	(100)	27.0	15.0	16.0	16.0	14.0	8.0	4.0

주: 1은 '취미오락활동', 2는 '자원봉사활동', 3은 '스포츠(운동) 관람이나 참여', 4는 '친목모임 (동호회 등)', 5는 '학습/교육활동', 6은 '문화예술 관람이나 참여', 7은 '기타'임.

희망하는 사회활동 유형 1순위와 2순위 응답 결과를 모두 포함해보면 응답자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은 취미오락활동(4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오락활동 다음으로 스포츠 관람 및 참여(36.3%), 자원봉사활동(33.0%), 친목모임(29.5%)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7〉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활동 유형(1+2순위)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1	2	3	4	5	6	7
전체		(400)	44.5	36.3	33.0	29.5	29.0	18.8	2.8
성별	남성	(191)	42.4	39.8	30.4	34.6	29.3	15.2	2.6
	여성	(209)	46.4	33.0	35.4	24.9	28.7	22.0	2.9
연령	60대	(264)	45.1	34.1	34.1	29.9	30.3	18.9	2.3
	70대	(136)	43.4	40.4	30.9	28.7	26.5	18.4	3.7
학력	중졸 이하	(167)	43.1	39.5	34.1	25.7	28.7	20.4	3.0
	고졸	(136)	45.6	34.6	36.8	31.6	26.5	14.7	2.2
	전문대졸 이상	(97)	45.4	33.0	25.8	33.0	33.0	21.6	3.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	45.3	37.6	34.1	26.5	31.2	18.2	3.5
	100~200만원 미만	(103)	44.7	36.9	32.0	30.1	29.1	16.5	1.9
	200~300만원 미만	(52)	44.2	30.8	40.4	36.5	17.3	23.1	1.9
	300만원 이상	(75)	42.7	36.0	26.7	30.7	32.0	20.0	2.7
거주 지역	동부	(298)	45.0	34.9	32.9	29.9	29.2	18.1	2.3
	읍면부	(102)	43.1	40.2	33.3	28.4	28.4	20.6	3.9

주: 1은 '취미오락활동', 2는 '스포츠(운동) 관람이나 참여', 3은 '자원봉사활동', 4는 '친목모임 (동호회 등)', 5는 '문화예술 관람이나 참여', 6은 '학습/교육활동', 7은 '기타'임.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교육으로는 스포츠 교육(26.5%), 디지털 교육(20.8%), 문화예술교육(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8〉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 유형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스포츠 (운동) 교육	디지털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어학 관련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기타	없다	
전체	(400)	26.5	20.8	19.3	10.8	8.5	1.8	12.5	
성별	남성	(191)	23.6	24.6	17.3	5.8	11.0	2.1	15.7
	여성	(209)	29.2	17.2	21.1	15.3	6.2	1.4	9.6
연령	60대	(264)	25.0	22.3	21.6	9.8	10.6	1.1	9.5
	70대	(136)	29.4	17.6	14.7	12.5	4.4	2.9	18.4
학력	중졸 이하	(167)	34.1	17.4	13.8	6.6	7.2	1.2	19.8
	고졸	(136)	23.5	21.3	21.3	12.5	10.3	2.2	8.8
	전문대졸 이상	(97)	17.5	25.8	25.8	15.5	8.2	2.1	5.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	30.6	15.9	15.9	8.2	9.4	2.9	17.1
	100~200만원 미만	(103)	23.3	25.2	19.4	14.6	7.8	1.0	8.7
	200~300만원 미만	(52)	30.8	17.3	23.1	11.5	3.8	0.0	13.5
	300만원 이상	(75)	18.7	28.0	24.0	10.7	10.7	1.3	6.7
거주 지역	동부	(298)	25.2	20.1	19.5	12.8	8.7	1.7	12.1
	읍면부	(102)	30.4	22.5	18.6	4.9	7.8	2.0	13.7

1주일을 기준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일수를 묻는 질문에 1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3%로 가장 높았다. 29.8%는 2일, 17.5%는 3일이라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일주일 중 평균 약 2일을 사회활동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9〉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1주당 할애가 가능한 일수

(단위: %, 일)

구분	사례 수 (명)	할애할 수 있는 날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평균	
전체	(400)	7.3	34.3	29.8	17.5	4.0	7.3	2.0	
성별	남성	(191)	10.5	36.6	24.6	14.1	5.2	8.9	2.0
	여성	(209)	4.3	32.1	34.4	20.6	2.9	5.7	2.1
연령	60대	(264)	6.8	37.5	29.9	14.8	4.5	6.4	1.9
	70대	(136)	8.1	27.9	29.4	22.8	2.9	8.8	2.2
학력	중졸 이하	(167)	11.4	28.1	32.9	16.2	3.6	7.8	2.0
	고졸	(136)	6.6	41.2	25.0	19.9	1.5	5.9	1.9
	전문대졸 이상	(97)	1.0	35.1	30.9	16.5	8.2	8.2	2.2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	10.6	32.4	29.4	16.5	2.9	8.2	2.0
	100~200만원 미만	(103)	5.8	37.9	30.1	14.6	1.9	9.7	2.0
	200~300만원 미만	(52)	3.8	40.4	34.6	13.5	3.8	3.8	1.8
	300만원 이상	(75)	4.0	29.3	26.7	26.7	9.3	4.0	2.2
거주 지역	동부	(298)	6.4	31.5	30.9	19.8	4.4	7.0	2.1
	읍면부	(102)	9.8	42.2	26.5	10.8	2.9	7.8	1.8

1주일 동안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3%로 가장 높았고, 3시간 미만(31.5%), 6~9시간 미만(13.5%)이라고 답한 비율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1주일 동안 평균 약 5시간을 소비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0〉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1주당 할애가 가능한 시간

(단위: %, 시간)

구분		사례 수(명)	할애할 수 있는 시간 없음	3시간 미만	3~6시간 미만	6~9시간 미만	9~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평균
전체		(400)	6.3	31.5	36.3	13.5	5.5	7.0	4.9
성별	남성	(191)	8.4	25.7	37.7	11.5	6.8	9.9	5.8
	여성	(209)	4.3	36.8	34.9	15.3	4.3	4.3	4.1
연령	60대	(264)	5.3	31.4	37.5	14.8	4.5	6.4	4.9
	70대	(136)	8.1	31.6	33.8	11.0	7.4	8.1	4.8
학력	중졸 이하	(167)	9.6	32.9	32.9	12.0	3.6	9.0	4.9
	고졸	(136)	5.9	33.8	32.4	14.7	8.1	5.1	4.9
	전문대졸 이상	(97)	1.0	25.8	47.4	14.4	5.2	6.2	5.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	8.2	35.9	34.1	8.2	4.1	9.4	5.0
	100~200만원 미만	(103)	5.8	25.2	41.7	16.5	3.9	6.8	5.2
	200~300만원 미만	(52)	3.8	44.2	38.5	5.8	5.8	1.9	3.4
	300만원 이상	(75)	4.0	21.3	32.0	26.7	10.7	5.3	5.3
거주 지역	동부	(298)	6.0	30.2	34.9	16.1	6.0	6.7	5.0
	읍면부	(102)	6.9	35.3	40.2	5.9	3.9	7.8	4.5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질문하였다. 응답 비율을 보면 10만원 이상이 25.0%, 5~10만원 미만이 19.5%, 3만원 미만이 19.8%로 나타나,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한 달 동안 평균 약 7만원을 소비할 의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비용을 지출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도 23.0%로 적지 않았다.

한 달 동안의 평균 지출 비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5만원)보다 남성(9만원)이, 연령별로는 70대(5만원)보다 60대(7만원)가,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3만원)보다는 전문대졸 이상(11만원)이, 거주 지역별로는 읍면부(6만원)보다 동부(7만원)일수록 사회활동에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

은 300만원 이상 집단의 지출 의향 비용이 평균 약 13만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1개월당 지출 가능한 비용

(단위: %, 원)

구분		사례수 (명)	비용 투자할 의향 없음	3만원 미만	3만원 ~ 5만원 미만	5만원 ~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평균
전체		(400)	23.0	19.8	12.8	19.5	25.0	66,112.5
성별	남성	(191)	22.0	17.3	12.6	16.8	31.4	88,141.4
	여성	(209)	23.9	22.0	12.9	22.0	19.1	45,980.9
연령	60대	(264)	18.6	20.5	13.3	22.3	25.4	72,537.9
	70대	(136)	31.6	18.4	11.8	14.0	24.3	53,639.7
학력	중졸 이하	(167)	32.3	29.9	12.0	12.0	13.8	34,940.1
	고졸	(136)	19.1	15.4	16.2	22.1	27.2	73,970.6
	전문대졸 이상	(97)	12.4	8.2	9.3	28.9	41.2	108,762.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	37.1	25.9	10.6	10.6	15.9	42,470.6
	100~200만원 미만	(103)	16.5	20.4	14.6	24.3	24.3	59,854.4
	200~300만원 미만	(52)	15.4	11.5	15.4	34.6	23.1	64,615.4
	300만원 이상	(75)	5.3	10.7	13.3	22.7	48.0	129,333.3
거주 지역	동부	(298)	23.2	18.5	13.4	18.1	26.8	69,161.1
	읍면부	(102)	22.5	23.5	10.8	23.5	19.6	57,205.9

## 라. 정책적 지원 사항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정책 인지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노인복지관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인지율이 80.3%로 가장 높았고, 자원봉사센터(74.8%), 디지털 배움터(70.0%), 성인문해교육(41.3%) 등이 그다음을 차지했다.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아도 노인복지관의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표 5-32〉 고령자 대상 사회활동 지원정책 유형별 인지율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자원 봉사센터	노인 복지관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고령자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성인 문해교육	디지털 배움터
전체		(400)	74.8	80.3	34.8	41.3	70.0
성별	남성	(191)	68.1	75.4	31.9	35.6	64.9
	여성	(209)	80.9	84.7	37.3	46.4	74.6
연령	60대	(264)	75.8	80.7	35.2	42.8	71.2
	70대	(136)	72.8	79.4	33.8	38.2	67.6
학력	중졸 이하	(167)	70.7	75.4	31.7	34.1	62.9
	고졸	(136)	75.0	80.9	33.1	40.4	69.1
	전문대졸 이상	(97)	81.4	87.6	42.3	54.6	83.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	63.5	71.8	24.1	31.2	61.2
	100~200만원 미만	(103)	84.5	84.5	38.8	41.7	75.7
	200~300만원 미만	(52)	76.9	82.7	44.2	46.2	65.4
	300만원 이상	(75)	85.3	92.0	46.7	60.0	85.3
거주 지역	동부	(298)	74.5	79.9	38.3	42.6	72.8
	읍면부	(102)	75.5	81.4	24.5	37.3	61.8

마지막으로 50대 이상 고령자의 사회활동 영역 중에서 향후 확대가 필요한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3.8%가 자원봉사로 응답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원봉사 외에 문화예술(21.0%), 스포츠(19.8%), 친목활동(16.8%)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표 5-33〉 향후 확대되어야 할 고령자 사회활동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자원 봉사	문화 예술	스포츠 (운동)	친목 활동	학습/ 교육	기타	없음	모름/ 무응답
전체		(400)	23.8	21.0	19.8	16.8	12.8	1.3	1.0	3.8
성별	남성	(191)	24.1	18.8	16.8	23.6	11.5	0.5	1.0	3.7
	여성	(209)	23.4	23.0	22.5	10.5	13.9	1.9	1.0	3.8

구분		사례 수 (명)	자원 봉사	문화 예술	스포츠 (운동)	친목 활동	학습/ 교육	기타	없음	모름/ 무응답
연령	60대	(264)	26.1	22.7	18.9	14.4	14.4	1.1	0.4	1.9
	70대	(136)	19.1	17.6	21.3	21.3	9.6	1.5	2.2	7.4
학력	중졸 이하	(167)	27.5	16.2	19.2	16.8	9.0	1.8	2.4	7.2
	고졸	(136)	20.6	22.1	22.1	20.6	14.0	0.0	0.0	0.7
	전문대졸 이상	(97)	21.6	27.8	17.5	11.3	17.5	2.1	0.0	2.1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0)	22.9	21.8	20.0	18.8	7.1	1.8	1.8	5.9
	100~200만원 미만	(103)	23.3	18.4	19.4	14.6	18.4	1.9	1.0	2.9
	200~300만원 미만	(52)	32.7	19.2	23.1	15.4	7.7	0.0	0.0	1.9
	300만원 이상	(75)	20.0	24.0	17.3	16.0	21.3	0.0	0.0	1.3
거주 지역	동부	(298)	23.5	20.5	19.5	16.4	13.4	1.7	1.3	3.7
	읍면부	(102)	24.5	22.5	20.6	17.6	10.8	0.0	0.0	3.9

### 제3절 소결

고령자의 사회활동 관련 사업은 총 6개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사업 20개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자 사회활동 사업내용은 성인문해교육, 자원봉사, 여가문화, 노후준비서비스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령자 교육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고령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과제를 제시하기 보다는 성인문해교육을 대표적인 고령자 교육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인교육 강화 과제는 신규사업으로 2021년 정책연구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2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추진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자 자원봉사 과제도 직접적인 고령자의 자원

봉사 활동 영역을 넓히고 참여를 확대하는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기존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간접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고령자 여가문화 과제는 문화예술과 여행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문화여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고령자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령자에 맞는 여행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고령자를 포함한 이동 취약계층의 여행 및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노후준비도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와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자 사회활동 과제의 성과목표는 과제 목표나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있으며, 주로 계량적 목표치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과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우상향하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수준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성인문해교육의 경우 2022년에 이미 문해교육 학습자 수가 7.6만명이지만, 5년간 성과 목표치를 2021년 6.0만명에서 2025년 7.3만명으로 낮게 설정하고 있다. 고령자 여가기회 확대(경로당, 노인복지관 활용) 과제는 2023년 이후 목표치가 부재하며, 행안부의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의 성과목표는 자원봉사시스템 사용자의 만족도(%)로 고령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만족도를 의미하며, 특히 디지털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자의 자원봉사시스템 사용률은 낮을 것으로 보여 고령자 중심의 성과지표로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고령자의 사회활동과 관련한 7개 과제 중 노인교육 강화,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과제를 제외한 4개 과제 예산은 약 2,300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고령자 여가기회 확대 예산이 전체의 약 69%를 차지한다.

222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표 5-34〉 고령자 사회활동 관련 추진과제별 연도별 성과목표(사업 규모)

구분	성과목표 또는 사업규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2-라	성인문해교육 운영: 학습자 수(명)	60,000	63,000	66,000	69,000	73,000
2-3-다	노인교육 강화: 평생교육 참여율(%)	29.5	31	32.5	34.1	35.9
5-3-나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 활성화: 자원 봉사 시스템 만족도(점)	86	87	88	89	90
5-3-다	신중년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및 참여확대					
	① 노인준비 필요도(점)	93.5	93.7	93.9	94.1	94.3
	② 노후준비 교육 대상자(명)	23만	25만	25만	25만	25만
5-3-라	신중년/고령자 여가 기회 확대(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교육, 관광여행 지원)					
	① 여행 프로그램 참여자 수	320	320	570	570	750
	②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86.1	86.9	87.8	88.7	89.5
	③ 문화예술교육지원 참여자 수(명)	5,640	5,800	5,980	6,160	6,350
	④ 열린 관광지 조성(개소수)	20	20+1	20+1	20+1	20+1
5-3-라	신중년/고령자 여가기회 확대(경로당, 노인복지관 활용): 프로그램 확대 경로당 수	6,300	6,360	-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pp. 984~988, pp. 1014~1016, pp. 1283~1312.

사회활동 영역별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인터뷰는 사회활동 영역에 따라 참여자의 연령대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인문해교육 참여자는 60대,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는 80세 전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자는 60대가 주를 이루어 인터뷰의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영역별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높았으나, 일부 자원봉사자 참여자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우울, 스트레스 등) 등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의 현황과 정책인지도 및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60~79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75%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5%는 시간 부족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친목모임과 취미오락활동 참여율이 높았으며, 희망하는 사회활동으로는 취미오락활동, 스포츠 관람이나 참여, 자원봉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적으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사회활동은 자원봉사, 문화예술, 스포츠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6장

## 결론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제2절 정책과제



## 제 6 장    결론

###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본 연구는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의 전반적인 현황과 변화 양상을 토대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개선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을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이차자료 분석, 전화조사, 초점집단인터뷰 등을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추이와 특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본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다음 절에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1. 선행연구 검토

고령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최근 문헌을 살펴보면, 노년기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건강하며, 비근로소득이 적은 계층이며, 노년기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삶의 만족과 인지건강, 정신건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 근로자의 근로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령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열악한 사업장 환경으로 인해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들은 높은 고용불안성과 신체적 침해, 건강권 침해, 차별적 표현이나 편견 등의 차별

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령자의 사회활동과 관련해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회활동 정책 영역인 여가활동, 교육, 자원봉사, 노후준비와 관련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고령자의 여가활동에 관한 최근 연구는 여가 특성이나 유형화 연구, 세대 간 여가 특성 비교분석, 여가활동의 효과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고령자의 여가 특성은 여전히 산책이나 TV 시청 같은 소극적인 여가 중심이지만 여가활동의 다양화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의 교육 관련 선행연구는 평생교육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교육 중심이며, 평생교육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특성 및 한계 중심의 연구나 해외 노인교육과 관련한 사례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고령자의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고령자 자원봉사 참여자의 특성과 한계, 중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긍정적 영향(안녕감, 삶의 질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는 노후준비 유형별 준비도와 특성, 노후준비 수준이 삶에 미치는 결과 등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현황

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55~64세 연령대와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 2019년 이후 실업률은 55~64세 연령대보다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만 15세 이상 취업자 중 55세 이상자는 2011년 20.1%에서 2021년 30.8%로 고령 근로자 비중이 10%p 증가하였으며,

7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도 2011년 15.7%에서 2021년 22.0%로 증가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자영업자 비율은 10%p가량 감소하였다. 그러나 연령대별로는 55~64세와 65~74세는 상용근로자 비율이 증가한 반면, 75세 이상은 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률이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직업군 분포를 보면, 5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 관리자 직업군과 농림어업종사자 직업군의 비율은 1.0% 이하, 판매종사자 직업군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직업군은 10~20% 수준이었다. 그러나 7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문가 및 사무종사자 직업군과 단순노무종사자 직업군으로 이원화되는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55~79세 고령자의 약 68%는 앞으로 일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리의 형태는 65~69세를 전후로 전일제와 시간제 선호 비율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55~64세 연령대는 전일제를 선호하는 반면, 65~69세는 전일제와 시간제 비율이 유사하고, 70~79세 연령대에서는 시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질적인 희망 은퇴 연령은 평균 73세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희망 은퇴연령도 높았다.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 현황을 여가, 교육, 자원봉사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여가활동은 취미·오락과 휴식 중심이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고령자의 약 73%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인터넷 기반 방송, 드라마, 영화, 게임, 음악감상, 모바일 메신저, 웹서핑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0대의 20%, 70대 이상의 약 70%는 인터넷을 활용한 여가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자(55~79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7년 28.0%에서 2019년 35.1%로 증가하다가 2020년 32.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 참여영역은 주로 문화예술스포츠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직업능력향상교육 참여율이 2017년 6.8%에서 2020년 1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평생학습의 성과는 주로 심리적 만족, 건강관리, 친목도모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취업·이직·창업, 고용안정, 소득증대와는 관련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20년 기준 8.4%(55~79세 기준), 7.0%(50세 이상)로 자원봉사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고령자의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실인원은 2019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분야는 사회복지(아동, 청소년, 노인 등), 환경, 그리고 안전 분야로 나타났다.

### 3. 고령자 경제활동 정책 모니터링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에 제시된 고령자의 경제활동 관련 과제는 총 20개로 구성되며, 고령자의 계속고용과 재취업 지원이 주된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고령자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정년은 법적으로 60세이지만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49.3세(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22년 5월)로 법정 정년과 10여년의 괴리가 있다. 이로 인해 고령자 고용정책은 60세 이상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거나 50대 고령자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한 과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등이 있다. 계속고용장려금의 현금지원은 고령자 1인당 최대 90만원(월 30만원)으로 고령자의 채용

을 유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에 관한 정책 내용은 고령자의 계속고용정책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와 관련한 과제 내용도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러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퇴직 후 재취업 및 창업지원은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전문직 고령자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고령자 직업알선이나 교육 및 상담 등의 사업은 전국 31개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2022년 8월 기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고령자의 재취업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희망리턴패키지도 고령자의 창업지원사업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령자 대상의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창업준비 또는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대상의 사업이다. 전반적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고령자 고용정책으로 고령자의 고용연장이나 전반적인 근로환경 개선 또는 재취업이나 창업지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은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추진내용, 향후 5년간의 추진일정, 성과지표, 성과 목표치 등의 5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 서면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경제활동 시행계획에서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합성, 추진내용의 적정성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성과지표나 성과 목표치의 적절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거나, 정책 대상이 고령자가 아닌 일반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이 포함되어 있거나, 성과지표가

명시되지 않거나, 성과 목표치가 매우 낮게 설정되어 5년간 정책 추진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추진과제들이 발견되었다.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한 고령자들은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령자로서 직간접적인 차별이나 편견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앞둔 고령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나 업무배치, 무언의 무시, 일방적인 편견 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본인들도 젊었을 때 가졌던 고령자에 대한 편견이기도 하고, 스스로 신체적인 노화를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FGI 참여자도 있었다. FGI 참여자들은 취업이 된다면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으며, 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건강이나 생활의 활력 유지를 생계 유지만큼이나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이나 디지털교육 같은 재교육의 확대,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마련,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50~69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는 구직 과정에서 연령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38.8%로 나타났고, 직장 내 임금이나 복지후생에서는 9.3%, 직장 내 인사정책(발령, 승진 등)에서는 8.5%가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구직과 채용 과정에서 연령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직장 내에서 고령 근로자의 차별 경험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경제활동정책 인지도와 관련해서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인지도가 62.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밖에 계속고용제도, 연령차별금지법, 희망리턴패키지 등에 대한 인지도는 40% 안팎이었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지원, 정년제도의 안착, 고령자 고용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4. 고령자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21년도 시행계획을 진단하였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에 제시된 고령자의 사회활동 관련 과제는 총 6개로 구성된다.

고령자의 사회활동 과제들은 고령자 교육, 자원봉사, 신중년 노후준비 서비스, 여가기회 확대 등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고령자 교육은 성인 문해교육이 중심이고, 고령자 평생교육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며, 자원봉사활동도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를 증진시키는 내용보다는 기존 전산시스템 개선과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가 주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고령자의 여가기회 확대는 고령자 맞춤형 여행, 고령자 맞춤형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 열린 관광지 확대 등 고령자의 여가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령자의 사회활동에 관한 정책은 새로운 욕구를 발굴하고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연장선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6개의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①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② 추진내용의 적정성, ③ 추진일정의 적절성, ④ 성과지표의 적절성, ⑤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이 양호한 편이었지만, 일부 과제의 경우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한 성인문해교육 참여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해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배움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지만, 성인문해교육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노인복지관의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문화

예술교육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양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 3~5회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활동적인 노화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늘어나는 고령자에 비해 노인복지관이나 여가시설에 대한 지원 부족, 여가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60대 고령자에 맞는 문화예술 및 여가 프로그램의 미흡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FGI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연령대는 50대로 성인문해교육이나 노인복지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자에 비해 연령대가 낮았다. FGI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직장인 수준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금전적인 지출을 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되기도 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취약계층을 직접 만나는 활동을 하면서 심리적 위축이나 우울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조사에 참여한 고령자(60~79세)의 사회활동 현황을 보면, 사회활동 참여자는 74.8%로 나타났으며, 친목모임, 취미오락, 자원봉사, 스포츠 관람이나 참여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약 25%의 고령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희망하는 사회활동 유형은 스포츠 관람이나 참여, 취미오락, 자원봉사 등의 순이었으며,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확대되어야 할 정책은 자원봉사, 문화예술, 스포츠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고령자가 희망하는 활동과 정책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활동에 대한 응답이 다소 다르게 조사되었다. 즉, 고령자들은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스포츠(운동)이나 취미오락에 대한 선호가 컸지만, 정책적으로는 사회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였다.

## 제2절 정책과제

### 1. 고령자 경제활동

#### 가. 고령자 고용 지원정책 대상 확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자 고용정책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40대 중·후반과 50대를 대상으로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고용정책적 변화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중에 60세 이후의 계속고용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원 대상이 연간 1,500명 미만으로 정책적 파급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고용정책이 아닌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과제의 일환으로, 일반 노동시장에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으로 보기도 어렵다.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 30.7%에서 2021년 36.3%로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의 실업률도 2012년 2.1%에서 2021년 3.8%로 15세 이상의 실업률 3.7%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기대수명의 증가와 초고령사회의 생산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하고 근로의지가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중요 과제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이 낮은 비숙련 취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정책의 주요 정책은 전문직이나 숙련직 또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계속고용이나 재취업을 지원하는 과제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sup>21)</sup> 일반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이나 재취업 교육 및 상담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기술이나 경력이 부족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나.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 해소

고령 근로자의 근로 현황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이차자료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에 관한 부분이다. 5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은 58.9%(2021년 기준)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55~64세 25.5%, 65~74세 37.6%, 75세 이상 45.1%로 조사되었다(고용노동부, 2021). 계속고용 지원 정책이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 과제 중 고령자의 고용불안정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계속고용 지원정책은 고용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는 없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이 검토가 필요하다. 50대와 60대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주 40시간이 보장되고 그에 걸맞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65

2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세부 목표에는 퇴직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취업기회 확대(기술인력, 이공계 고경력 인력 등 지원), 전문성과 숙련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학기술인,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퇴직전문인력 등 지원)으로 제시되어 있어 주로 전문성을 갖춘 고령자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음.

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정규직 보다는 낮은 수준의 급여를 선호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 해소가 고령자 고용정책의 목표 중의 하나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고, 50대와 60대의 고령 근로자가 좀 더 양질의 근로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적게 일하고 적게 보상받기를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요구된다. 즉,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서 단기간이나 일용직의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고령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설계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다. 고용상의 연령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본 연구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인 터뷰와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구직 과정에서 연령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류나 절차상의 공식적인 연령차별은 드러나지 않지만, 채용 결과 발표 이후 연령차별을 받은 것을 알게 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고용상의 연령차별에 대해서 고령자들은 본인들도 청년 또는 중년기에 고령자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차별을 한 적이 있고, 직장 내 연령차별 문화가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하는 연령차별을 어쩔 수 없는 사회통념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령으로 인해 채용이나 인사,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문화나 사회적 구조는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저해요인이 된다. 그리고 근로자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고령 근로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시장에서 작동되고 있는 연령차별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된 연령차별금지와 관련한 과제로는 ‘연령차별금지 구제제도 개선’이 있다. 그러나 해당 과제의 주요 내용은 연령차별 구제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밖에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고용상의 연령차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용과 관련한 연령차별의 구체적인 사례 자료와 이에 대응한 제도적 개선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법과 제도적으로 고용상의 연령차별금지를 강제하기보다는 연령통합적인 사회로의 사회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라. IT 기술 등을 활용한 물리적 작업환경 개선 및 보조장비 지원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장의 물리적 환경은 고령자가 아닌 건강한 청년이나 중년에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초점집단인터뷰 참여자의 일부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60세 전후가 되면서 업무수행이나 일상에서 신체적 기능 저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세 이후 신체적 노화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고, 실제로 기능상의 제약이 일부 수반되기 때문에 IT 기술이 접목된 보조기구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기능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이 요구된다. 실제로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돌봄노동 현장에서는 돌봄인력의 업무강도 완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보조장비 개발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신체능력 저하 등을 고려한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이 추진과제로 포함되어 있지만, 과제 내용을 보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과 유연근무제 확산에 관한 정책으로 고령자 대상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일반 근로자 대상의 정책이며, 고령자의 물리적 작업환경 개선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고령 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지원’ 과제가 포함되어 직종별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고령 근로자에게 적합한 시설 및 품목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못했다.

향후 고령자 고용정책은 고령자의 기능 저하에 따른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고령자의 노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물리적 작업환경 및 ICT 기술을 접목한 보조장비 개발과 연구, 그리고 사업장 적용 등이 정책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2. 고령자의 사회활동

### 가. 고령자의 사회활동 정책의 다양화 모색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자 사회활동 관련 추진과제는 기존에 진행되어 온 사업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고령자의 변화하는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여 확대하려는 시도는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성인문해교육과 노후준비서비스, 그리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활용한 여가 기회 확대에 포함된 정책 내용은 기존 사업을 지속 유지하는 내용이며, 자원봉사 활성화 과제는 전산시스템 개선이 주된 내용이다. 한편, 문화관광체육부의 고령자 여가문화 관련 과제는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사업개발과 여가 영역 확대를 추구하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한계로 보인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자의 돌봄과 건강지원, 경제활동 확대 등과 같이 고령자 대상의 공공정책에서 배분해야 할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며, 고령자의 사회활동 정책은 다른 고령정책 영역과 비교하여 관심도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길어진 노년기의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년기의 사회활동 참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중심의 고령자 사회활동에 대한 정책 개발과 지원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세대 간 교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활동, 후기 노인의 활동적 노화를 위한 사회활동,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사회활동 등과 같은 새로운 대상과 콘텐츠를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나. 고령자 교육제도 강화

고령자가 30~40년 전에 습득했던 지식이나 기술로 인생 후반기를 영위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고령자의 부적응과 디지털 소외 및 고립은 일상적 생활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고령사회에서는 고령자 대상의 교육제도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고령자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고령자 교육은 명확한 주체 없이 부처별로 파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령자 교육이나 노인교육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것도 사실이다. 「평생교육법」은 고령자도 포함하고 있지만 고령자가 주된 정책 대상으로 부각되지 않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다. 향후 고령인구의 급증과 길어진 노년을 준비하

기 위한 고령자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고령자 교육의 인프라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복지관 이외에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홍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구별로 적어도 1개 이상의 노인 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에서는 대학을 활용하여 노인대학이나 노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탁운영의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교육내용 및 기간과 관련해서는 현재 노인교육이나 평생교육에서는 주 1회씩 4~12회의 단기 교육과정이 주로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대학과 연계한 2~4학기 청강생 과정이나 수료증 과정, 생애전환기 전문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연계한 중·단기의 디지털 교육, 취미·여가, 건강증진 과정 등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 다. 자원봉사 활성화

우리나라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8%<sup>22)</sup> 수준으로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의 사회활동 영역 중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여 고령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노년 세대와는 달리 교육수준이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역량이 높고,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베

22) 55~79세 고령자 대상의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의 자원봉사 참여율(2020년)은 8.4%, 50세 이상 고령자 대상의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자원봉사 참여율(2020년)은 7.0%임.

이비뿔 세대의 생산적 노화를 위한 지원의 하나로 자원봉사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자원봉사 전산시스템 개선과 유관 기관 간 연계 강화를 주요 추진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령자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 자원봉사자에게는 시간당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고령자의 사회적 기여를 통한 세대 간 선순환적인 상호 교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은퇴자협회의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아동 대상 교육 지원)에도 연간 25시간의 교육 참가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인 터뷰에서도 자원봉사자들 간의 소통이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 등을 높이기 위한 자원봉사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고령자의 활동적 노화 그리고 생산적 노화의 중요한 축으로 고령자의 자원봉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교육이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 라. 고령자의 특성에 따른 여가 확대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자의 삶의 양식은 기존 노년층의 경로 의존적인 삶의 형태와는 달리 이질성과 다양성으로 대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령자의 다양한 일상을 기본적으로 뒷받침하는 영역이 여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여가생활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령자 대상의 여가정책은 필수적인 영역으로 고령사회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여가생활은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정책적인 개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가 소외 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고령층과 같이 여가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고령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최근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50~60대의 디지털 역량도 향상되고 있어 50~60대를 대상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여가참여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가 정책 대상을 80세 이후 또는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 노인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70대 후반까지는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활동적인 여가활동(댄스, 난타, 인형극 등)에 참여하지만 80세 이후부터는 동적인 여가활동보다는 정적인 활동이 적절하지만, 여가복지시설에서 80세 이상 후기 노년기를 위해 제공하는 여가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후에도 집 안이 아닌 집 밖의 지역사회에서 여가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가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신체적 기능 저하나 인지적 기능 저하 단계에 있는 고령자들도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3. 정책 모니터링 지표체계 개발 및 지속적인 관리

본 연구는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을 모니터링하였지만,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 틀이나 모형에 기반하여 수행하지는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령자 정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존의 분석 틀이

나 지표체계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E-나라지표, 국가 지표체계, 한국의 사회지표, 사회보장통계 등과 같은 모니터링 체계 또는 지표체계가 매년 생산·공표되고 있지만,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과 관련한 지표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고용 관련 지표나 교육 지표는 64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심수진, 남상민, 조진우, 김대훈(2020)은 고령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취약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8개 영역,<sup>23)</sup> 82개 지표로 구성된 고령자 통계 지표와 축약 형태의 18개 핵심 지표를 제안하였다. 경제활동 영역에는 고용률, 산업별·직업별 취업자 분포, 임금 수준, 일자리 만족도, 취업의사 등의 5개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활동 영역에는 사회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 온라인 사회참여율, 주 여가 활동, 여가생활 만족도, 여행 경험률, 평생교육 참여율로 구성된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질적인 측면에서 지표를 보완하고, 성별이나 연령대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분화된 모니터링 지표가 정기적으로 생산되고 공표된다면 향후 고령사회정책을 개발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 정책 모니터링 지표체계 구축과 병행되어야 할 과제는 정책모니터링 지표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의 설치·운영이다. 고령자 정책 모니터링 지표를 주기적으로 생산 및 공표하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거나 기존 지표를 수정·보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설치되어야 정책 모니터링 지표체계가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23) 인구·가구, 건강, 소득보장, 참여, 대인관계, 생활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주관적 웰빙의 8개 영역.



- 강수연, 김호영, 염유식. (2016). 노년기 사회활동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4). 563-587.
- 강순희. (2016). 중고령자 재취업의 결정요인, 일자리 만족도 및 고용안정성. 취업진로연구, 6(3), 117-140.
- 강은나. (2016). 경제활동참여 중고령자의 성별에 따른 여가유형과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2(2), 111-137.
- 강은나, 김혜진, 김영선. (2012).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근로지속의사 및 근로형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5, 159-182.
- 강은나, 김혜진, 김영선. (2017). 도시지역 1인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수준. 보건사회연구, 37(2). 184-215.
- 강이주, 이영애. (2010).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형태와 동거유형이 건강수준 및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9(6), 1031-1044.
- 고용노동부. (202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1). 통계청 MDIS, 추출다운로드.(20220913 제공받음)
- 고용노동부. (2022a).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22b). 사망재해 현황 및 분석-연령별(산업별 중분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6\\_N015&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6_N015&conn_path=I2)에서 2022. 10. 17. 인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2c).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aged/list3.do>에서 2022. 08. 09일 인출.
- 고용노동부. (2022d). 전체 재해 현황 및 분석-연령별(산업별 중분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6\\_N003&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06_N003&conn_path=I2)에서 2022. 10. 17. 인출.
- 고용노동부. (2022.5.25.).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

- newsView.do?news\_seq=13557에서 2022. 10. 17. 인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1호. (202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C%83%81%20%EC%97%B0%EB%A0%B9%EC%B0%A8%EB%B3%84%EA%B8%88%EC%A7%80%20%EB%B0%8F%20%EA%B3%A0%EB%A0%B9%EC%9E%90%EA%B3%A0%EC%9A%A9%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에서 2022. 12. 28. 인출.
- 교육부. (2022. 01.). 2022년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https://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38&boardSeq=9039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4&opType=N>에서 2022. 12. 19.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 202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권기창, 권승숙. (2020).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특성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한국공공관리학보, 34(4), 255-277.
- 권율. (2006). 우리나라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모니터링과 평가체제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1(3), 22-39. DOI: <https://doi.org/10.34225/jidc.2006.3.22>.
- 권혁창, 홍다영. (2021). 고령자 노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2(3), 597-606.
- 김동선, 모선희. (2011). 국가인권위원회 판정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고용상 연령차별의 요인탐구. 노인복지연구, 51, 145-163.
- 김동선, 모선희. (2012). 연령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령자 고용차별 인식. 사회과학연구, 23(4), 93-112.
- 김명식. (2020). 정년제, 연령차별주의, 웰에이징. 생명연구, 58, 25-45.
- 김문길, 김지원, 최준영, 이정윤. (2020).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혜, 권용희. (2013). 일자리 특성이 고령근로자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 매개효과와 성별 간 다집단분석. 한국노년학, 33(1), 67-84.
- 김민혜, 김주현. (2020). 한국 고령자의 여가 활동 트렌드: 국민여가활동조사 7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0(5), 781-894.
- 김성아, 엄다원. (2021).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경, 신혜리, 김영선. (2019).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온라인 사회참여/네트워크 활동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7(12), 23-34.
- 김수완. (2012). 중고령자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사회정책학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19(2), 69-97.
- 김영범, 이승훈. (2008).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서울 및 춘천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 28(1), 1-18.
- 김영석. (201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양상 분석: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노년학, 39(4), 959-976.
- 김영선, 김보형, 김혜민. (2014).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근로환경 취약점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5(1), 309-329.
- 김윤영. (2021). 노인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불안정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2021.03.17.).
- 김은정, 이상림, 강은나, 김대중, 김종훈, 박종서 ... 이지혜. (2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 모니터링.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희. (2020). 빅데이터에 남겨진 세대별 여행기록: 코로나 19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관광공사.
- 김재희. (2021). 제주지역 노인의 사회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구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7, 1-31.
- 김주현, 오혜인, 주경희. (2020). 노인차별 경험과 자기연령주의(self-ageism). 한국노년학, 40(4), 659-689.

- 김진원, 이금룡. (2021).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자원봉사연구*, 2, 5-25.
- 김철, 손종학. (2019). 고령자 세대의 미래디지털사회 적응을 위한 ICT 교육의 중요성. 28(1), 1-14.
- 김철주. (2016).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이 고령자 취업에 미치는 영향: 내생성을 고려한 패널로짓 모형 추정. *한국사회정책*, 23(1), 95-123.
- 김태훈, 박용현. (2010). 실직경험이 중·고령노동자의 실직 이후 일자리 경로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3(3), 1-25.
- 남을순, 이윤석. (2021). 노인들의 자원봉사와 삶의 질: 2019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4), 145-160.
- 대한민국정부. (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 대한민국정부.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 대한민국정부. (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대한민국정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21.5.18.).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2022년 열린관광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855](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855)에서 2022. 10. 17.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2022a). 2022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22b). 국민여가활동조사(2016-2020). 통계청 MDIS, 추출 다운로드.(20220511 제공받음).
- 박경하. (2011). 고령인력에 대한 인식과 고용과의 관계.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181-206.
- 박성호, 김나영, 김혜자, 서재영, 이쌍철, 전현정 ... 임숙경. (2020).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국가교육지표 개발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희. (2019). 독일 노인대학교 및 U3A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대학 노인평생 교육 체제 구축 방향. 노년교육연구, 5(2), 1-18.
- 박지현. (2018). 통합적 노후준비도에 따른 한국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연구. 한국정책연구, 18(4), 105-120.
- 박창제. (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3(3), 275-297.
- 박창제. (2019). 중고령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2(2), 23-48.
- 손유경, 최성문. (2020).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7(2), 5-40.
- 손영희, 최균. (2014). 경제불황 전후 남성고령자 근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노인복지연구, 66, 405-426.
- 송일호, 박명호. (2012).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비교분석. 사회과학 연구, 19(2), 7-26.
- 송현주, 임란. (2017).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부담과 노후준비. 전북: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202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소개. <https://www.sbiz.or.kr/nbs/select.do>에서 2022.08.03. 인출.
- 심수진, 남상민, 조진우, 김대훈. (2020). 고령자 통계 지표체계 구성 연구.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안준기, 김은석, 조성은. (2021). 고령자 노동시장 분석.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엄문영, 차성현, 박성호, 최수진, 박종효, 신혜숙. (2013). 아시아 국가 대상 교육 지표 개발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오지은, 송일호. (2013). 고령자의 취업여부와 근무형태 및 직종별 취업결정 요인 실증분석. 사회과학연구, 20(3), 24-54.
- 오윤섭, 함영진, 강지원, 이세미, 이규환, 하현상 ... 박상철. (2016).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국희, 주경희, 이연순. (2012). 취업노인의 직장 내 연령차별 경험 연구. 사회 복지정책, 39(4), 281-304.
- 우해봉, 장인수, 임지혜. (2020). 인구변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한 기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용식. (2014). 노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66, 37-54.
- 윤혜진, 김영문, 김은희. (2016). 세대별 여가 인식, 활동 그리고 행복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28(12). 353-370.
- 이경준, 송희경. (2016).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757-769.
- 이금룡. (2017). 한국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한국노년학연구, 26(1). 37-45.
- 이보람, 이정규. (2016). 노인의 생활만족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참여의 효과 비교. 노인복지연구, 71(2), 351-377.
- 이상욱, 이정화. (2021). 중고령자의 은퇴관련변수와 가족관계만족도가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30(2), 259-276.
- 이선영, 김범중. (2020). 취업노인의 연령차별 경험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실제임금과 기대임금 격차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7(3), 35-61.
- 이수경. (2020). 홍콩 노인 아카데미 사례를 통한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12(1), 63-74.
- 이수정, 김윤정, 김민정. (2019). 한국 중·고령자의 직업교육요구 실태에 관한 연구: 은퇴 이후 일하기를 희망하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8), 219-228.
- 이승호·박명준·김근주·주은선·이다미·손동영. (2021).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의 국가비교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윤경. (2019). 로짓모형을 이용한 노후준비의 결정요인 분석 노후생활에 대한

- 기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8(1), 117-146.
- 이윤경, 강은나, 황남희, 주보혜, 김세진. (2019). 노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 ... 김경래. (2020). 2020년 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은경. (2014). 중고령자의 건강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30(3), 183-214.
- 이현기. (2016a). 자원봉사활동의 노인 안녕감에 대한 효과: 패널 GEE 분석. 노인복지연구, 167-188.
- 이현기. (2016b). 노인자원봉사활동의 건강효과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노년학, 36(10), 173-188.
- 이현기. (2018). 중년 이후 자원봉사활동 변화와 자원봉사활동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GRI 연구논총, 20(4), 131-151.
- 이현주. (2015). 중고령자의 사회활동참여와 인지기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1), 138-167.
- 전수경, 류숙희. (2016). 노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및 시사점. 인구사회, 21, 7(4), 637-654.
- 정경희,정은지, 남현주, 최혜지. (2012).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대영. (2021). 경기도민의 세대별 여가활동 특성 분석. GRI 정책Brief. 경기연구원.
- 정순돌, 김종희, 김미리, 이하진, 김지연, 이수지. (2021).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준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정순돌, 이미우. (2012). 우리나라, 미국, 네덜란드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연령차별의 개념과 적용대상. 보건사회연구, 32(2), 118-142.
- 정순돌, 정주희, 김미리. (2016).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4), 5-24.
- 정연, 김수정. (2021). 장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 중·

- 고령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1(1), 160-175.
- 정연, 최지희, 이나경, 김명희, 김인아, 이경희 ... 이정아. (2020).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원일, 전용일. (2014). 사업장 안전보건 환경에 따른 근로조건과 산업재해 발생. *Crisisonomy*, 10(11), 323-344.
- 정윤경. (2021). 고령근로자의 고용불안정 상태, 고용불안과 우울증상의 관계. *한국사회복지교육*, 53, 1-25.
- 정진경, 천희. (2018). 온라인 자원봉사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봉사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원봉사자의 비교. *시민사회와NGO*, 16(1), 49-84.
- 조선주, 정가원, 김난주, 손정민. (2013). OECD 국가의 장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사례 연구. 고용노동부
- 조정은, 안준기, 이주원, 김민서(2021). 고령자 고용정책 해외사례 연구.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조인숙. (2020). 여가활동이 노인의 우울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11), 269-282.
- 주경희. (2011).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영역과 수준에 따른 삶의 질 비교연구: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9, 231-264.
- 주보혜, 임정미, 노범래, 신영규, 임새아, 정희선. (2019). 국제기구와 주요 선형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은정. (2017).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연구: 통계적 차별과 접촉가설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3), 73-109.
- 최숙희. (2014). 고령화시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지*, 6(1), 1-12.
- 최혜지, 박정화, 권미리, 정순돌. (2015). 고령사회 대안 패러다임으로써 연령통합의 유용성에 대한 고찰: 연령통합의 영향에 대한 사회일반과 전문가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3), 107-124.

- 최혜지, 전해상, 유영림, 정순돌. (2016). 연령통합적 관점에 기초한 임금피크제의 고령근로자 노동시장 통합 효과. 한국사회정책, 23(2), 25-48.
- 최혜지, 정은수. (2018). 고령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과 삶의 질. 사회과학연구, 25(2), 217-237.
- 최혜지. (2021). 연령에 유연한 고용환경 촉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모두를 위한 일과 삶,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9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 (2021. 12. 03.).
- 최홍기. (2021).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고용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논총, 50, 31-85.
- 최희정. (2018). 전·후기 노인의 취업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패널 로짓 모형의 활용. 노인복지연구, 73(3), 113-141.
- 통계청.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MDIS, 추출다운로드.(20220913 제 공받음).
- 통계청. (2021a).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MDIS, 추출다운로드.(20220913 제 공받음).
- 통계청. (2021b). 고령인구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conn_path=I2)에서 2022. 06. 17. 인출
- 통계청. (2022a). 노인부양비.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30](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30)에서 2022. 05. 30. 인출.
- 통계청. (2022b).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2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201&conn_path=I2)에서 2022. 12. 28. 인출.
- 통계청. (2022.7.26.).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45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2. 10. 17. 인출.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2).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사업 개요 및 내용.

- [http://www.ekta.kr/?act=info.page&pcode=sub2\\_13](http://www.ekta.kr/?act=info.page&pcode=sub2_13)에서 2022. 07. 14.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2022).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2017-2020). 통계청 MDIS, 추출다운로드.(20220728 제공받음).
-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2022).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 <https://kccf.or.kr/dspv1User/bsnsIntrcn/gvrnCnsgnBsns/GvrnCnsgnBsns.do>에서 2022. 07. 13. 인출.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2022).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소개. <https://www.sbiz.or.kr/nhrp/intro/bizIntroduce.do>에서 2022.08.03. 인출.
- 한정란, 편성숙, 황선정. (2021).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참여 실태 분석: 경기도 B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노년교육연구, 7(1), 1-21.
- 한성수, 윤문구, 정병국. (2009).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자 중심 모니터링체계 개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사)한국경영컨설팅학회.
- 한지나. (2019). 노인의 경제활동과 우울 증상의 관계: 노년기 경제활동에 대한 태도의 조절 효과. 노인복지연구, 74(3), 93-116.
- 함선유. (2016). 고령자의 건강문제가 본인과 배우자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6(4), 157-186.
- 허원구. (2017). 노인의 사회활동참여와 우울 발달궤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3(2), 183-206.
- 1365자원봉사포털. (2022). 자원봉사 통계(2017-2021). <https://www.1365.go.kr/vols/1472177522467/srvcgud/volsStats.do>에서 2022. 10. 18. 인출.
- e-나라지표. (2022). 고령자 고용동향.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_x\\_cd=1496](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_x_cd=1496)에서 2022. 09. 19. 인출.
- KOSIS. (2022).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2)에서 2022. 09.19. 인출.

- AARP. (n.d.). *Experience Corps*. Retrieved from <https://www.aarp.org/experience-corps/experience-corps-volunteer/>.
- Angus, J., & Reeve, P. (2006). Ageism A threat to “aging well”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5(2), 137-152.
- AmeriCorps. (2020). *Senior Corps volunteers receive stipend increase*. Retrieved from <https://americorps.gov/newsroom/press-release/2020/senior-corps-volunteers-receive-stipend-increase>.
- AmeriCorps. (2021). *Key findings from the 2019 Current Population Survey: Civic engagement and volunteering supplement*. Retrieved from [https://americorps.gov/sites/default/files/document/2019%20CPS%20CEV%20findings%20report%20CLEAN\\_10Dec2021\\_508.pdf](https://americorps.gov/sites/default/files/document/2019%20CPS%20CEV%20findings%20report%20CLEAN_10Dec2021_508.pdf).
- AmeriCorps. (n.d.). *AmeriCorps Senior Foster Grandparent Program*. Retrieved from <https://americorps.gov/partner/how-it-works/americorps-seniors-foster-grandparent-program>.
- AmeriCorps. (n.d.). *AmeriCorps Seniors RSVP*. Retrieved from <https://americorps.gov/partner/how-it-works/americorps-seniors-rsvp>.
- AmeriCorps. (n.d.). *AmeriCorps Seniors Senior Companion Program*. Retrieved from <https://americorps.gov/serve/fit-finder/americorps-seniors-senior-companion-program>.
- Axelrad, H. (2018). Early retirement and late retirement: Comparative analysis of 20 European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48(3), 231-250.
- Bonsang, E., Adam, S., & Perelman, S. (2012). Does retirement affect cognitive functioning?. *Journal of health economics*, 31(3), 490-501.
- Bonsang, E., & Klein, T. J. (2012). Retirement and subjective

-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83(3), 311-329.
- Cutler, S. J., Hendricks, J., & O'Neill, G. (2011). Civic engagement and aging. I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pp. 221-233). Academic Press.
- Dingemans, E., Henkens, K., & van Solinge, H. (2017). Working retirees in Europe: individual and societal determinant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31(6), 972-991.
- Federal Register. (2018). *Senior Corps: Senior Companion Program, Foster Grandparent Program, 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Retrieved from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12/17/2018-26739/senior-corps-senior-companion-program-foster-grandparent-program-retired-and-senior-volunteer>.
- Frazier, R.S., Birmingham, C., Wheat, V., & Georges, A. (2019). *A systematic review of Senior Corp's impact on volunteer and program beneficiaries*. North Bethesda, MD: JBS International, Inc.
- Grossetti, M. (2007). Are French networks different?. *Social Networks*, 29(3), 391-404.
- Lee, Y., & Yeung, W. J. J. (2021). The country that never retires: The gendered pathways to retirement in South Korea.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6(3), 642-655.
- Levy, B. R., & Banaji, M. R. (2002). Implicit ageism. (pp. 49-75) In *Ageism: Stereotypes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T. Nelson(Ed.), Cambridge: MIT Press. doi.org/10.1017/s1041610215000198
- Levy, B. R., Slade, M. D., & Kasl, S. V. (2002). Longitudinal benefit of positive self-perceptions of aging on functional health.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 Social Sciences*, 57(5), P409-P417.
- National Council on Aging. (2022). *About the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 Retrieved from <https://www.ncoa.org/article/about-the-senior-community-service-employment-program-scsep>.
- Levy, B. R., Zonderman, A. B., Slade, M. D., & Ferrucci, L. (2009). Age stereotypes held earlier in life predict cardiovascular events in later life. *Psychological Science*, 20(3), 296-298.
- Majeed, T., Forder, P. M., Tavener, M., Vo, K., & Byles, J. (2017). Work after age 65: a prospective study of Australian men and women. *Australasian journal on ageing*, 36(2), 158-164.
- Modicamore, D., & Naugler, A. (2020). AmeriCorps and Senior Corps: Quantifying the impact. Retrieved from [https://voicesforservice.org/wp-content/uploads/2020/07/ICF\\_AmeriCorps-and-Senior-Corps\\_Quantifying-the-Impact\\_FINAL.pdf](https://voicesforservice.org/wp-content/uploads/2020/07/ICF_AmeriCorps-and-Senior-Corps_Quantifying-the-Impact_FINAL.pdf).
- Mosca, I., & Barrett, A. (2016). The Impact of Voluntary and Involuntary Retirement on Mental Health: Evidence from Older Irish Adults. *The Journal of Mental Health Policy and Economics*, 19(1), 33-44.
- Palomäki, L. M. (2019). Does it matter how you retire? Old-age retirement routes and subjective economic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2(2), 733-751.
- Parker, S. (1976). *Leisure: The Basis of Leisure*. London: Faber.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 Pasquale, F. (2015). *The Black Box Societ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Rebok, G. W., Carlson, M. C., Barron, J. S., Frick, K. D., McGill, S., Parisi, J. M., Seeman, T., Tan, E. J., Tanner, E. K., Willging, P. R., & Fried, L. P. (2011). Experience Corps®: A civic engagement-based public health intervention in the public schools. In *Enhancing cognitive fitness in adults* (pp. 469-487). Springer, New York, NY.
- Riley, M. W., & Riley Jr, J. W. (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3), 266-270.
- Rosales, A., & Fernández-Ardèvol, M. (2020). Ageism in the era of digital platforms. *Convergence*, 26(5-6), 1074-1087.
- Robinson, J. P., & Godebey, G. (1997). *Time for Life*.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Tang, F. (2010). Volunteering by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China Journal of Social Work*, 3(2-3), 289-300.
-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2). *Council Declaration on the 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 WHO. (2002). *Active ageing - A policy framework*. A contrib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o the Second United Nations World Assembly on Ageing. Madrid, Spain, April 2002.
- Zaidi, A., Gasior, K., Hofmarcher, M., Lelkes, O., Marin, B., Rodrigues, R., Schmidt, A., Vanhuysse, P., Zolyomi, E. (2013). *Active Ageing Index 2012: Concept, Methodology and Final Results*. European Centre Vienna
- 文部科学省. (2019). 『平成30年度 文部科学白書』, 第3章 生涯学習社会の実現. [https://www.mext.go.jp/b\\_menu/hakusho/html/hpab201901/1420047\\_010.pdf](https://www.mext.go.jp/b_menu/hakusho/html/hpab201901/1420047_010.pdf)에서 2022. 10. 21. 인출.



## [부록 1] 해외 사례 검토

### 1. 일본

#### 가. 고령자 경제활동 정책

□ 일본의 고령자 경제활동 정책을 고령자의 퇴직을 늦추는 정책과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과 관련한 공공 전달체계를 살펴보았음

□ 고령자의 퇴직을 늦추는 정책

○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안정법)은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연령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마련하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주보혜, 임정미, 노범래, 신영규, 임새아, 정희선, 2019)

○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 2021년 4월 법 개정을 통하여 고령자의 경우 만 70세까지 취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60세 정년을 시행하거나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폐지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 한국의 경우와 달리 일본은 법적 정년이 실제 고령자의 은퇴 시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년 의무화 조치가 효과적인

로 작용 가능함(이승호, 박명준, 김근주, 주은선, 이다미, 손동영, 2021)

○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 의무화

- 일본 후생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이 만 65세인 점을 감안하여 만 60세인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이 지난 고령자에 대한 고용확보 조치를 시행함
- 고령자 고용안정법에서는 정년 연장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제도(창업 등)를 통하여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주에 대해서도 이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정년 연장, 지속 재고용, 정년 폐지)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여 법률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주보혜 외, 2019; 조성은, 안준기, 이주원, 김민서, 2021)
- 이외에도 2023년부터 일본 정부는 공무원의 정년을 2년마다 1년씩 연장하고 정년 이후에는 기존의 약 70% 임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음(이승호 외, 2021)

□ 고령자의 고용지원을 위한 정책

○ 고령자 고용기업 확대(조성은 외, 2021)

- 고령자 고용기업 확대를 통하여 일본은 고용환경 개선 및 평생 현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기업 대상 상담 및 지원 서비스, 65세 이상 고용 추진 조성금을 통한 기업지원, 고령근로자의 무기고용 전환 기

### 업에 대한 지원 등임

- 대표적인 정책 지원 기관인 'JEED'는 위와 같은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의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함

#### ○ 고령자 재취업 지원 강화(조성은 외, 2021)

- 고령자의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해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를 통하여 재취업 지원 및 취업 설계를 지원함
- 고령 퇴직자의 경력정보를 등록하고 기업의 연계를 돕거나(커리어인재뱅크사업), 고령 구직자의 재취업 지원 및 채용 사업 등 지역의 종합적 고용서비스 기관으로서 직업소개, 고용대책 등의 지원을 수행함
- 다양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자체 내에서는 지역 내 일자리를 확대 창출하거나 고령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 고용 촉진 관련 조성금

- 근로 욕구가 있는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자 하는 제도이자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고용 촉진 조성금이 있음(이승호 외, 2021)
- 조성금은 계속고용 촉진, 고용관리 개선, 고령자 무기고용 전환 등에 사용되는데, 계속고용 촉진의 경우는 사업주가 정년 상향이나 폐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차등 지원함
- 고용관리 개선의 경우는 고령자 계속고용에 필요한 비용이 발

생활 시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범주에는 유연근로제, 고령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 등이 포함됨

- 고령자 무기고용 전환의 경우는 50세 이상이면서 법정 정년 미만인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고용자는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됨으로써 고용안정성을 보장 받는 효과가 있음
- 이외에도 만 60~64세 고령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금, 중고령자 최초 채용 보조금 등을 통하여 고령자의 고용 및 취·창업을 유도하는 보조금 제도를 시행함

#### □ 고령자 고용지원 전달체계

- 일본은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조성은 외, 2021). 고용정책 관련 관할 관청인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도도부 현 노동국-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의 행정체계로 운영됨
  - 우리나라 고용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헬로워크는 고령자 전달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에게 공공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소개, 고용보험, 고용대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고령, 장애, 구직자 고용 지원 기구인 JEED를 독립행정법인서 근로환경 정비와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 주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사관리, 고령자 근로환경 개선 등의 고령자 고용 상담, 고령자 고용 정보 제공, 고용 지원 보조금(조성금) 지급 및 지원업무 수행

## 나. 일본의 생애학습

### □ 생애학습 정책 추진<sup>24)</sup>

- 문부과학성에서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제3기 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생애에 걸쳐 각자의 가능성과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 만들기를 위한 사회교육의 진흥방책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생애에 걸쳐 배우기 위한 사회인 대상 재교육 추진 등 인생 100세 시대를 내다본 생애학습을 추진하고 있음

### □ 사회인에 대한 학습 추진

-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후에도 대학 등에서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능, 교양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출산이나 육아 등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대응한 활약 지원이나 젊은 사람의 활약 지원의 관점에서 사회인 대상 재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일본정부에도 ‘연령에 상관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리커런트(recurrent) 교육’을 주된 과제로 생각하여, 2017년 9월 ‘인생 100세 시대 구상회의’를 설치함
- 직업실천력육성 프로그램<sup>25)</sup>: 사회인 학습을 추진하고,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는 교육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서 대학·대학원·단기대

24) 文部科学省, 『平成30年度文部科学白書』, 2019年 「第3章 生涯学習社会の実現」에서 요약·정리함.

25) 「직업실천력육성 프로그램」은 2019년 5월 현재 261개 과정이 인증을 받음.

학·고등전문학교에서 사회인이나 기업의 니즈에 맞는 실천적이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문부과학성 장관이 인증함

- 커리어형성촉진 프로그램<sup>26)</sup>: 전수학교에서 사회인이 수강하기 쉽게 하는 방안이나 기업과 연계된 실천적·전문적 프로그램을 문부과학성 장관이 인증함
- Society 5.0에 대응한 고도기술인재육성사업: IT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실시 등을 추진함
- 여성의 학습과 커리어 형성·재취업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리커런트(recurrent) 교육의 강좌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정보 제공 포털사이트 정비 등을 통해 사회인이 학습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함

□ 장애인의 생애에 걸친 학습 지원

- 2018년 3월에 각의 결정된 제4차 장애인기본계획 및 같은 해 6월에 각의 결정된 제3기 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도 장애인의 생애 학습에 대해 명시함
- 문부과학성에서는 2018년도부터 학교 졸업 후에 장애인 학습지원에 관한 실천연구사업으로, 학교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이행기나 인생의 각 단계에서 학습 프로그램과 실시체제, 관계기관·단체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법 등에 관한 실천연구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인 생애학습 활동에 참가할 때의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을 파악·분석하는 조사연구를 실시함

---

26) 커리어형성촉진 프로그램은 2019년 1월 현재 12개 과정이 인증을 받음.

## □ 전수학교 교육의 진흥

- 전수학교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변화에 대응한 실천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핵심 기관임
- 전수학교는 입학 자격의 차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수준을 입학자격으로 정한 전문과정(전문학교), 중학교 졸업 수준을 입학자격으로 정한 고등과정(고등전수학교), 입학자격을 묻지 않는 일반과정<sup>27)</sup> 세 가지 과정이 있음
  - 2012년도부터는 학점제 및 통신제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기업과 연계를 통해 실천적인 직업교육의 질 확보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전문과정을 직업실천전문과정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창설됨<sup>27)</sup>
  - 교육비 부담의 경감을 목적으로 고등과정은 고등학교 취업지원금과 고등학생 장학급여금의 지급 대상임
- 2018년 5월 현재 3,160개 학교가 설치되어, 65만 3,132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음

## 〈부록표 1〉 전수학교의 목적, 과정 및 주요 요건

목적	직업 또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양성하고 교양 향상을 도모한다.		
요건	수업연수 1년 이상, 연간 수업시간 800시간 이상, 상시 40인 이상 재학생		
과정	<b>고등과정(고등전수학교)</b> 입학자격: 중학 졸업	<b>전문과정(전문학교)</b> 입학자격: 고교·고등전수학교(3년제) 이상	<b>일반과정</b> 입학자격: 제한 없음

자료: 文部科学省, 『平成30年度 文部科学白書』 2019年 p.86

27) 2019년 3월 현재 994개교의 2,986개 학과가 인증을 받음.

□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① 방송대학의 확충·정비

- 언제나 누구라도 배울 수 있도록 TV·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대학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
- 방송대학은 학부·대학원을 합하여 300개가 넘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학생은 기존 학문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목적에 맞춰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함
- 2018년도 제2학기 현재 약 9만명이 방송대학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60만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함

② 대학에서 생애학습의 기회 제공

- 생애학습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각 대학(단기대학을 포함)은 사회인 입시, 야간·주야간 개설제, 과목 이수생, 통신교육, 이수증명제도, 공개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이 중에서 공개강좌는 많은 대학에서 개설하여 대학의 교육과 연구 성과를 직접 지역주민에게 학습 기회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016년도에는 855개 대학에서 30,378개 강좌가 개설되었고, 1,145,688명이 수강함

③ 사회통신교육

- 학교나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이 실시하는 통신교육 중 사회교육상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인증하여 보급을 장려함
- 2019년 3월 말 현재 문부과학성 인증 사회통신교육은 26개

단체의 110개 과정이고, 2018년 1년간 수강자 수는 약 72,000명임

④ 민간 교육사업자, NPO 법인 등과의 연계

- 문부과학성은 민간단체와 행정협력을 통해서 대응을 확대하고, 민간 교육사업을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대응을 소개하는 등 민간단체의 대응 활성화와 국민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함

## 2. 미국

### 가. 고령자 경제활동 정책<sup>28)</sup>

□ 미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연령으로 구분한 고령자 고용정책은 없으며, 연령과 함께 저소득, 무역조정 같은 추가적인 고용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특정 대상을 위한 정책이나 통합적 형태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조선주, 정가원, 김난주, 손정민, 2013)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

- 1967년에 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은 40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1978년에 의무퇴직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였고, 1986년 개정 시 40세 이상의 모든 중고령자에 대한 연령에 근거한 차

28) 조성은 외(2021)의 연구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함.

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꿔 사실상 정년제를 폐지함

- 연령에 의한 차별은 채용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과정에서 금지되며, 사용자, 노동단체, 직업소개기관 등 모든 관계자들의 직접적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 차별까지 포함해 넓은 처벌의 개념에 근거하여 금지함

□ 지역사회 기여형 시니어 고용 프로그램(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SCSEP)

- 1964년 시작되었으며, 55세 이상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이면서도 고용의 기회가 부족한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고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임

○ 자격요건

- 참여 대상은 만 55세 이상이며, 직업이 없고, 가구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선의 125%를 넘지 않아야 함
- 이 중에서도 65세 이상, 장애인, 퇴역군인,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자 등의 요건을 지닌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음
- SCSEP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선 운영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참여 의지 및 능력을 확인받은 후 다양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에 배정됨
- 근로시간은 최저시급을 받는 주당 20시간이고, 6개월간 참여 가능함

□ 시니어 환경분야 고용(SEE)

- 조기 퇴직한 고령 근로자의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함

## ○ 자격요건

- 만 55세 이상의 퇴직 및 실직 상태에 있는 개인
- 보유하고 있는 환경 및 산업 관련 경험과 재능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업무를 배정함

○ SEE 참여자는 능력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되고 그에 따른 상이한 보수체계를 적용받아 보수 외에도 다양한 부가혜택(Fringe Benefits)을 제공받음

○ 2019년 현재 SEE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EPA와 협약을 맺은 비영리단체는 총 5개이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숫자는 대략 1,000명 정도임

## □ 미국의 고령자 고용지원 전달체계

○ 미국의 경우 연령에 따른 연령차별금지법의 영향으로 고령자 대상의 고용지원 정책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음. 대신, 고령자 대상의 고용정책은 원스톱센터(One-Stop Career Center)를 통해 추진되고 있음

○ 원스톱센터는 민간기관이나 비영리기관과 연합하여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서비스 대상의 보편화를 목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내 고용 및 취업지원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로 기능하고 있음

○ 저소득층을 위한 경력서비스 등 고용 관련 서비스 외에 구직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하며, 사업주를 위한 구인등록, 전문가 상담, 교육 및 훈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나. 미국의 고령자 자원봉사

### □ 역사적 배경

-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연방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자원봉사를 지원해오고 있음
  - 1930년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 미국 내 국토 및 자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창단된 자원봉사 단체인 시민봉사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 1960년대 초 존 F. 케네디 행정부의 개발도상국 파견봉사단인 평화봉사단(Peace Corps) 이후 1960년대 중반 린든 B. 존슨 행정부부터 본격적으로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시작됨
- 1965년 존슨 행정부는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저소득 노인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경우 활동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고, 무료 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제공함
  - 위탁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 이하 FGP)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됨(Frazier et al., 2019)
    - 병원, 보육시설, 아동장애시설 등에 고령자를 파견하고 아이들과 일대일로 매칭하여 멘토링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
  - 저소득 노인 지역사회 고용 프로그램(The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도 1965년부터 시행됨(National Council on Aging, 2022)
    - 6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연방 빈곤 기준 125% 이하)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되며, 소득이 낮고 무직인 장·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와 직업훈련을 위한 기회를 주는 데에 목적이 있음

- 1968년에는 시니어 동반자 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이하 SCP)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1970년 닉슨 행정부 당시 미국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 제정과 함께 1971년 퇴직봉사 프로그램(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이하 RSVP)이 개발됨(AmeriCorps, n.d.; Frazier et al., 2019).
-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전국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공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이하 CNCS)<sup>29)</sup>이라는 연방정부 산하의 독립기관을 설립하여 국가 주도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함(Tang, 2010).
  - 이때 기존의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FGP, SCP, RSVP가 Senior Corps로 통합됨(2020년부터 AmeriCorps Seniors로 명칭이 변경됨)
-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에드워드 케네디 자원봉사법(Edward M. Kennedy Service America Act)이 통과됨으로써 자원봉사, 근로 등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연방정부 예산지원이 대폭 확대됨
  - 해당 법을 통해 55세 이상 고령자가 공공 및 비영리기관에서 관리직으로 1년간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Encore Fellowship과 고령자가 연간 3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할 경우 \$1,000에 상당하는 장학금(자녀 및 손자녀에게 이전 가능)을 지원하는 Silver Scholarships이 도입됨(Cutler, S. J., Hendricks, J., & O'Neill, G.,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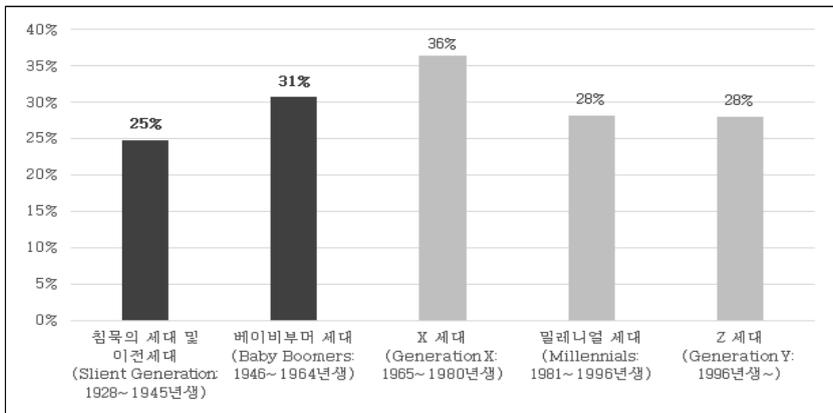
---

29) CNCS는 2020년 9월 이후 AmeriCorps를 운영상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적명칭은 여전히 전국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공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이하 CNCS)이다(AmeriCorps, 2020).

□ 미국 고령자 자원봉사 현황(2019년 기준)

- 고령자 집단은 크게 베이비부머 세대(Baby Boomers: 1946~1964년)와 그 이전 세대에 해당하는 침묵의 세대(Silent Generation: 1928~1945년)로 구성됨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약 31%, 침묵의 세대 및 이전 세대는 약 25%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

[부록 그림 1] 세대별 자원봉사 참여 현황



자료: AmeriCorps. (2021). Key findings from the 2019 Current Population Survey: Civic engagement and volunteering supplement. pp. 3~9.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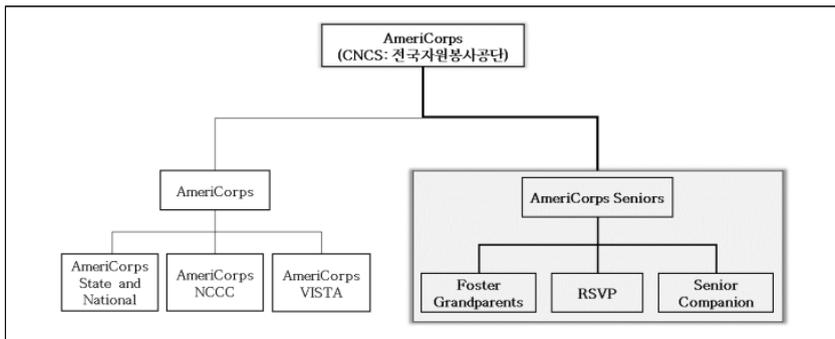
□ 연방정부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 미국은 연방정부 주도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각 프로그램은 AmeriCorps라는 연방정부 산하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유형은 연령에 따라 AmeriCorps(프로그램명)<sup>30)</sup>와 AmeriCorps Seniors로 구분됨 (Modicamore & Naugler, 2020)

30) AmeriCorps는 기관 명칭이자 AmeriCorps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임.

- AmeriCorps(프로그램명)는 대부분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나 일부 세부 프로그램의 경우 고령자는 지원이 불가함. AmeriCorps는 환경보호, 재난대응, 공공안전 지원, 공중보건 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 재생 등 활동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함

[부록 그림 2] AmeriCorps 운영체계



자료: Modicamore & Naugler. (2020). AmeriCorps and Senior Corps: Quantifying the impact. pp. 10~11. 재구성.

- AmeriCorps Seniors는 55세 이상 고령자만 참여 가능하며, 총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① 위탁조부모 프로그램(Foster Grandparents Program: FGP)
- 활동 내용: 지역 내 취약아동 대상 롤모델, 멘토, 친구로서 병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교정기관 등 지역사회 기관에 파견되어 활동하며, 주당 평균 20시간 정도 봉사함
  - 아이들과 일대일로 연결되어 읽기 능력 향상 지원, 비행청소년 및 미혼모를 위한 멘토링, 조숙, 장애·학대·방임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 봉사자에 대한 지원: 훈련 프로그램, 활동비(빈곤선 200% 이내 기준 충족 시, 시간당 \$3), 보험 등

- 2018년 참여 현황: 봉사자 30,000명, 지원아동 170,000명 이상
  - 재정: 90%가 연방정부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10%는 지역, 기관의 자체예산 등 비연방정부 예산으로 매칭함
- ② 시니어 동반자 프로그램(Senior Companion Program: SCP)
- 활동 내용: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활동(예. 병원동행, 장보기 지원, 간병 지원, 말벗 되어 주기 등)을 수행하며, 주당 평균 20시간 활동함
  - 봉사자에 대한 지원: 훈련 프로그램, 활동비(빈곤선 200% 이내 기준 충족 필요), 보험 등
  - 2018년 참여 현황: 봉사자 14,000명, 고령자 지원 38,600명 이상
  - 재정: 90%가 연방정부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10%는 지역, 기관의 자체예산 등 비연방정부 예산으로 매칭함(Federal Register, 2018)
- ③ 퇴직봉사 프로그램(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 1971년부터 시작된 고령자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55세 이상 고령자 자원봉사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AmeriCorps, n.d.; Frazier et al., 2019)
  - 활동 내용: FGP와 SCP와는 달리 자원봉사자의 활동 범위가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되어, RSVP 자원봉사자가 파견되는 지역기관에 따라 활동 내용이 상이함
    - 활동 예시: 청소년 감호시설에 입소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지원, 취약계층 식사 배달, 장보기 지원, 저소

득층을 위한 집수리 지원, 지역사회 환경개선 활동, 연말정산 등 세금 관련 서류 작성 지원, 이력서 작성방법 교육 등 청장년 구직활동 지원 등

- RSVP 자원봉사자는 주 4~40시간을 활동하며, FGP나 SCP와는 달리 활동비가 지원되지 않음
- 봉사자에 대한 지원: 훈련 프로그램, 유류비 지원(이외 활동비 지원 불가) 등
- 2018년 참여 현황: 봉사자 174,000명, 대상자 지원 700,000명 이상

〈부록표 2〉 AmeriCorps Seniors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명	대상	활동내용	봉사자 지원	실적 (2018년)
Foster Grandparents Program (FGP)	55세 이상 고령자	지역 내 취약아동 대상 톨 모델, 멘토, 친구로써 병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교정기관 등에서 활동하며, 주당 평균 20시간 정도 봉사함.	훈련 프로그램, 활동비, 보험 등	봉사자 30,000명, 지원아동 170,000명 이상
Senior Companion Program (SCP)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대상 일상생활 지원활동을(예. 병원 동행, 장보기 지원, 간병 지원, 말벗 되어주기 등) 수행하며, 주당 평균 20시간 활동함.		봉사자 14,000명, 고령자 지원 38,600명 이상
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RSVP)		파견되는 지역기관에 따라 활동. 내용이 상이함(예. 청소년 점정고시 지원, 취약계층 식사배달, 장보기 지원, 집수리 지원, 환경개선 활동, 청장년 구직활동 지원 등)	훈련 프로그램, 유류비 지원 (이외 활동비 지원불가) 등	봉사자 174,000명, 대상자 지원 700,000명 이상

자료: Frazier et al. (2019). A systematic review of Senior Corps' impact on volunteer and program beneficiaries; AmeriCorps. (2020). Senior Corps volunteers receive stipend increase; AmeriCorps. (n.d.). AmeriCorps Senior Foster Grandparent Program; AmeriCorps. (n.d.). AmeriCorps Seniors RSVP; AmeriCorps. (n.d.). AmeriCorps Seniors Senior Companion Program. 연구진 재구성.

□ 민간 영역의 대표적 프로그램

- Encore.org의 Generation to Generation(이하 Gen2Gen)
  - 2016년부터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고령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 청년 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함
  - 아이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 Encore.org의 Encore Fellows™
  - 본 프로그램에 등록된 고령자는 자신이 가진 역량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연결되어 해당 기관에서 6~12개월 동안 연 \$25,000가량의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활동함
  -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면 프로그램 담당자가 고령자의 역량과 기술, 관심사에 적합한 기관을 찾아 연결해주며, 인터뷰 이후에 활동 여부를 결정함
  - 마케팅, 정보기술, 인적자원개발, 법적 자문, 재무관리, 사업 기획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함
- 미국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이하 AARP)의 Experience Corps
  - 고령자 자원봉사자는 아이들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강사로 활동하며, 미국 내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30,000명 이상의 아동을 지원함
  - 자원봉사자 자격 요건: 5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및 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추고, 범죄이력이 없어야 함
  - 매년 25시간의 훈련 프로그램 참가 필수, 학기 중 주당 5~15

시간 활동하며, 월 \$250가량의 활동비를 지원받음(AARP, n.d.; Rebok et al., 2011)

- 재정: 연방정부 산하 자원봉사 지원기관 AmeriCorps와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로부터 사업비의 16%를 지원받으며, 나머지 84%는 AARP 재단 및 외부 후원 등으로 충당함(AARP, n.d.)

○ 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SCORE)

- 현직에 있거나 은퇴한 사업주 또는 기관의 고위 임원으로 근무하는 봉사자가 중소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주에게 무료로 경영과 관련한 도움을 제공함
- 지원 방식은 일대일 대면 및 비대면 멘토링부터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하고, 예비 창업주 및 중소 자영업자가 경영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공개함

## [부록 2] 전화조사 조사표: 경제활동

### 고령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플러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고령자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2022년 연구 과제로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및 연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규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의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며, 모든 통계자료 및 연구물에서 익명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적인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연구의 결과물은 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친 이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의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의 최종결과물 작성 시에도 개인식별이 가능하지 않도록 자료를 처리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통계법 제33조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 통계법 제34조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①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2년 9월 ~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 한국능률협회플러스  
☎ 02-3279-2315 김민경 선임

※ 아래는 응답자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SQ0	귀하께서는 현재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설문 종료			
SQ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2	연령	만 _____세 ☞ 만 50~69세에 해당되지 않으면, 설문 종료					
SQ3	가구원 수	본인 포함 _____명					
SQ4	거주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Q5	거주지 유형	① 도시지역(동 부)		② 농촌지역(읍면 부)			

**A. 경제활동 일반 현황**

**1** 아래의 보기 중에서 귀하께서 현재 종사하고 계신 직업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문직, 교수 등)
- ③ 사무 종사자 (일반 사무직)
- ④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직, 경찰/소방관 등)
- ⑤ 판매 종사자 (영업직)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기술직)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생산직)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군인

**2** 아래의 보기 중에서, 귀하의 근로유형(지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 ① 상용 근로자
- ② 임시 근로자
- ③ 일용 근로자
- ④ 자영업자
- ⑤ 무급가족종사자
- ⑥ 기타

**3** 귀하의 평균 1주당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평균 [ ] 시간

**4** 귀하의 근무시간 유형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 ① 전일제
- ② 시간제

**5** 귀하의 4대보험 가입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 ① 국민연금
- ② 건강보험
- ③ 고용보험
- ④ 산재보험

**6** 귀하께서는 현재 종사하고 계신 직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불만족
- ⑤ 매우 불만족

예를 들어 **6** 에서 '①번 또는 ②번'에 응답한 응답자는 **6-1** 로 이동.

예를 들어 **6** 에서 '④번 또는 ⑤번'에 응답한 응답자는 **6-2** 로 이동.

예를 들어 **6** 에서 '③번'에 응답한 응답자는 **7** 로 이동.



**C. 고령자 고용정책 인지도**

**10** 아래의 표는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귀하의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 이용 의향에 대해 예, 아니오 중 해당되는 보기항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계속고용제도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①정년(만60세)을 연장하거나 ② 정년을 폐지하거나 또는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하는 제도

	인지 여부	이용 의향
<b>10-1</b> 계속고용제도*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b>10-2</b>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① 예 ② 아니오	
<b>10-3</b> 전직 지원서비스나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b>10-4</b>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b>10-5</b> 폐업과 취업, 창업을 지원해주는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b>10-6</b>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11** 귀하께서는 50대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년연장제도의 안착
- ②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
- ③ 재취업 지원(전문직업교육, 교육훈련 비용 지원, 취업알선 등)
- ④ 창업 지원(창업교육, 창업자금 지원 등)
- ⑤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적인 사회적 문화 개선
- ⑥ 기타

※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 목적으로 몇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b>DQ1</b>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및 대졸    ④ 대학원 졸업 이상
<b>DQ2</b> 지난 3개월 간의 월평균 가구소득	① 소득 없음    ② 100만원 미만    ③ 100~200만원    ④ 200~300만원 ⑤ 300~400만원    ⑥ 400~500만원    ⑦ 500~600만원    ⑧ 600~700만원 ⑨ 700만원 이상
<b>DQ3</b> 월평균 근로소득 (세후 기준)	① 50만원 이하    ② 50~100만원    ③ 100~200만원    ④ 200~300만원 ⑤ 300~400만원    ⑥ 400~500만원    ⑦ 500~600만원    ⑧ 600~700만원 ⑨ 700만원 이상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3] 전화조사 조사표: 사회활동

### 고령자 사회활동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플러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고령자 사회활동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2022년 연구과제로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위 연구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사회활동 참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및 연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규정), 제34조(통계조사자 등의 의무)의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며, 모든 통계자료 및 연구물에서 익명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조사결과와 통계적인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연구의 결과물은 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친 이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의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의 최종결과물 작성 시에도 개인식별이 가능하지 않도록 자료를 처리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통계법 제33조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 있어 사전에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 통계법 제34조 통계조사자, 통계조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①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2년 9월 ~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의 한국능률협회플러스  
☎ 02-3279-2315 김민경 선임

※ 아래는 응답자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SQ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2 연령	만 _____세 ☞ 만 60~79세에 해당되지 않으면, 설문 종료	
SQ3 가구원 수	본인 포함 _____명	
SQ4 거주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Q5 거주지 유형	① 도시지역(동 부)    ② 농촌지역(읍면 부)	

※ 사회활동이란?  
: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닌,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함

**1** 귀하께서 지난 한달 동안 참여하신 사회활동은 무엇이며,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 각 사회활동 유형별 예시

- ① 문화예술 관람/참여: 관람(전시회, 연주회, 연극 등), 참여(악기연주, 노래교실, 미술활동, 무용 등)
- ② 스포츠 관람이나 참여: 관람(현장 관람, TV/인터넷 관람), 참여(축구, 요가, 당구, 테니스스포츠 등)
- ③ 취미오락활동: 등산, 낚시, 바둑, 장기 등
- ④ 자원봉사활동: 모든 유형의 봉사활동 포함됨
- ⑤ 친목모임: 가족 외의 친인척, 직장, 종교모임, 동호회 등 친목 목적의 사적인 모임

- |              |              |
|--------------|--------------|
| ① 참여하지 않음    | ① 일주일에 3회 이상 |
| ② 일주일에 1~2회  | ③ 한 달에 2~3회  |
| ④ 한 달에 1회 이하 |              |

<b>1-1</b> 문화예술 관람이나 참여	
<b>1-2</b> 스포츠(운동) 관람이나 참여	
<b>1-3</b> 취미오락활동	
<b>1-4</b> 학습/교육활동	
<b>1-5</b> 자원봉사활동	
<b>1-6</b> 친목모임(동호회 등)	

☞ **1** 에서 **1-1** ~ **1-6** 에 모두 '0번'에 응답한 응답자는 **1-2** 로 이동.  
그 외 응답자는 **1-3** 으로 이동

**1-2** [문1에서 모든 사회활동에 '0참여하지 않음'을 선택한 응답자만 응답]  
귀하께서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이 부족해서
- ② 경제적 부담 때문에
- ③ 참여가능한 기관이나 관심있는 프로그램/강좌가 없어서
- ④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 ⑤ 혼자 즐기는 활동을 좋아해서
- ⑥ 기타

**1-3** [문1의 사회활동 유형 중에서 하나라도 참여한 응답자만 응답]  
 귀하께서는 현재 참여하고 계신 사회활동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귀하께서 현재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2개 까지 응답해주시시오.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도 포함)

- ① 문화예술 관람이나 참여                      ② 스포츠(운동) 관람이나 참여
- ③ 취미오락활동                      ④ 학습/교육활동
- ⑤ 자원봉사활동                      ⑥ 친목모임 (동호회 등)
- ⑦ 기타

**3** 귀하께서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시간 할애와 비용 투자를 각각 어느정도 까지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b>3-1</b> 1주당 할애 가능 일수	주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일
<b>3-2</b> 1주당 할애 가능 시간	주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시간
<b>3-3</b> 1개월당 투자 가능 비용	월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원

**4** 귀하는 50대 이상 고령자의 사회활동 영역 중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예술                      ② 스포츠(운동)
- ③ 학습/교육                      ④ 자원봉사
- ⑤ 친목활동                      ⑥ 기타

**5** 앞으로 무엇인가를 배운다면 어떠한 교육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문화예술 교육                      ② 스포츠(운동) 교육
- ③ 직업능력향상 교육                      ④ 어학 관련 교육
- ⑤ 디지털 교육                      ⑥ 기타
- ⑦ 없다

**6** 아래의 표는 고령자 대상 사회활동 지원 정책들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보기항목을 선택해주시시오.

	인지 여부	
<b>6-1</b>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b>6-2</b> 노인복지관의 여가문화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b>6-3</b> 고령자 맞춤형 여행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b>6-4</b> 성인문해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b>6-5</b>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배움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 목적으로 몇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b>DQ1</b>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및 대졸	④ 대학원 졸업 이상
<b>DQ2</b> 지난 3개월 간의 월평균 가구소득	① 소득 없음	② 100만원 미만	③ 100~200만원	④ 200~300만원
	⑤ 300~400만원	⑥ 400~500만원	⑦ 500~600만원	⑧ 600~700만원
	⑨ 700만원 이상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